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⑨

REPORTS ON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2007. 1. - 2009.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⑨**

2007. 1. - 2009.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서 문

2007-2009년은 출판도시 1단계가 완성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출판도시 1단계의 성공적인 완성은 2단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발의하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의 충의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며 ‘책과 영화의 도시’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합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최초 출판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 이미 준비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조성된 문화예술도시의 외형을 가다듬고 확장하며 도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키워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계획했습니다.

1단계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각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단계 사업을 기획했으며 특히 출판과 영상을 아우르는 문화도시 건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출판 유토피아 조성의 꿈을 넘어서 출판도시의 정체성과 개발방향에 대해 논의와 공동성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함께 노력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단계 완성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은

# 차 례

서문	3
2007년 협동화사업 완료와 2단계 협동화사업 진행 始動	6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9
● 인쇄 발간된 자료	23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31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45
2008년 출판도시의 국제화 및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선포	50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53
● 인쇄 발간된 자료	65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69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93
2009년 출판도시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다	100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103
● 인쇄 발간된 자료	117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127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139

# 2007년

## 1단계 협동화사업 완료와 2단계 협동화사업 진행 始動

3월, 盧武鉉 대통령과 令夫人 權良淑 여사가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李起雄 이사장이 출판도시 현안, 2단계 협동화사업 및 추가사업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5월에는 교육연수지원시설인 게스트하우스 호텔 '紙之鄉'과 갤러리 '紙之鄉'이 개관되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모든 시설이 완성되었다.

이와 함께 근대 한국의 출판인쇄 자료를 전시하고 시연하는 '출판도시 활판공방'을 비롯하여, 웅진씽크빅, 두성산업 등 10여 개 출판·인쇄사가 입주함으로써 출판도시 1단계 협동화사업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단계 협동화사업에서도 1단계 협동화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 조합원의 적정 소요 건축 면적, 이전계획, 재정규모, 회사의 비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한 내용을 담아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에는 2단계 상업·문화 시설을 연계한 두 개의 도서관,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와 '영혼의 도서관'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07년

## 2007년 주요행사

01. 13	게스트하우스 완공에 따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간담회
01. 30	게스트하우스 디자인 설명회
02. 22	제17차 정기총회
03. 10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영부인 출판도시 방문
03. 22	두성산업 입주기념식
03. 27	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추진현황 설명회
04. 02	웅진씽크빅 입주기념식
04. 05	출판도시 새봄음악회 '음악으로 빛나는 출판도시'
04. 13	2007 해외 건축답사
04. 20	세제감면 관련 설명회
04. 25	프랑스 르피가로지 기자, 출판도시 취재
05. 03	출판도시 1단계 완성 기념세미나 '이 시대 출판도시가 남긴 것'
05. 04	2007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05. 26	심학산 돌곶이꽃마을축제에 출판도시 홍보부스 운영
05. 28	김문수 도지사, 출판도시 방문
06. 27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문화관광부에 제출
09. 01	문화관광부 김종민 장관, 출판도시 방문
10. 02	'파주출판도시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 31	출판도시 국제출판포럼 개막
11. 01	'문학에서 피어난 영화전' 개막, '출판의 영상화, 영상의 출판화' MOU 체결
11. 15	출판도시 활판공방 개관식
11. 29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7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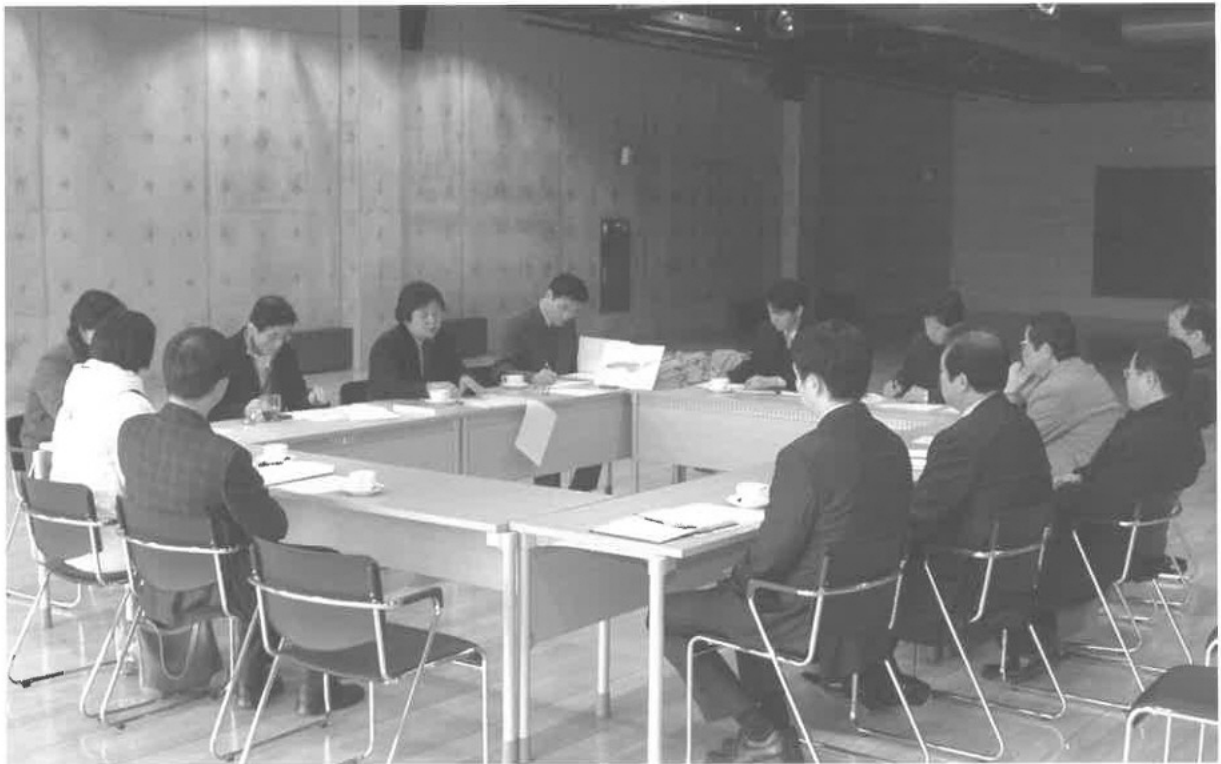


❶ 2007. 01. 30 게스트하우스 디자인 설명회 개최



❷ 2007. 02. 08 출판도시 2단계 출판업체 18개사에 대한 개별 면담 진행





③ 2007. 02. 09 출판도시 2단계 출판업체 29개사에 대한 개별 면담 진행



④ 2007. 02. 22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⑤ 2007. 03. 10 盧武鉉 대통령과 令夫人 權良淑 여사 출판도시 방문







⑥ 2007.05. 05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⑦ 2007. 05. 25 조합 임원 연찬워크숍 개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 상황 설명







⑧ 2007. 05. 26 2단계 부지 모습







9 2007. 05. 28 金文洙 경기도지사 출판도시 방문, 대중교통 노선 신설과 진출로 확보장에 대해 협의



10 2007. 07. 20 문화관광부 차관과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제출 간담회



11 2007. 09. 01 문화관광부 金鍾民 장관 출판도시 방문





12 2007.10. 02 파주출판도시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13 2007. 10. 09 22사단 방문




14 2007. 11. 15 출판도시 활판공방 개관식 행사 개최

## 인쇄 발간된 자료

---

# 제17차 정기총회 서류

2007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❶ 제17차 정기총회 서류 (2007. 02. 22)



---

##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	3
2. 2006년도 사업보고서 .....	5
3. 2006년도 결산보고서 .....	27
4. 2006년도 잉여금 처분(안) .....	63
5. 감사보고서 .....	67
6. 정관변경의 건 .....	71
7. 2007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	75
8. 2007년도 사업계획서(안) .....	79
9. 2007년도 수지예산서(안) .....	89
10.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	99
11. 2007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	103
12.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107
13. 임원 선임의 건 .....	111

## 제17차 정기총회 회순

- |                        |                          |
|------------------------|--------------------------|
| 一. 성원보고                | 一. 의안심의                  |
| 一. 개회선언                | 1. 2006년도 결산 승인의 건       |
| 一. 국민의례                | 2.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 一. 개 회 사               | - 정 회 -                  |
| 一. 축 사                 | 3. 정관 변경의 건              |
| 一.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4. 2007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
| 一. 제16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5. 2007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
| 一. 보고사항                | 6. 2007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
| 1. 2006년도 사업보고         | 7.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
| 2. 감사보고                | 8. 2007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
|                        | 9.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                        | 10. 임원 선임의 건             |
|                        | 一. 기 타                   |
|                        | 一. 폐 회                   |

초대합니다

# pajubookcity

파주출판도시,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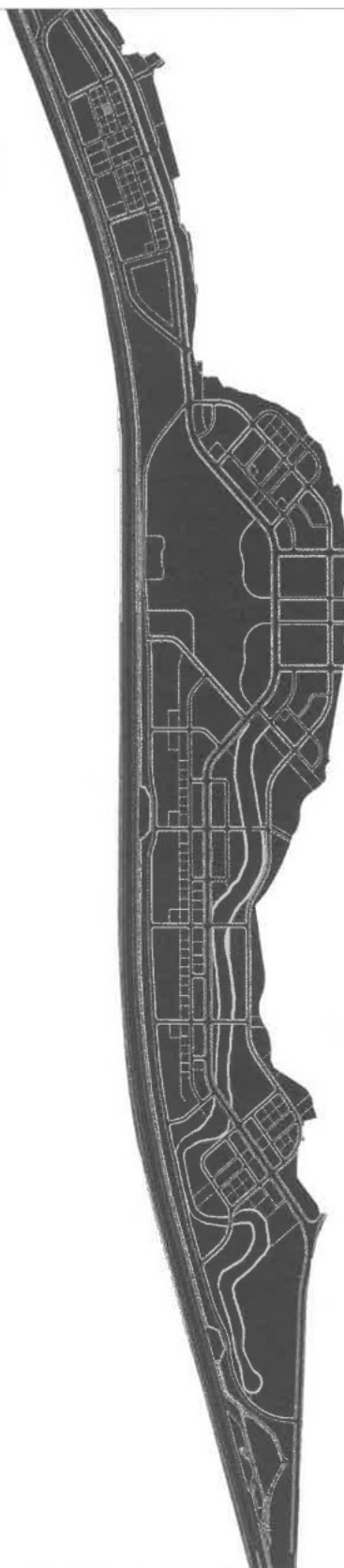
일시 2007년 10월 2일(화) 14:30-17:30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주최 국회 의정연구센터

주관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관광부



② 파주출판도시 -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년의 요약/초대합니다 (2007. 10. 02)

## 진행계획

집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인포페끄
출판도시 투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시설 투어 출판도시 셔틀버스 투어(출판사, 인쇄사, 저작권 회사, 종이회사, 유통회사,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개회식	개식(내빈 소개 및 국민의례) 인사말(국회 의정연구센터 대표) 환영사(문화관광부 장관) 축사(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장)
제1부 주제발표	기본 개요 발제 - '북시티 건설의 의미와 위상'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주제 1 - '1단계 성과 및 평가' (도시 및 건축계획 전문가) 주제 2 - '2단계 사업의 이슈와 추진 방향' (출판도시 집행부 임원)
제2부 관계관 토론	문화관광부 관계관 건설교통부 관계관 산업자원부 관계관 한국토지공사 관계관 출판인, 영화인, 건축가, 도시전문가
자유토론	주요참석인사 중 희망자 토론
정리 및 폐회	토론내용 정리 및 폐회선언
저녁식사	만찬

\* 참석여부는 9월 28일(금)까지 집행부(031-955-0060~63, 이호진, 김연숙, 노형만, 김근상)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초대의 글

과주출판도시는 1단계 사업이 계획도시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출판과 영상이 또 다른 협동사업으로 전개될 2단계 사업계획서가 이제 막 완성되어 본격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순수 민간의 의지로 이뤄내고 있는 출판도시의 1단계 사업성과를 성찰하고 2단계 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주제로 우리 국회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여 범정부적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출판도시 관리권자인 문화관광부 김종민 장관을 비롯, 국회 조일현 건설교통위원장 및 소속 의원, 국회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 및 소속 의원, 국회 이광재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및 소속의원,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 산업자원부 오영호 제1차관,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출판도시 건설에 참여했던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환경전문가, 그리고 출판도시 집행부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입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출판도시 2단계 「책과 영화의 도시」가 적기에 토지를 공급받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명품도시답게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책과 출판도시의 전체 활성화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출판도시와 관계되는 정부기관을 비롯, 관계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요한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 세미나의 목적이 십분 달성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 기왕에 완성된 1단계 출판도시를 견학하게 되는데, 출판도시에 처음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한 두번 방문하셨던 분일지라도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출판도시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 특별한 도시투어의 값지고 인상깊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19.

국회 의정연구센터 올림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



수 신 : 한국토지공사 김 제 현 사장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과동 217

발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 - 01호 2007. 1. 4.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단지사업처장  
제 목 : 출판도시 협동화사업 관련 귀 공사의 입장 설명 요청

1.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단지(제)6111-1782호(2006. 12. 8.) 관련입니다.

2. 단지 귀 공사로부터 보내온 문서에서 우리 조합의 출판도시 협동화사업에 대해 귀 공사에서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서가 단편적인 태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귀 공사와 우리 조합이 지난 20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조합의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들은 물론 임원들은 귀 공사 파주사업단장이 마치 협동화사업을 방해하는 듯한 문서들, 그것도 이면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단계 기입주자들에게서 아주 폭넓은 대상으로 보낸 것만 대해 현재까지도 분노와 질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귀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도 지방신문에 배포한 해명자료에 우리 조합이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단지로 묘사되어, 결국 그 신문에서 조합원이라는 기사를 쓰도록 원한제공을 한 것을 여러 조합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러한 상호 오해를 종식시키고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당사자인 귀 공사 파주사업단장이 직접 재간의 오해사항을 해명하고 귀 공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기는 빠르면 파주시를 좋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협동화사업 주체로서 우리 조합은 그대로 묵과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파주사업단장이 직접 해명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우편번호 2017 31 05 제 0006231  
출판 도시 217 31 05 제 0006231  
발신처 217 31 05 제 0006231  
고급/가짜 화상소장



## 이사장 취임 승낙서

본인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정관 제46조(임원의 임기)에 의거 2007년 2월 26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이사장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7년 2월 26일

승낙인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귀중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전화번호 031-955-5001 팩스번호 031-955-5004 E-mail : paju@paju-book.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 - 10호 2007. 2. 26.  
수 신 : 중소기업중앙회장  
참 조 : 경기북부지회장  
제 목 : 이기웅 이사장 취임승낙 및 임기 개시 보고

새봄을 맞아 다독 강건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2월 22일(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상권과 협조속에 2007년도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신임 이사장에 이기웅 이사장을 탄장임지로 유임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 이기웅 이사장으로부터 본 임의 취임승낙서를 제출받아 2007년 2월 26일부터 우리 조합 이사장으로서 4년 임기가 개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이기웅 이사장 취임 승낙서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전화번호 031-955-5001 팩스번호 031-955-5004 E-mail : paju@paju-book.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 - 62호 2007. 6. 27.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출판산업팀장  
제 목 :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제출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귀 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출판도시 1단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초 목표한 바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산업인 출판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출판산업 구조혁신을 위하여 불입자본과 같이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오니 산업용지를 비롯한 문화·상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공공주차장용지 등 2단계 사업지구의 개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도시 2단계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은 국내외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조합과 조합원사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판과 인쇄 및 영상산업 등 이업종(次産業)간의 협동화사업 실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정된 부지의 효율적이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시설별로 다음과 같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산업시설은 적정한 산업용지 분할 및 개발이 출판도시 성공의 기본조건이라고 판단하여 2단계 참여업체별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전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어 연당과 설사 등을 통해 소요면적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상업시설의 개발은 1단계의 경우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하여 개발하지 못하여 상가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경험을 계층상, 경영리공역별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이 개발주체가 되어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로 통합시킨 경영개발 방식을 택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상에 자랑할 「아시아 지식문화 아카이브」를 비롯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시설이 잘 융화될 이념 최첨단의 개발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거시설의 개발도 1단계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탁, 개발함으로써 도시 내 종사원들을 위한 최주거시설이 되지 못하고 고가의 고급주택으로 개발되는 문제점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2단계 주거시설의 개발도 공익적 측면에서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직접 입주업체 종사원들을 위한 최주거주택으로 개발을 주도하여 공급하려고 합니다.

- ① - 출판도시 협동화사업 관련 귀 공사의 입장 설명 요청
- ② - 이기웅 이사장 취임승낙 및 임기 개시 보고
- ③ -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22 김포시 금곡동 2리길 20-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350-9220 팩스: 031-9350-9204 E-mail: pajuco@naver.com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 - 64호

2007. 7. 10.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주 조 : 출판산업진흥

제 목 : 출판도시 내 두성산업 일부 시설 예외입주 허용 요청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부에서는 출판도시 관리권으로서 지난 2004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 내 지류유동업체 5개사에 대해 예외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당시의 계획은 출판산업의 핵심적인 원자재인 종이의 조달을 위해 몇 개의 지류유동업체만 입주를 포함시켰으나 출판도시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종이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출판의 형태가 다양한 종이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에, 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종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종이를 공급하는 두성산업이 출판도시에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출판, 편집인들에게 좋은 책을 만드는 핵심 원자재인 종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사하는 「폐이와 클러의」와 오존개념의 「전지 대결열심」 등을 갖추고 입주하였습니다. 이 두성산업은 일반 지류유동회사와는 다른 다양한 종이문화물 출판사 기록자, 편집자, 디자이너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 내 출판사를 지원하는 복시대의 중요한 지원업체입니다.

특히 두성산업의 「전지 대결열심」은 1차로 약 2,500종의 다양한 종이제품을 전지 크기의 형태로 전사, 전열하여 복사지나 종이재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종이를 확인, 선택하여 제작진행용 표출적으로 서포탈할 수 있는 개방형 전지전열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같은 두성산업의 입주에 따라 출판도시 입주출판사, 인쇄사 이 책의 원자재인 종이의 신속한 선택 및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출판가, 편집, 디자인, 인쇄, 제책, 유통 등이 한스롭게 지를 갖추어 양질의 책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판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출판문화 발전과 종이문화물 선도를기 위해 편집자들에게 종이생산을 공급하는 두성산업의 일부 시설에 대해 예외입주가 허용 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부가 연도별 금리요율 비교표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모금 투자액	10.50	10.50	10.58	10.68	11.38	10.31	9.17	7.22	7.22
조합 납부액				7.63	7.64	7.64	5.74	4.99	4.25

라) 캄프강 시설규모는 출판단지과 교차단지지구 2,043㎡에 대한 하수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므로 부가금액 3,921백만원(1단계, 2단계, 교차단지지구로 구분하여 안분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실 것.

다) 산업용지공급은 산업입과 귀 공사 용지규정에 조성된기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단지조성비 총액에서 경쟁평가에 의한 경쟁입찰로 공급된 상업용지, 주거시설 용지, 주차장용지, 문화시설용지 82,283.8㎡(한지공급면적의 9.4%) 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산업용지 면적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산업용지 조성비가 공급면적에 부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적정하게 안분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실 것.

바) 손실보상내역에서 1998년 이전 농지조성비와 실농지보상비로 저출된 17억 원의 내역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의 절대농지 대체조성비로 파주시에 납부한 내역에 관한 서류자료, 또한 손실보상비로 2,38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시된 자료의 합계금액은 3,005백만원으로 622백만원 차액 발생 이유 및 그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실 것.

사) 출판단지는 우리 조합과 사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단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선조성, 후분양의 일반적 경우와 비해 판매율보이나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귀 공사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비와 관리비율 3.33%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바, 그에 관한 귀 공사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전문가를 활용하여 귀 공사에서 제시한 내역을 검토중인 바, 우선 요청하는 상기 항목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고, 그 밖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질의서를 보내 드림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22 김포시 금곡동 2리길 20-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350-9220 팩스: 031-9350-9204 E-mail: pajuco@naver.com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 - 76호

2007. 7. 12.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서울지역본부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내역관련 자료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서울지역본부 - 9251(2007. 5. 2.)호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 - 96호로 국가산업 단지로 확정 고시(1,559,902㎡)되었고, 단지 조성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인프라시설은 단지 전체 면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3. 현재 1단계 사업을 준공한 사업에서, 단지조성사업비 109,733백만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래 7가지 항목에 대하여 투자금액 산출원칙과 보다 세밀한 내역 관련 자료 사본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993. 11. 귀 공사에서 파주군에 분점제폐전부지 1,358,608㎡(국유지 77필지, 1,306,039㎡, 사유지 62필지 92,569㎡)를 양여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공시지구에 의한 평가금액 11,426백만원 상당을 분할채 공사비 대가로 부지를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조성비가 산출시 1단계 면적 비율(56%) 해당 금액만 적용됨이 타당 할 것임. 따라서 전체 금액을 어떻게 구분하여 안분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의 사본을 주실 것.

나) 건설시설인 단지전입로, 상수도인입,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부대시설 보관 공사비 26,549백만원은 단지 전체에 필요한 공사비인 것이므로 1단계 면적비율(56%)만을 적용하여 안분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실 것.

다) 자본비용 산출시 적용된 귀 공사의 투자금액에 대한 금리와 산업용지 매입(출판단지조합)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리가 동일해야 할 것임. 따라서 두 금액이 동일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 공사 투자금액의 금리가 높게 재산된 이유와,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실 것.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22 김포시 금곡동 2리길 20-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350-9220 팩스: 031-9350-9204 E-mail: pajuco@naver.com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 - 68호

2007. 8. 20.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주택건축과장

제 목 :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은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출판도시 합동정신인 공동성 실현을 위해 도시 내 「건축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환경을 갖춘 출판문화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 공문(파주시 허가58550-922호, 도시58550-1388호, 허가58550-3788호)과 같이 귀 시에서 자체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내 모든 건축을 지침에 합당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등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박영사와 프리아파트가 사전 건축심의과정을 받지 아니하고 귀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출판도시 개발 기본 방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출판도시 전체가 갖고 있는 자율적인 건설방향에 너무도 큰 나쁜 사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독특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 출판도시가 갖고 있는 건축도시로서의 위상을 실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절차와 같이 우리 조합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의를 받은 후 건축을 허가해 주셨던 행정지도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의를 거치지 아니한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즉시 건축심의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파주시공문 사본

3부-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 ⑤ - 출판도시 내 두성산업 일부 시설 예외입주 허용 요청
- ⑥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내역관련 자료요청
- ⑦ -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귀 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부에서 검토 요청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파주출판도시) 자정(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불응과 같이 우리 조합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일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 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과 영상에 있어 여러진 복합문화산업도시인 출판도시 2단계 건설하기 위해 협동회사설치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 또한 장기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사업장 이전 및 입주에 대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단계 조성과 관련한 진행 일정 및 분상·입주 시기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전 및 입주 계획 수립 및 2단계 협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귀 부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2단계 조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의 공문(출판단지조합 제2007-76호, 2007.7.12)에 대한 귀공사의 회신은 당초 파주출판단지 조성과정에서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적인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세부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

· 이 란 ·

가) 우리 조합의 공문(출판단지조합 제2007-76호, 2007.7.12)(이하 "조합공문") 2항에 대한 귀공사의 답변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비는 1, 2단계별 안 분방식이 아닌 1단계 조성공사에 실제로 편입된 면적 814m(246천평)에 대한 토지비로 산출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 단계에 편입된 면적과 토지대금, 각 단계별로 안분된 내역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의 사본을 주실 것.

나) 조합공문 나항에 대한 귀공사의 답변은 "간선시설 공사비 26,549백만원은 1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에 포함된 원가이며, 1단계의 간선시설 공사비를 2단계에 안분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1997.3.31)로 파주시 교하면 문벌리, 산남리, 서계리, 신촌리 일원 1,559,902.9m<sup>2</sup>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우선 1단계사업으로 874,088.9m<sup>2</sup>를 추진 한 것으로 상수도인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전입로시설 등 간선시설규모는 전체규모를 대상으로 계획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단계별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따라서 간선시설 공사비 26,549백만원의 산출근거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의 사본을 주실 것.

다) 조합공문 드항에 대한 귀공사의 답변은 "조성비가 산출에 적용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율과 타인자본비용율로 구성되어 각각의 비용율은 일정한 산식에 의

하여 산출되므로 조합의 매매대금 납부금리라는 전혀무관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귀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기본금리 적용은 시세금리 적용이 타당한 것임. 또한 자기자본비용율과 타인자본비용율을 계산하는 산출근거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의 사본을 주실 것.

라) 조합공문 리항에 대한 귀공사의 답변은 "평장장 시설투자금액 3,921백만원 1단계에서 부담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사업 착수 시기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교하택지지구와 비분하여 부담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평장장 관련 총공사비 규모와 1단계 및 교하택지지구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의 사본을 주실 것.

마) 조합공문 사항에 대한 귀공사의 답변은 "판매비화관리비는 토지공사 전체 발생액의 비율을 간접비 배부방식에 의하여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비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고 하는데 파주출판단지는 우리 조합과 귀공사간에 사전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단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선조성 후분양의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판매홍보비나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출판단지의 경우 일반적인 간접비 배부방식에 달리 설정한 계층 확인하여 차등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공사의 의견을 주실 것.

3. 우선 요청하는 상기 항목에 대한 답覆할 만한 근거자료를 기일내에 보내 주시고, 이 외에도 원가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파 추가 결의서를 보내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출판단지조합 제2007-76호, 2007.7.12) 공문 사본 1부.  
2. 서울지역본부-25968(2007.09.17)공문 사본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8 -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 제출
- 9 - 출판도시 2단계 조성과 관련한 자료 요청
- 10 - 서울지역본부-25968(2007.09.17) 공문 관련 회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3-021 경기도 파주시 고매로 248-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50-0001 팩스) 031-950-1004 E-mail: pajuco@pajuco.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7-110호

2007. 11. 27.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참 조 : 고재지원팀장

제 목 :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내역 독촉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출판단지조합 제2007-104호(2007. 10. 18.) 및 서울지역본부-31384(2007. 10. 31.)공문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는 우리 조합에서 요청한 자료와 관련,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중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 제시한 기일까지 회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 그러나 그 제출기일이 분명확하여 독촉하오니, 2007년 12월 7일(금)까지 정확한 투자금액 및 산출원액, 관련된 세부자료 사본 등 우리 조합에서 요청했던 납득할 만한 자료를 기일 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우리 조합에서 정당한 요청하는 자료만을 상기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귀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사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 문화관광부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협동화사업계획 관련 자료 요청

1. 출판단지조합 제2007-62호(2007.6.27)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이 제출한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니 아래 양식에 따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자료
  - 귀 조합이 파주출판단지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안내하거나 조합 가입을 안내한 홍보물 또는 문서 배포처 현황

### 홍보물 및 안내 문서 배포 현황

계	국	내	용	형	식	배포일자	배포방법	배포처	배포대상	세부배포처 명단	비	고
000	000	문	서	00.00.00	수	권	00월회	인쇄사	문서실결수명	회원사 명단	문서사본발부	
000	000	홍	보	00.00.00	적	법수령	00출판사	출판사	-	홍보물사본발부		
000	000	선	명	00.00.00	선	명회	선명회	장소	영상업체	장식사 명단	선명회 개회	자료 발부

- 향후 2단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귀 조합이 협동화사업계획서(안)을 소개하거나 조합 가입을 안내할 추가 계획(안)
- 자료 제출 일자 : 2007.8.17(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



주요번호 2007.08.09  
발주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발주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요번호 2007.08.09  
발주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요번호 2007.08.09  
발주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는다"

## 경기도



대한민국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장 이기웅 귀하  
(경유)

제목 사업조합 정관변경 인가 통보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조합 정관변경 인가사항을 통보하오니 관련법 등 재반규정 준수에 관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합 영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나. 대 표 자 : 이 기 웅  
다. 소 제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번지  
라. 변경내용 : 첫 불 임

붙임 정관변경 인가내용(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요번호 2007.06.12  
발주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요번호 2007.06.12  
발주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고객만족, 세계인의 경기도를 위한 약속입니다"

##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정 관 변 경 인 가 내 용

### □ 정관변경 근거 및 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승인신청 등) 제2항 및 제4항
-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 '07.04.11)'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중기청 고시 제2007-1호)'에 부합하도록 총회에서 의결('07.02.22)하고 정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정관변경 신청조합 현황

- 명 칭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대 표 자 : 이 기 웅 (400930-1.....)
- 소 제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번지

### □ 정관변경 내용

#### 〈주요내용〉

- 산업단지내 기업발전과 안정적인 조합원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자격 완화 ⇒ 정관 자체개정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2조(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중기청 고시 제2007-1호)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  
[제15조(임의탈퇴), 제33조(총회의 특별결의), 제45조(임원의 임기)]
- ◆ 다만 조합원 의무조합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정관례에 불부합하여 조합정관 인가사항에서 제외

□ 개정 세부내용

현행	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본 조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출판물 유통의 현대화와 출판문화 창출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판문화 산업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함은 출판영상, 문화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합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거주적인 경제활동을 복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0동 101호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할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할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출판업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출판영상 및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90일전에 예고하고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 2 -

현행	개정내용
제4장 회의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3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33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	제5장 임원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다만, 정관 협동화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건축, 용지배정, 부담금 착출 등에 대한 조합원 의무조항 신설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78조, 제79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제에 따라 정당한 절차 불복합한 조합원 의무규제사항으로 금번 조합정관 인가사항에서 제외

- 3 -

\*세계 최고 도시 서비스 기업\*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조성사업비 내역공개[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와 귀 조합간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27521호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성사업비 내역공개 1부. 문.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김재 (인)

김재 (인)

2007. 5. 07

시행 서울지역본부-9251 ( 2007.06.02. )  
무 136-65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91(대치3동 1009-1) / http://www.ikic.co.kr/  
팩스 02-550-7079 / 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협동조합 이사장  
제 목 : 산업용지(문발리 520-8)내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 석당영업에 대한 제 시정 요구' 경인파주-41호(2006.8.25)와 관련입니다.

3. 귀 조합에서 도서출판 들녘 분양용지(문발리 520-8)내 불법 운영되고 있던 식당을 이전조치하여 파주출판단지와의 효율적인 관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4. 귀 조합이 도서출판 들녘 분양용지(문발리 520-8)내 무단 설치 및 식당으로 사용하여 온 가설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 이라한다) 제38조에 의거 우리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된 건축물로, 산업법 위반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은 동 가설건축물을 '07.3.31까지 철거 등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민 (인)

김민 (인)

2007. 3. 14

시행 경인파주-105 ( 2007.02.14. ) 접수 ( )  
무(4136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0-3 / www.kicax.or.kr  
전화 031-955-0006 /전송 031-955-0034 / kinghoro@cluster.net / 공계

- ③ - 조성사업비 내역공개[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④ - 산업용지(문발리 520-8)내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경유)  
참 조 :  
제 목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파주출판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성원가 내역에 대한 귀 조합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	답변내용
가)항 파주출판단지내 우리공사에서 국가기초부터 양어받은 토지 면적과 보지대금 및 각 단계별 안본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공사에서 자유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가기초부터 양어받은 토지는 총 1,193천㎡이며, 실제 편입된 면적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li> </ul>
나)항 상수도 인입,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전입로 신설 등 간접시설은 단계별 안본하는 것이 다량	<p>□ 파주출판단지 1단계 조성원가에 산정된 간접시설비용은 실제 1단계에 투입된 해당비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도로 개통중인 전입도로는 1단계 사업이며, 2단계에서는 제2통속전입도로, 서측전입도로 및 북측 전입도로를 개설예정임.</li> <li>• 상수도 인입 1단계 상수인입을 위해 집행된 금액으로, 2단계 상수도 분담금은 별도 집행 예정임.</li> <li>•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하수발생량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2단계 하수도 분담금은 별도 집행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대시설 1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군부대시설 설치 비용으로, 2단계 사업은 별도 군사협의 및 군부대시설 설치 예정임.</li> </ul>
다)항 자기자본비용율과 타인자본비용율을 계산하는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비용율은 각 해당년도별 직전년 12월 현재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금리에 자기자본 구성비율을 곱하여, 타인자본비용율은 각 해당년도별 직전년의 우리공사 차입자금 조달금리에 타인자본구성비율을 곱하여 각각 산출됨.</li> </ul>
라)항 필프장 총공사비 규모와 1단계 및 교차지구 부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프장공사에 집행된 비용은 파주출판단지(1단계) 사업을 위하여 집행된 비용이며,</li> <li>• 2단계에서는 신설예정인 필프장공사비를 교차지구와 별도 집행 예정으로, 이 경우 1단계에 그 혜택이 돌아감.</li> </ul>
마)항 판매비와 관리비의 산출시 일관적 간접비 배부방식과 달리 실질관계에 따른 차등 적용이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비와 관리비는 '96년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액을 '90년부터 사업과수직전년도( '96년)까지의 사업비 집행액 산출액규치로 하는 백분율로 산출됨. 파주출판단지 조성과 관련한 판매와 관리활동부담을 추측하여 전기하는 것이 아닌 공사전체 발생액을 사업지구별로 배분하는 원가배분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함.</li> </ul>

- 끝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과장 조재호 부장 조재호 조재호 조재호 조재호 조재호

시행 서울지역본부-30954 ( 2007. 12. 26. )  
우 135-85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91(강서동 1009-1) / http://www.kigc.co.kr/  
전화 02-550-7134 전수 02-550-7079 / 공계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조성원가 내역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제1단계 조성사업의 조성원가 내역요청(출판단지조합 제2007-104호 및 110호)과 관련하여 내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2007년 12월 21일까지 귀 조합에 알려드릴 예정이며,
3. 귀 조합과 우리공사가 "정보부동산개발정책연구소" 소속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귀 조합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요청내용에 대한 자료 정보는 우리 공사가 공개 할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과장 조재호 부장 조재호 조재호 조재호 조재호 조재호

시행 서울지역본부-30954 ( 2007. 12. 26. )  
우 135-85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91(강서동 1009-1) / http://www.kigc.co.kr/  
전화 02-550-7134 전수 02-550-7079 / 공계



## 파주시

GoG PAJU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행 촉구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민생유역환경영향에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생활폐기물 포함)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유기물처리시설)을 2007년 1월부터 가동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도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파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수거)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단지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행은 물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획서(설치주제, 설치신고서, 가동 시기 등)를 파주시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2007.11.30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현재 파주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은 2006년 1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야 수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중 유의하시어 사전에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파주시



수신자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시사업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지방환경청서기보 11/16 18:20 자연환경관리팀 11/16 18:45 조재호 부장  
참조자 조재호 부장 11/16 18:45 조재호 부장

시행 청소과-18157 ( 2007. 11. 16. ) 전수 (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청(청사3층) / http://www.paju.go.kr  
전화 031)940-4472 /전수 031)940-4739 / envyrn@paju.go.kr / 비공개(5)

- 5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6 - 조성원가 내역요청에 대한 회신
- 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행 촉구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감유)  
참 조 :  
제 목 : 자료요청관련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출판단지조합 제2007-104(07. 10.18)호로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현재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의중으로 귀 조합이 제시한 일정까지 회신하여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견이 해합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문자 2007. 10. 18. 10:31

서울 서울지역본부-01384 ( 2007. 10. 31. )  
우 135-65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91(대치3동 1009-1) / http://www.ikic.co.kr/  
전화 02-550-7134 전후 02-550-7079 / 공계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감유)  
참 조 :  
제 목 :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출판단지의 조성사업비와 관련한 귀 조합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	답변내용
○ 국가로부터 토지공사가 양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출판단지 1단계에 편입되는 면적비에 따라 토지비를 안분하여 조성원가 산출에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 우리공사가 자유로 건설에 따른 문벌제 육조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 중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1단계 조성에 편입된 면적은 814천㎡(246천평)입니다. 따라서, 출판단지의 1단계 조성과 관련한 총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비는 1, 2단계별 양분방식이 아닌 위와 같이 1단계 조성공사에 실제로 편입된 면적 814천㎡(246천평)에 대한 토지비로 산출되었습니다.
○ 간선시설비는 출판단지 전 세사업지구에 대한 비용일 것으로 1단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하였는지의 여부?	○ 간선시설 공사비 26,549백만원원은 출판단지 1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등에 근거하여 투입된 비용으로 1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에 포함된 원가입니다. 아울러 2단계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3월 30일 지구변경 지정되었고 1단계 실시계획 승인(98.01.08)후 10여년이 경과하여 현재 실시계획이 진행중 이므로 1단계의 간선시설 공사비를 2단계에 안분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의내용	답변내용
○ 조성원가 산출시 적용된 자본비용의 산출시 적용된 토지공사 투자금의 급리와 출판단지조합이 납부한 급리에 대한 차이의 여부?	○ 조성원가 산출에 적용된 우리공사의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비용은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며, 이는 귀 조합의 매매대금 납부금리(선납할인율 등)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펌프장 시설규모는 출판단지, 교하택지지구에 대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비 3,921백만원을 출판 1, 2 단계 및 교하택지지구로 구분하여 안분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하였는지의 여부?	○ 펌프장 관련비용 일부는 출판1단계에서 3,921백만원 부담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사업 착수 시기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교하지구와 배분하여 부담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중철추진중에 있는 펌프장 관련 비용은 향후 출판2단계 및 교하지구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출판1단계 입주자의 경우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총 조성비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지 않는 토지(상업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의 조성비용을 제외한 총 조성비만을 신입단지 면적으로 나누어 조성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조성원가는 사업준공 시점에 모든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매매대금을 일시에 회수한다고 가정할 때, 투입금액과 회수금액이 일치하는 관리원가로 기 통보하여 드린바와 같이 토지의 용도별로 조성원가를 달리 산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출판 1단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택지사업지구 및 산업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기 제공한 관계자료 중 손실보상비의 산출내역과 농지조성비로 파주시에 납부한 내역?	○ 손실보상 23억원 내역은 기 제공한 관계자료 중 합계산출 내역에서 받은 바와 같이 ①지장물보상비 + ②간접보상비 + ③관리보상비 + ④보상비 - ⑤용지타계정대체액으로 ⑤번 항목은 가산항목이 아닌 차감항목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타계정대체액 : 2001, 2002년 중도

문의내용	답변내용
○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편입토지 등의 사유로 1단계 조성원가 산출에서 차감된 비용입니다. 아울러, 기 제공한 관계자료 중 합계산출 내역 ④보상비의 농지조성비 내역과 관련한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1998. 09. 21 : ₩1,052,594,700 - 1998. 09. 25 : ₩2,535,620 ○ 판매비와 관리비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의 성격으로 해당비용의 우리공사 전체 발생액의 비율을 간접비 배분방식에 의하여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비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문자 2007. 09. 17. 10:31

서울 서울지역본부-25966 ( 2007. 09. 17. )  
우 135-65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91(대치3동 1009-1) / http://www.ikic.co.kr/  
전화 02-550-7134 전후 02-550-7134 / bottle@ikic.co.kr / 공계

8 - 자료요청관련 회신

9 -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파주시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 목 파주출판도시 보행다리 설치 협조 요청 민원 지연 통보

1. 민원 제91691(2007.9.3)초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민원제출한 "파주출판도시 보행다리 설치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 조항으로 처리기한을 9.1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기간내 결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원 처리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 안전관리과 방재시설담당자 조정익 (tel. 031-940-86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

파주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합조자

시행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07년도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통보

1. 경기도는 최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하여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고, 이에 업체당 과당경쟁으로 하반기 제조업 분야의 채광경기가 하락하고, 추후 등의 자금 상수기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 단기유동자금 조달 및 금융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년도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 통보하오니 중소기업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7년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1부. 글.

경기도



수신자 경기도청 중소기업협동조합 19개소,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6개소, 창업보육센터 4개소, 벤처기업집적시설 3개소, 경기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 파주시지점

\*파주시청주사무소 관동권 지방공공사무관 정성원 지점지점

합조자

시행 산업자원과-4328 ( 2007.09.03.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고려면적, 체계적의 경기도를 위한 약속입니다"

## 파주시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 목 파주출판도시 보행다리 설치 협조 요청 민원 지연 통보

1. 민원 제91691(2007.9.3)초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민원제출한 "파주출판도시 보행다리 설치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 조항으로 처리기한을 9.1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기간내 결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원 처리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 안전관리과 방재시설담당자 조정익 (tel. 031-940-86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

파주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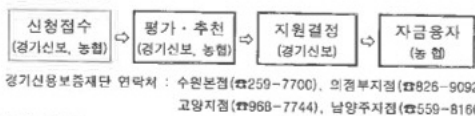
합조자

시행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파주시 안전관리과-9466 ( 2007.09.05. ) 접수

## □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 자금규모 : 5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단기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신용보증서 담보 4.1%, 부동산(일반) 담보 4.4%
- 운영기간 : 2007. 9. 1 ~ 2008. 3. 30

## ※ 자금 지원절차



##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추식 등 자금 성수기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 기업
  - 내수침체, 원자재 폭등, 환율급락,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
  - 기업 경영상 시장개척, 제품개발 등 특별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
  - 수출승인서(L/C, Offer Sheet포함)를 소지한 기업
- ※ 해당기업에서 자금 신청 시 관련자료를 제출

## &lt;지원 제외대상&gt;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지원금액이 15억원을 초과 하는 기업

- ⑩ - 파주출판도시 보행다리 설치 협조 요청 민원 회신
- ⑪ - 파주출판도시 보행다리 설치 협조 요청 민원 지연 통보
- ⑫ - 2007년도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통보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

## “엄마·아빠! 파주 어린이 책잔치 가요”

출판도시문화재단, 내달 4일~13일 행사

파주출판도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은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온 몸으로 만나는 어린이 책 세상’이라는 테마로 ‘2007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를 연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 행사에는 전시회·공연·강연 그리고 출판사에서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특히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는 프로

그램과 문화유산인 직지(直指) 인쇄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고인쇄체험전 등 어린이들이 책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사들로 풍성하다.

전시로는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소년’ 이후 어린이 책의 인쇄 문화 100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각 이미지로 살펴본 우리나라 어린이 책의 역사’와 프랑스 출신 그래픽 아티스트인 루이즈 마리 쿨롱과 일본

의 가즈미 고마가타의 작품으로 재연 출한 그림책 놀이방 등이 마련됐다.

잔치 기간동안 열리는 공연은 재즈로 편곡한 동요를 감상할 수 있는 ‘세바와 함께하는 재즈키즈’, 뮤지컬 ‘황금 동을 누는 아이’ 어린이 3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회 등이다.

그 밖에도 어린이들이 직접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린이 책벼룩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도 행사기간 내내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pajubfc.org)를 참고하면 된다. (031)955-0063

/강동효기자

파주출판도시 1단계 건설 마무리 2단계 착수

## ‘이젠 영상까지 더한 첨단문화도시로’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전의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되고 근처 20만7천여평 터에 영화사와 출판사를 들이는 새로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4일 출판도시의 ‘본부’격인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됐고, 입주 예정인 출판관련 업체들이 5월 안으로 입주를 마칠 예정이어서 1단계 출판도시 건설은 거의 마무리된다. 이와 더불어 2단계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2단계 계획에 따라 싸이더스 애프터엔터테인먼트, 엠케이퍼펙트, 김기덕필름, 청어람 등 국내 주요 영화사와 필름현상·편집업체 등 10개 영화 관련업체들이 파주에 들어선다. 57개 출판사, 21개 인쇄사도 함께 자리잡는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이들 업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는 2단계 도시 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에 착수했다.

파주출판도시 기획을 주도한 이기웅 출판도시재단 이사장(영화당 대표)은 “2단계 사업을 통해 출판과 영상이 만나서



### 영화관련 19개사·출판 인쇄 78개사 입주 계획

로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첨단문화산업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단계 출판도시의 성공모델을 계승하고 1단계 도시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출판도시 2단계가 완성되면 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신남리·서대리·신촌리 일대 47만1871평을 아우르게 된다. 출판 및 영상산업체 외에도 ‘문화자족도시’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

설과 출판 및 영상 관련 교육기관 등도 포함한다. 이로써 단순한 산업클러스터가 아닌 총체적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출판도시의 이상에 더 가까워진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평양의 가운데에 있다는 특성을 살려 통일 이후에도 한국의 상징적인 문화도시로 자리잡겠다는 꿈도 품고 있다.

파주출판도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18년이 걸렸다. 1989년 이 이사장을 비롯한 출판인들이 모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동을 걸었다. 도시의 기본 구상부터 부지 선정, 관련 부처 인허가 작업까지 출판인들이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더디었다. 본디 부지 예정지로 정해졌던 경기도 일산의 땅값이 뛰어올라 1994년에 파주로 옮겨오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도시의 기본 개념은 책을 기회해 찍어낸 뒤 유통하는 일까지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손을 보태는 업체를 모두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협업작업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였다. 이에 더해 도시 건설에 건축가들이 참여하면서 생태·문화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도시건축 단계에서부터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샛강과 주변 생태계의 조화를 고려했고, 일반인에게 열린 각종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사진 출판도시재단 제공

① ‘엄마·아빠! 파주 어린이 책잔치 가요’ - 서울경제, 2007. 04. 25

② ‘이젠 영상까지 더한 첨단문화도시로’ - 한겨레, 2007. 05. 08

## 파주어린이책잔치

### ‘잔치’보다는 ‘장터’

#### “내실 키워야” 지적 일어

올해 다섯번째를 맞은 파주어린이책잔치(잔치)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잔치는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로, 2003년부터 도시를 알리고 어린이책 관계자들의 역할을 높인다는 취지로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열어왔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손님들은 행사가 다양한 어린이책을 알리고 부모와 어린이들이 즐길 ‘잔치’를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두 아이를 데리고 책잔치를 방문한 8아무개씨는 “해마다 책잔치에 오는데 첫째보다 점점 볼 게 없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며 “1년에 한번 정성껏 마련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출판사들이 책을 싸게 파는 장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중견출판사 사장은 “지난해 행사 때 비용을 많이 들여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 출판사들 가운데 몇몇은 이번 행사 때는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행사 때 볼 게 없다며 다음에 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어린이책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잔치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미화 출판평론가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해 국제도서전에서 상을 받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어린이도서전 등을 통해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책에 관심을 갖는 문화를 형성하고, 책도 널리 알리는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잔치 집행위원장 이호백(출판사 재미마주 대표)씨는 “올해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날 다녀간 사람들이 2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요란한 행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린이책의 시각 이미지 변화 등을 짚어보는 올해 테마전시처럼 꼭 필요한 전시를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잔치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가가와 히로시



황석영



김훈



린덴 린



제이클레이턴 웨스트

##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내일 개막

# “한국서적 서구서 주목받지 못한 건 전문가 대상 온오프 홍보 미흡한 탓”

“아시아 출판은 미국과 유럽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일방통행에 끌려가고 있다. 범아시아 출판 네트워크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가가와 히로시 일본양서판매 대표)

영미 중심의 세계 출판계에서 아시아 출판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31일~11월 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리는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2007’에서 세계 출판 전문가와 작가들이 아시아 출판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한다.

작가 황석영 김훈 씨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출판인들이 참석한다. 토론 주제는 ‘아시아 문학의 매력과 잠재력’ ‘아시아 역사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통성’ ‘아시아 출판의 발전 방향’ 등이다.

아시아 출판인들은 발제문에서 아시아 출판의 부실한 네트워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필리핀 ‘안발’ 출판사의 카리나 볼라스코 부사장은 “1982~2003년 필리핀 서적이 다른 아시아 언어로 번역된 것은 고작 12권”이라면서 “아시아 출판의 활발한 교류 없이 영미 출판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벗어나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린덴 린 타이베이 도서전 재단 회장도 유사

한 지적을 했다. 그는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출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도 교류는 미미한 편”이라면서 “아시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도서전을 정례화해 출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서구 참가자들은 한국 서적을 비롯한 아시아 출판이 서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이스터브리지 출판사의 제이 클레이턴 웨스트 이사는 “한국 서적은 전공 교수나 학생을 빼면 소개가 잘 안 된다”면서 “미국의 출판사나 판매업체, 서평담당자 등에게 배포해 성공을 거둔 ‘일본 책 소식(Japanese Book News)’ 같은 온오프라인 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판포럼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기웅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21세기 들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출판문화의 자장(磁場)을 비아시아권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포럼과 아울러 11월 2~4일 파주출판단지에서는 ‘파주북시티 책잔치 2007’도 열린다. 출판사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강연 및 퍼포먼스와 베틀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031-955-0055, 0063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2008년

### 출판도시의 국제화 및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선포

2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는 金榮俊 건축코디네이터와 출판도시 2단계 사업지구 설계지침 작성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관계자 500여 명을 출판도시로 초대하여 1단계 성과 및 2단계 협동화 사업에 대해 널리 알렸다. 주한 미국대사, 주한 일본대사 등 8개국 20여 명의 외교사절단이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출판도시를 국제도시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 柳仁村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1단계 실적과 2단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단계 협동화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당부하였다. 9월에는 출판도시를 주제로 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초대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은 대외적으로 출판도시를 두루 알리면서도 2단계 핵심 문화시설인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와 '영혼의 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담론을 거친 한 해였다.



# 2008년

## 2008년 주요행사

02. 21	제18차 정기총회
03. 13	조합, 재단, 입주기업협의회 이사 등 출판도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04. 05	김문수 경기도지사, 출판도시 방문
05. 03	2008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05. 13	이기웅 이사장, IPA 서울총회에서 발표
05. 14	IPA 서울총회 참석자, 출판도시 방문
06. 05	책과 영상의 2단계 협동화사업, 어디까지 왔는가' 출판도시 2단계 워크숍
07. 17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출판도시 방문
09. 11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참관 및 해외 문화건축답사
10. 07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설계지침 설명회
11. 19	2008 출판도시 국제출판포럼
11. 27	제4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12. 22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설명회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



❶ 2008. 03. 07 이원재 위원과 만남





② 2008. 03. 13 출판도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③ 2008. 05. 03 어린이책잔치 개막식



④ 2008. 05. 14 IPA 서울총회 참석자들 출판도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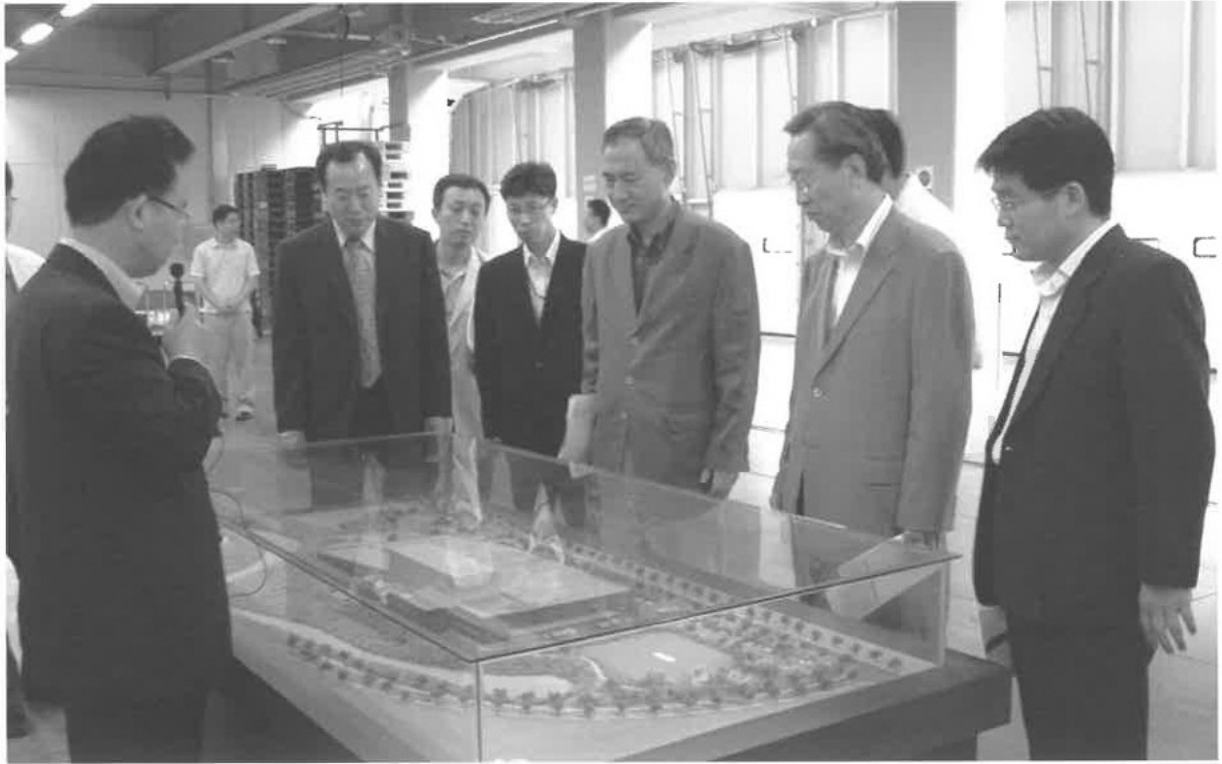


⑤ 2008. 06. 04 2단계 현장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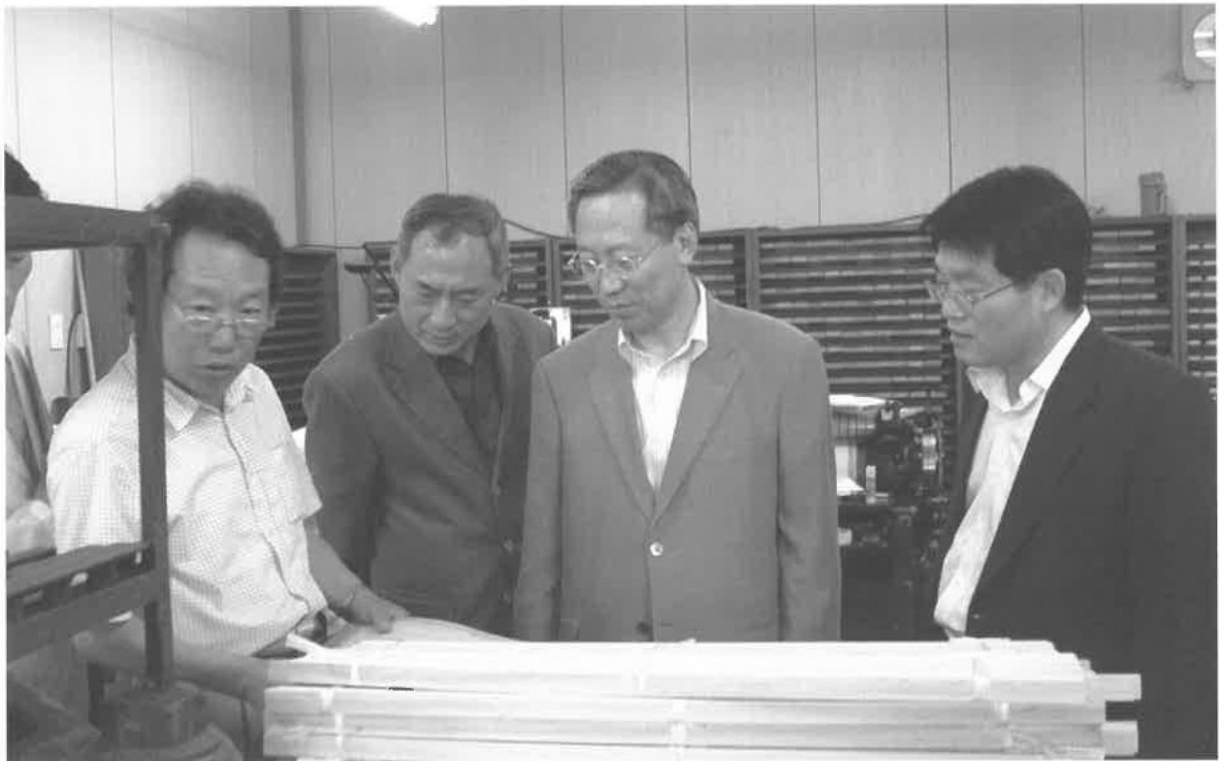


⑥ 2008. 07. 03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면담





⑦ 2008. 07. 12 외교통상부 박준우 기획실장, 배재현 문화외교국장 등 5명 출판도시 방문







● 2008. 07. 17 문화체육관광부 柳仁村 장관 출판도시 방문





9 2008. 10. 07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설계지침 설명회 개최




10 2008. 11. 27 제4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개최

## 인쇄 발간된 자료

---

# 제18차 정기총회 서류

2008년 2월 21일(목) 오후 2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① 제18차 정기총회 서류 (2008. 02. 21)

## 제18차 정기총회 회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축 사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제17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보고사항

1. 2007년도 사업보고

2. 감사보고

—. 의안심의

1. 2007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잉여금(결손) 처분(안) 승인의 건

3. 2008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4. 2008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5. 2008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6.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7. 2008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8.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기타

—. 폐회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

출판도시에 입주하신 이리문, 그리고 저를 이끄러주시는 아문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일찍이 본 문도 계시고, 함으로 오랜만에 만난 드림계 되는 문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분들을 아울러 이 편지를 통해 문도 드림에서, 요즈음의 세 소회를 작은 글을 올리자 합니다. 저의 소회가 좋 기 웃음이, 몇 번에 나누어 보내드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의 이해를 위해 앞으로 글을 쓸분간 웃어 놓고 그 다음 글들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즈음도 저는 하루 종일 '출판도시'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자' 하는 다짐도 여러번 해 보지만, 이런 제 운명처럼, 저의 행복이자 행복처럼 돼 버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의 니그라우신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출판도시의 추진 책임자로 이 일을 맡은 것이 1989년이었습니다. 초창기 화절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1995년 무렵, 저는 제가 강행하던 열화당의 핵심적인 일로부터 적당히 손을 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가까운 지인들 포함해 여러분에서 비쳐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해도 그렇듯 손때는 일이 어떨다는 것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시면 잘 아신테이지요. 출판도시, 이 일은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성정으로 봉사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정말 정말 크게 깨달았던 저의 심정을 아시는 분은 아마 기어 있을 겁니다. 저의 결심은 단호했으며, 책을 만드는 양상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온갖 부조리한 환경에 '전진포고'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출판도시의 목표는 이렇듯 제겐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열화당 원은 나의 사랑했던 간부 직인 '기영내'에게 맡기고 출판도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 열화당 일의 이리문 고메이다 눈물흘리고 했던 기영내에 대한 애초로운 기억을 자갈도 아닌 가슴으로 주워하곤 합니다.

그 무렵 만만 분이 안중근 넘어졌습니다. 그 문은 제게 늘 말씀하십니다. '책 만드는데 부름받은 자여,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출판도시 시련의 기간 동안 저는 안중근이라고 하는 신념으로부터 온갖 용기와 격려를 배우며, 또한 고마하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극복해 나갑니다. 신배의 남성과 행동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제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의 유종가족인 '안중근 선생,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만 번의 김길배 출판했습니다. 그 책을 출판한 일은 제 생애에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출판도시는 각급의 모습으로 이천년대를 접 년이나 보낼 세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좌우를 돌아볼 때 두고 있습니다.

업무의 분할과정에서 이 도시를 경영하거나 관리하거나 한살을 향해 추진하는 업무 분장을 받은 기구들

이 분화하면서, 제단별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단법인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파주출판문화평생보신업 단지사업협동조합 서 단체가 정립(鼎立)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이 도시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서서히 걸 떼기 된 것을 압니다. 나이와 몸이 그것을 방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저의 이십년 동안의 노력이 이제 저해되고 깊어지있게 계속가능한 상태로 자리잡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 남아 있는 이 도시에의 비관이나 쓰잘데 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습니다.

요즈음 항간에 갈등이 있는 듯한 모습에 속옷 오해를 불러일으킬 몸짓을 함부로 만나면, 어떤 예까지 못한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대담히 표출한 듯한 일과, 그에 연관된 숨어있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제 나름의 생각과 소리로 정확히 알려드리는 내용도 이 편지글에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찮은 원로 시작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하고 존경하는 후배 출판인 몇 분에게는 안쓰러운 심정으로 그저 마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 탓인지, 중요한 일이 아니면 찾아다니지 않고, 정치인분처럼 사교한단가가 어울려 사소한 일까지도 험수밭으로 논화하는 기도가 정성 짝이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이 오해를 가져오는 험수밭도 짐작이 가지만. 그분들과 저 사이에 정성의 기리는 결단로 없습니다. 오해는 곧 풀릴 것입니다. 암 속으로 격언아 드릴 만류 그런 가까운 지리가 아닌 시간도 이내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뵈겠습니다.

2008. 7. 18

열화당 이기웅 드림

본문

출판도시는 기록(記錄)하면서 지킵니다.

지난 일사 먼저글에 이어 보겠습니다.

1989년 11월 17일, 출판도시를 일산(一山) 신도시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할 때입니다. 지금 고양시의 국회의원이었다지만, 당시 고양군수였던 백성문(白成文)씨를 고 박을열 회장, 윤형두 회장 두 분과 함께 협의차 방문했을 때입니다. 우리를 보시자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던 삼삼대 젊은 행정직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 도시는 매 순간 매 고마마다 기록이 필요했고, 저- 전지알아만 기록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직원들 보 하여금 이를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일 역시 비한 일이었지만,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여, 부족하지만, 어느만큼 기록할 것은 기록해 놓고, 자료를 분류 정리하는 작업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정부는 이런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나요? 함께 진저하게 한민 생각해 봅니다.

출판도시 정보도서관의 큰 열부 중의 하나가 이 자료와 기록의 아카이브입니다. 어느 누구도 출판도시에 관한 것을 검색하거나 자료를 얻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가가 요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생하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계획과 실천은 어느 한 사정에서 끝나지 게 아니라 살아있어 쓰러져 쓰러질 줄고 일어나므로, 거대한 그리고 치무한 전쟁과도 같다고 생각하면서 간담해야 합니다.

앞의 기록은 뒤에 새롭게 해내야 할 일의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시바가 벌어졌을 때 절실적인 줄 연이 되곤 합니다. 요즈음 항간에 제가 공감을 함부로 피격원리에 발자 않게 처리했다(는)가, 본서가 아닌 방법으로 마치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입주자의 귀익을 가보낼 것이란 소문을 퍼뜨린다(는)가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이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하는 일은 자립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인력(人力)이 필요합니다. 서진 역시 그러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관리자의 끊임없는 관찰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판도시의 자료 아카이브와 함께 출판도시 정보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전문도시의 열화사업도 시작되었고, 각 출판사들이 이 도시에 와서 생산한 도서들의 열화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여러 이할 가운데 이 도시에 사설이아 별도 초기부터 필요했던 것이지요.

공동성의 실현은 구호에 그치지(는) 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공동의 문제를 내놓으면 모두가 뒷걸음

걸거나 중무늬를 합니다. 어떤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했습니다. 저해되고 용가하고,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실현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기록 가운데에는 편지를 전지(轉知) 지가는 일 역시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하겠지요.

출판도시에 와서 일하는 출판사, 인쇄사들에게 도서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까요? 이 도시의 규모라면 문헌·기록·자료의 아카이빙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 도시의 전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공동우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스는 앞으로 키워 나가야 할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로 확대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이 문제는 7월 16일, 출판도시를 방문했던 귀문수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유화선 파주시장님과 함께 진저하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7월 1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그리고 유화선 파주시장님과 함께 출판도시 이따금 현황을 둘러보면서 진저하게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실이 이루어 오날의 출판도시에 유익할 뿐 아니라 미래 백년대계를 향한 큰 시일로 자리잡을 것을 확신합니다.

뜻있는 곳에 깊은 반프시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하는 바가 명분있는 일임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열심 기록하도록 했던 업무인지(BIB), 모든 문서질, 행사기록물, 보도기사, 영상기록물, 사진기록물, 출판도시 자료집, 파주 책마을 이야기, 비와 바람의 도시일지, 해외답사 자료집 등, 출판도시는 기록하면서 지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뵈겠습니다.

2008. 7. 21.

열화당 이기웅 드림

① - 이기웅 이사장 서신 1 (2008. 07. 18)

② - 이기웅 이사장 서신 1 (2008. 07. 2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을 구상하던 시점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작습니다.

1997년 6월 22일, 건축가 김원(金元) 선생과 몇몇 출판인들과 나는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판도시의 핵심시설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일본 동경에 있는 문화시설, 특히 컨벤션 기능을 갖춘 게스트하우스, 문화실비품 잘 갖춘 연수시설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려고 함께 동경하러 갔었습니다. 아키히 조장을 비롯해 두어 중 잡지 읽는 카페에서, 저녁 식사 때, 그리고 밤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세워질 우리의 문화센터에 대해 단편의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센터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로 하려고 논의했던 터였습니다.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 이름은 '아시아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우리들의 꿈을 대변하는 말문이었던 것입니다. 건축가 김원 선생이 우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게 위해,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적인 준비 속에서 여러 구상과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꿈, 출판물 뿐만 아니라 가치의 발견! 그것이 앞으로 세워질 이 건축적 공간에서 발의되고 실현되고 가꾸어지기를!

나는 그 때 발의된 꿈의 구상을 그 이후 나의 손 위에서 한 번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집착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김원 선생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본구상을 보여주는 조판도가 서울시 판심되고, 이 조판도는 1997년 7월 11일 문화부로부터 제정경제위원회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조판도를 서울시 제출한 것은, 이 시설의 계획을 확정짓는 계획비금 상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코비다 프로그와 서둘러졌지만, 실제 집행하기가 신속하지 않으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 김원 선생께 큰 절례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부터 출판도시에는 많은 관광발과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이 도시에 세워질 모든 건축물의 '건축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에 따라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가족을 낳은 건축코디네이터를 선임하기로 하고, 건축가 송효상·민현식 선생 그리고 워릭코디네이터로 김원준 선생을 보시게 되었지요. 마침 송효상 선생이 런던에 머물고 있어, 우선 민현식 선생이 그 업무를 책임지고 초기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송효상 선생이 귀국하여 일단제 제일코디네이터로 직급까지 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터입니다.

출판문화정보센터(현재의 북센터)의 건립과 함께 이 도시의 핵심이 될 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의 건립이야말로 앞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건축물의 용도·성격·운영방식 등을 정하고, 규모를 확정짓고, 건립 계획의 조달계획을 결정하는 일은 시급했으며, 영세하기 그지없는 우리 출판관련업체로서는 난감하기 이룬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든 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도움과, 그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모아보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었지만, 달라붙었던 셈이지요.

김원 선생의 기본구상을 보여주는 밑그림은 1997년 9월 11일 시급한 대로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6억 2,100만원의 지원받는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성격·용도·규모·운영·개발전략 등의 계획은 재검토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김원 선생의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이 건축물의 실계를 공부에 붙이는 것이, 이 도시의 정신이 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공공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좇아, 실계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간 우리를 도와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비를 받아내는 데 기여한 김원 선생께 당연히 결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는 대와(大禮)를 대내외 선생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은은 심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양해해 주셨고, 실제정보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송효상·민현식·김원준 등 세 분과 당시 건설본부장이었던 민선주 교수 그리고 내가 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공보청과 함께 건축가 김원을 교수의 실계가 채택되었습니다.

실계가 끝났다고 곧바로 건물이 세워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재원이 있어야겠지요. 재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편지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토지대금을 지불할 당시, 문화시설분담금으로 기존법에 의거 분양률수에 따라 토지대금의 2.82%에서부터 5.24%까지 인정부분 정도를 거둬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정부를 선독하여 건축비의 50%를 지원받는 과정이었다고, 각종 기부금 등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어떤 재정계획에 따라 3년제에 걸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제대로 건축하게 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7. 24.

이희용 이가용 드림

본지

문화시설분담금이 무엇이며, 자체상금은 무엇인가?

출판도시를 기획하고 추진해 오면서 우리가 세운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규정이 깨진다면, 아무리 좋은 과거를 가꿔 왔거나 큰 이익이 보였을 비록가 온다 하더라도 이내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해 온 주체로서 가장 유념해야 할 비덕이요, 덕목은 '공정함'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이 사회로부터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자 주장 해 왔습니다. 즉 출판업이란 이 나라 민족과 사회에 공헌하는 바 크므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라는 것이었지요. 이런 발상에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주장하고, 갖가지 법적 근거와 전략을 짜내어,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서 당해·음식료품 등과 함께 제외되었던 출판·인쇄업을 문화화공업이나 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반열에 세우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이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산업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조 지정받았으며, 토지조 조성권까지 분양받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1단지 87만 3천 제곱미터(26만 4천 4백평)의 소지(土地: 7만 9천 9백 9십 4 제곱미터)의 땅의 대금은 제곱미터당 8,470원(평당 28,000원)이었습니다. 도로와 녹지(수호 조항) 등을 제외한 가치분 민적이 50%이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분양받은 토지대금은 제곱미터당 16,940원(평당 약 56,000원)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가 바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일을 삼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토지를 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리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 사회가 우리를 특별히만 편袒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이런 시비는 지금도 간간히 들리고 있어, 그때마다 앞으로 얼마까을 실정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땅치 않을 때 이런 공격의 화살은 우리의 반목을 해롭고 늘어날 것입니다.

56,000원의 소지(土地) 대금이 실제 분양받을 때 제곱미터당 225,360원(평당 745,000원)이 되었는가? 원래 소지대금이 결정된 것은 우리가 분양받던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자유로가 조성되던 무렵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굴뚝비용 그리고 조성공사비와 관리비가 더해진 것입니다. 즉 소지대금+굴뚝비+조심비+관리비로, 평당 약 74만 5천원이 된 것입니다. 조심비는 다 아시아시의 통상시설,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교량, 가로 등과 그 밖에 조경과 도로교통시설의 공사비로, 우리 주위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인근 토지와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격이며,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인프라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특별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는 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단지 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들 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고개를 들고 이 사회를, 국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었다면, '그분과 우리 사이의 공정함' 또는 '공정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잠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시설분담금과 자체상금은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시의 문화시설분담금은 도시 내 특산공공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법에 의거 분양면적에 따라 토지대금의 2.82%에서부터 5.24%까지 차등 적용하여 거둬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이 생생합니다만, 자체상금은 2004년 가만시설공사가 완료되어 한국토지공사와 개발명칭변경을 추진할 당시 9월 경기도에서 국가와 사회에 약속된 출판도시 전체 건축원정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원일(一) 토지금액의 0.5/1,000를 기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처음부터 출판도시 발전과 공공프로그램에 공적자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입주기업협의회가 도시 내의 회원과 회원 사이, 도시 내의 회원과 회원 사이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라면,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위에서 밝혔던 우리와 국가, 우리와 사회와의 약속인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특히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이 도시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밝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입원구설도 우리 출판관련인원이나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안중근 님 동상 앞에 서서 그 분의 원소 위에 저의 원손을 올려놓습니다. 한자에는 더 욱 그러하지만, 한어몰임에도 그분의 차가운 손은 제 손끝에서부터 제 손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차갑던 그분의 손은 어느새 뜨거워져 날아옵니다. 저의 심장도 이내 뜨거워집니다.

여이분, 웃으셨지 모르겠습디다만 저는 이런 이벤트를 자주 갖습니다. 이 의미를 복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좋은 선행의 발상을 되새기는 이벤트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3 - 이기용 이사장 서신 3 (2008. 07. 24)

4 - 이기용 이사장 서신 4 (2008. 07. 25)

우리도 평소 존중해야 할 좋은 생각, 좋은 발상을 열고 싶습니다. 구두선(口頭禪)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나 말을 일요일만 되우지,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좋은 인성을 가진 안 의사의 발상 속에는 우리 인간, 우리 민족이 익혀야 할 생각이 있어 자를 인도합니다. 저는 그 발상을 실현하려고 애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힘쓰고 또 힘씁니다. 이 도시에 제가 바뀐 가치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 의사의 가르침이요, 그분의 발상이 뜻하는 바일 테고, 제게 보자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배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편지글에서 보겠습니다.

2008. 7. 25. 새벽  
영화당 이가용 드림

임주기업협의회는 '카리기라' 이 돼야 합니다.

'임주기업협의회'란 단체는 왜 설립되었는가? 왜 굳이 이런 이름으로 설립되었는가? 저는 임주기업(제) 협의회에 대해 매우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 때마다 설명을 드려온 했지만,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박라해 이해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음을 알고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임주기업(제)협의회'라는 명칭은 반드시 '제'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가 출판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로 지정해 준 근거가 되는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 는 '관리관'과 관리관직의 지휘를 받아 단지를 관리하는 실무기관인 '관리기관'에 관해 명시돼 있습니 다. 이해 되려나. 임주기업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산업단지는 원래 국무위원인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관자가 됩니다. 그리 나 출판단지는 유일한 문화산업단지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관자가 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견해에 따라, 1998년 7월 15일 산업자원부가 문화관광부에 고시권을 제외한 관 리권한을 위탁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임명조치를 위해 통문서류했던 기일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단지가 조성되는 초창기이므로 임주사들의 임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한시 취으로 관리관자가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관리권 위탁하는 행식을 취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임주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2000년부터 저는 서둘러 임주기업(제)협의회 설립을 준비했으며, 새로 선 임되는 이 단계는 반드시 '카리기라' 이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해 왔던 그동안의 산업단지 관리지침들은 엄격했으며, 심은 그대야만 합니다. 원칙에 따라 엄격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맞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국가의 여러 정책 속에서 올라 간 산업활동을 막았던 임주사들이 임주한 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만은 일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라도 당초의 취지대로 공소기업체들이 임주한 다음 제대로 산업활동을 하다가, 도화선 원은 있는가 는 수시로 살펴보고 지원하느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관리기관일 터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니라 임주기업(제)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대야만 하는가?

출판단지는 '문화단지' 이므로 일반 산업단지라 크게 구분됩니다. 이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저저온

'산업단지의 무미건조한 조성형태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중심한 문화산업도시로서의 출판도시를 지향한 다'는 취지에 관해서는 모두가 아는 터입니다. 게다가 최근 출판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출판산업의 존재양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관리지침이 옛 형식으로부터 변해야 합니다. 변화지 않는 한 시도가 충돌해 (관리지침과 임주자 사 이에)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뻔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오래부터 예견해 왔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도시의 '관리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리기관은 임주기업협의회'로 하 두벌리 정각되고, 관리관자와 관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리지침을 정비할 뿐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도 지 정하고도 맞지 않게 있는 실태를 조지 있게 정리하는 하여 정부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준비해 왔 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주기업(제)협의회는 관리기관이 돼야 합니다. 관리기관이 되면 임주기업(제)협의회는 출판단지를 법 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제가 '장악'이란 표현을 용감하게 썼습니다만, 법적으로 장악하지 않고 는 출판단지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를 위한 관리뿐만 아니라 출판단지 조성초기에 수립했던 건축설계지침, 도시의 사인지침, 조정지침 등 을 지키게 하고, 임주자들의 부당한 활동이나 권법과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재산권행사 등을 제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상공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묶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위해 2007년 2월 28일 임주기업협의회가 법인설립 인가되기 전부터 계속 노력해 왔으 며, 그 노력의 결과, 조합이 요청하여 2006년 9월 12일 당시 국회 이호을 전신교육위원장의 소집으로 국회 이광재 산업자원위원, 문화관광부 김춘식 출판산업위원, 건설교통부 이석범 산업입지정책위원, 한국토지 공사 김항태 단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해 당정협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와 조합의 실무이사·기획부장이 배석하고 그밖에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 장현익 전문관, 한국토지공사의 최준영 과장, 주원석 보좌관, 김 지숙 비서관 등 각 의원 보좌관들이 일석한 공이회였습니다. 출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주기업 (제)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이미 빠른 실현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조합, 그리고 선생 임주기업협의회가 신속히 일을 진행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언제인지 지도 알 수 없지만, 문화관광부 김춘식 팀장의 요청과 임주기업협의회 회장의 동 의에 의해 임주기업협의회가 '제' 자가 빠진 채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임주기업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출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2010년 가까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책임자로서 눈물을 흘리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꾸부터라도 출판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법적요건을 하두 빨리 갖추어야 합니다. 임주기업(제)협의회가 '관리기관' 이 되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이 도시는 어려워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원부터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도시는 한순간 두리의 이해관 계에 영향을 줍니다. 한순간을 소용이 하연 가계소명을 가져 온다는 사실에 저는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리더십은 철저한 프로의 판단과 실천양식으로 무장해야 하며, 보편적 교양 그리고 시 대를 앞서가는 선견(先見)이 요구됩니다.

다음 편지글에서 또 보겠습니다.

2008. 8. 5.  
영화당 이가용 드림

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면 3~4년 후에도 폐허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판도시 주변부의 난개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문도 아시다시피 이미 심각한 중독에 전사부품공장 건축공사 하기가 나 있는 상태로, 지금 건축허가 취소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이거구니! 일이 바뀐 내내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행운일 것입니다. 출판도시 주변부는 이제 오래 전부터 보저소주자들과 개발업자들뿐 아니라 준국가기관들이 파주시와 협의하면서 개발을 위해 눈독을 들이겠습니다. 출판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속도는 가속이 붙었고, 앞으로 난개발은 불을 보듯 합니다.

최근 파주시가 1단계사업부지 내 민용사와 일정한 지역에 가구단지, 그리고 2단계사업예정지의 일정한 지역에 문헌저장실단지 조성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판도시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각해 가구단지는 원화와 공에서 파주시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어서 더욱 알뜰한 행정철신을 신중히 했습니다. 조합 사무국에서 파주시를 알선하여 부시장, 남양주청, 과장 등과 만나 출판도시 주변부 개발이기는 사실들이 출판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마땅함을 주장하고, 이 사실들에 대하여 출판도시의 각종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강화를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업률과 황금만능주의가 난을 치고 있는 가운데, 온갖 욕망들이 증부원천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를 실현시키고 기다려야 했던 '상선'을 내내려, 열망들을 행하면서 부끄러워 버리고, 한편 타협하면서, 주변부에 좋은 이웃을 만났음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면 이 보고 드려지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동향, 국소단위의 지역개발 계획과 광역개발계획의 움직임 등 정보를 모으고 분석·연구·대응하는 노력의 힘을 우리 사무국의 담당자와 사별기능을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은 온 속해됩니다.

이번 분권이 "몇몇 사람들이 적당히 분권해서 한 주일에 한두 번 모여 치러야 나가자"는 의지를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일이 정대로 아니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지열하고 원본적인

사건·정보·계획 등이 필요하며, 게다가 깊은 철학적 사유(思惟)들이 동반해야 하는 일일 터입니다.

또한 이 도시에 건립된 건물이 152 개가 된다면, 이제 대부분 건물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건축주 스스로가 손질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계획한 바이지만, 공동으로 양선회사를 설립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비용으로 건물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생산성 높은 공동체의 도시를 만들고자 마련은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4월 24일 저의 어머니님이 세상을 떠났으며, 5월 26일 저의 형제들은 어머니님을 안고 강릉 선교장으로 내려가 선산에 잘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예정된 일정이요 순서였음에도 제겐 갑작스러워 어려운 나날이였습니다만, 어머니님의 영영이런 위로 덕분에 간신히 견뎌 왔음을 잊어 감사드립니다.

저의 형제들이 장례식이 끝난 즉시 보내 올리려고 마련했던 인사장을 불꽃 보내 올리기가 참으로 망설여졌습니다. 제 장정을 어찌 남아올릴까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산했던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었습니다만, 그 인사장을 동봉해 올리는 임 용사께 주십시오.

매칠 전 존경하고 찬애했던 작가 이상준 형을 떠나보냈으며, 출판계 이젠이신 정진숙 회상남서시 중환에 '누워 계시는 우월한 조음에, 출판계의 선배이시며 저인 스승이기도 하였던 참조사 최덕과 사담님의 갑작스런 부상에 황당했으며, 지금 막 발간을 마친 후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할 수 없는 출판 강화에 있어 아픔을 씁니다. 최덕교 선배님께서는 "한국잡지 100년, 의 저작권료를 받으셨다면서 금 일천만 원을 출판도시문화재단에 기부하시면서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소중히 여기 출판도시 건설을 내내 지켜왔는데, 원금적으로 별반 도움을 주지 못했다, 막소하자만 이 돈을 보내시, 출판도시 안의 다양한 곳에 은행나무 몇 그루를 심어 가꾸어 주면 내 뜻을 조금이나마 표하는 일이 되겠다" 하셨던 말씀을 빌려서 이제소광명에서 큰 길을 따라 나오는데 수로변에 은행나무동산을 조성해 놓았던 것이 2005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이 은행나무동산은 최덕교 선배님의 기일 등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하나가 그분의 부음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다소 날래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 뵈겠습니다.

2008. 8. 13.

영화당 이가용 드림

1년

우리 출판도시: '한정(寒心)'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기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소방관 오천 명 가운데 수기를 모집하여, 그 중 103편을 뽑아 읽어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9월 이노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간사신 홍광표·서승현 소방장이 왔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현상체 힘을 담은 수기를 모집하여, 그것을 간단한 책으로 묶어 경기도내 여러 소방관들로 하여금 읽게 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살 수기를 모아 놓고 보니, 뭔가 느낌이 있어 이것을 잘 기다려서 좋은 책자로 만들 수 없겠는가 생각해 온 것입니다.

저는 평소 '재난(災難)'의 문제를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각별하게 저: '교양(敎養)'이 안전을 지켜주며, 재난을 줄여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양이란, 사건을 보면 '학문·지식·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의'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정의됩니다. '안전의 골짜기'와 '지혜'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교양은 한 개인의 인격일 뿐 아니라 한 사회, 한 나라의 골짜기 될 터입니다.

저는 '교양'이 있어도 재난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는 좋아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교양'만 있어도 생명(生命)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었지요.

삼중파해결이 끝나고, 그 재난의 현상을 생중계 하듯이 티브이가 미친 동안을 보도했던 장면들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째시점엔 아니라 교양이 없는 일상 때때로는 행태에서부터 행정학과,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자신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출판도시를 가리켜 '지혜의 도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혜(智慧)! 저해나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식당학자: 서구의 팔다운 문화사를 '지혜를 탐구해 온 역사'였다'고 정의합니다. 동양이라고 해서 다름이 아니겠지요. 노자·장자·제군자·묵민심사들을 읽으면 지혜의 뜻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도시가 지금 지혜의 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만, 그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출판도시: 안전을 지하는 도시임에 틀림없을진대, 지혜는 기본이고, 재: 이 도시내에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과 인력은 없는가? 최소한의 안전을 교육하고, 재난 대처요령 또는 재난 예방을 알게 하는 아카이브가 없는가?

그동안 제 머릿속에 불안감이 늘 끓어 다녔습니다. 하여 이시이출판문화정보센터 동쪽 소방파출소 부지 오머리 밑 빈터 앞을 지난 때마다 어떤 위험같은 목소리(悲鳴)가 제게 전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생각으로 파주소방서를 통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마땅한 소방시설을 사달라 해 주도록 권고하게 요청해 오던 터였고, 홍광표·서승현 소방장이 저를 찾아오게 된 것도 이런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없어 계속 비추어 오고, '소 잃고 외향간 고집'은 우리나라 특유의 일 처리가 보드시 이루어지겠지요? 이곳 출판도시:에 대할라고 한번 나면, 그대 가서 허둥지둥 무슨 안(案)이 나오겠지요. 바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보문고 권정현 사장·김성룡 전무에 그리고 김영희 부장에게 우선 구두로 다음과 같은 뜻을 제안했습니다.

교보생명을 장악하고 이어 교보문고를 장악하고 신용회 회장님, 그 이전의 뜻을 기리는 변듯한 사업 하나를 이곳 출판도시:에 하고 싶었습니다. 유통문화사 정진숙 회장님과 각별히 인교하신 분이요, 정 회장의 권유로 교보문고 사업을 일으켰음은 장엄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하여, 그분의 기년관을 불후 전립하는 것보다는, 출판도시 내 소방서 오머리 밑 부지에 '출판도시 안전교육센터·大山기념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용권이면서도 의미가 깊은 사업이어서, 고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산은 약 사십억 원. 설계는 뛰어난 건축가를 지명해 공모하는 방식. 건축물 내의 시설은 '소방·방재 시설 및 차량', '안전교육시설과 기초안전에 관한 자료실' 그리고 '大山기념실' 등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정신이나 교보문고는 문화사업의 창립 정신이 아닐까 우리 사회나 가정, 기업의 모양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더욱 뜻깊을 것이라는 원도 강조되었습니다.

大山기념실 뿐 아니라, 소방파출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출판도시:는 물론 경기도내의 안전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교보문고측과 경기도, 이렇게 합의하면 되면 해동적인 일로 저는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6 - 이가용 이사장 서신 6 (2008. 08. 13)

7 - 이가용 이사장 서신 7 (2008. 08. 23)

홍영표·서승헌 소방경이 가져온 원고는 매우 기절했지만, 붉은 119소방대원들의 고난과 진심어린헌신의 목소리가 제법 남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옳다, 이것이다! 하고 저는 가슴으로 외쳤습니다. '인진 이'라는 문체의 발골을 다시 열 수 있었구나, 하고 남깁니다.

그래서 출판도시정보도서관의 책임자인 김수옥 선생과 더불어 함께 원고를 가다듬었습니다. 편집자 생활 사십여 년의 책 안팎엔 숨겨져 있던 이 원고들은 참으로 소중스러웠습니다. 가다듬는다? 편집자는 아무리 서툰 원고라 할지라도 원부로 보내선 안 되며, 반드시 손을 대야 한다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는 편집자만이 터득되는 경지라고 평소 소신해 온 터여서, 김수옥 선생과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최소한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우연히 작가 김훈 선생을 뵈게 되었습니다.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가 문득 이 책 얘기를 꺼내게 되었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은 김훈 선생은 소방관을 주메고 한 소설 '빛살부리' 로기의 추억 을 썼던 인연으로 소방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취재경험을 갖고 계셨습시다. 그때부터 김훈 선생은 원고를 훑어 읽어 주셨고, 의견을 내셨습시다. 글을 좀 더 손봐야겠다, 꼭 내는 말을 서두르지 말자하고, 피카도시의 본능을 보이셨습시다. 저 역시 그분처럼 생각을 해 하지 않았겠습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집자의 글 다듬는 범위와 원칙을 얘기하고, 게다가 원선 119소방대원들의 글이 너무 세련돼도 문제되지 않았습시다, 하면서 현상의 목소리들이, 조금은 서툰 글씨체이지만 호소력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드림이나 풍려해 주셨습시다.

게다가 또다른 의견을 덧붙였지요. 빈틈한 머릿글을 당장에서 직접 써 주시면 어린 소방관들의 글도 빛날 터이지만,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담은 글을 어린 소방관들의 창피 발인이 크게 망쳐드릴 겁니다, 했더니, 흔쾌히 승락하여, 소방관에 관한 각종적인 글 한 편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훈 선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인간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단순명백한 진리를 나는, 김주라는 소방차를 바라보면서 확인한다. 달리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눈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원으로도 기쁠습시다. 표지를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그분께 또 하나의 일을 부탁했지요. 제사(祭)를 써 주셨습시다. 붉은 소방관을 달은 전차한 빌새가 뜰엔 나는 글씨에서 풍겼습시다.

이렇게 하여 지혜의 도시, 한전을 도모하는 출판도시는 가치있는 일도 하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인지당원에서 급류에 휩쓸린 농부를 구하러다 순직한

경기도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원 최영환 소방교의 보도가 우리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한 달 앞둔 서른세 살의 젊은이였습니다(이 직 PP, 274-275 참조). 바로 며칠전인 4월 20일 새벽에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화재현장에 나설 소방관 세 명(소방장 정기현 46세, 감규제 41세, 소방사 변재우 34세)이 무너진 천장에 매달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동료들 잃은 소방대원들이 오열하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매년 생명을 건 헌신과 봉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고마움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어와 주십시오.

'기다려라, 우리가 진다'라는 말은, 어느 곳이든 위험과 힘든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우리 출판도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2008. 8. 23(토) 아침 7시

일화당 이기용 드림

나치

이 도시가 이상(理想)을 향한 아무 이념도 생산해내지 못한 채, 지도부가 매일 미임을 회의를 위한 회의, '민주적'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공식된 논리에 매달려다, 이 도시의 운명은 참나 참나 나날일음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향, 가끔과 회의를 거쳐서, 쓸데없는 데 허비하고, 회의 참석자들의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중간중간으로 논리가 이어지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출판도시의 성과와 자양(滋養)을 뺀아 버트면서 얼마간은 지해했지요, 그러다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념을 설정한 다음, 뛰어나고 성원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리더를 뽑고 그의 판단에 맡겨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일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념이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이념이지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도시- 아직도 전두적 상황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리더의 판단과 순발력이 필요함입니다. 저: 그동안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월을 갖가지 논란과 장애를 헤치느라 일은 상쳐로 하여 그 리더십이 많이 훼손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의 보충을 왕충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험을 소중히 통해 가져가야 합니다. 제 경험에 바탕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희생과 진정성 있는: 이가 앞장서고 그들 우리가 떠맡겨 주어야 합니다. 젊고, 지혜롭고, 패기 있어야 합니다. 왕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몇마디 이찌구 저찌구 앞으론 한다고 그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선택된 인물은 얼마동안은 우리 앞에서 보듬을 보이는 기간이 필요함입니다. 즉 감동해야 합니다. 그러: 동안 지혜로운, 참스리를 보듬을 보여줘야 합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그런 생각으로 몇몇 분에게 그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곤 했습니다. 실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외아라기 어려울 때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사 전제근에도 언급했고 2004년 2월 13일(금) 임추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던 당시부터 기피 있을 때부터 임추기업체협의회는 반드시 '관리기관' 이 되어 한다는 점을 관철하게 강조해 왔습시다. 그 후 임추기업체협의회가 왜 관리기관이 되기를 포기했는지, 화상과 집행부의 생각은 어마한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마디 언급이나 해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시다.

그렇다치고, 그러면 일으로 관리기관이 되지 않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 발안이 있다- 얘기인

지, 어떠한 해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무엇이 날출 드렸지만, 임추기업체협의회가 이 도시를 대표하는 기구의 하나(특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로서) 자리잡으려면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관리기관 말고 어떤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저런 해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란 그 일의 책임을 맡은 최고 책임자나 집행부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일의 결정과, 결정된 사항을 실현할 지혜로운 장비를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임추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 이렇는데, 제가 임추기업체협의회를 무시했다느니 인정을 안했다느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습시다? 관리기관이 되기 위한 일을 왜 소홀히 했나고 지적하는 저에게, 집행부 몇몇 사람이 그 행위가 마치 임추기업체협의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어 날만다인 것이어야하고 비판하습시다.

더구나 이 도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이 시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야말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지 않습시다?

그런데 문제는, 임추기업체협의회가 왜 관리기관이 되어 하는지, 왜 법적 자위를 가지어 하는지 아직까지도 임추자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임추자뿐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이들조차도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사단법인 임추기업체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회원의 필히 능이 정관을 온전히 지켜면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본인으로서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현재 협의기구로서의 총회, 이사회, 실행위원회, 회장단 등의 구성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회원의 자격과 범위입니다.

특히 기밀된 회원이 가끔은 제대로 모두 내었는지, 안 내 회원과 낸 회원 간의 자격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취임된 사례는 없는지, 연임 자격이 없는 회원,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할 일들이 어떤 법적 유효성을 갖는지, 어떤 불법성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사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리비리 검증해야만 할날 문제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상은 즉정연의 잘못을 밝혀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운명과 깊이 관계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런저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일찍이 2004년부터 임추자시는 구성원들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임추기업체협의회를 세웠었고 그 단체가 관리기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젠 사업도 그런저런 연한 속에서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계획한 것

입니다. 2006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비리비리 준비하도록, 제 기억에는 홍자웅·이건복·한철희 등 조합 이사들에게, 제가 직접 재권하기도 하고 이관구 실무들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했습니다.

비리 계획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죠, 그 아까운 세월을 허비한 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오순도순 살아가면서, 저체상금도 빨리 가꿔야 했고, 저체상금에 관한 소송도 빨리 진행해야 했고, 관리가량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와 행정부, 대외의 활동도 부지런히 해야 했으며, 특히 일단의 일주사들의 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돕고, 도시의 공동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안으로서 임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가량이 되어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실을 강조해도 누구하나 귀가들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슬퍼야 하리만 같습니다.

임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열거해 풀리고, 정제성을 갖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협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종각계 재단에 시비를 걸고 사소한 문제를 이사장을 공격하거나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체상금 청구소송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던 아들이, 조합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저체상금 35억을 받아낼 수 있게 되자 마치 그 돈을 이사장이 전횡하여 문화재단으로 모두 다 가져가리 한다고 떠무늬없는 소문을 내고 선동하고……

여러분,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 이가동이 20년 살았을 뿐이면서 가시만 길을 걸으며 그 사람이, 태산 위풍과 고독한 댜, 어느 누구라도 상치할 수 없는 고독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안중에 선생 통상 앞에서 기도하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부치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 개인의 것입니까? 저를 배임으로 몰고가기 위해 이산(伊山)이라는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동원해 교보문고 저체상금 처리물자를 자문받은 문서를 보면서, 저 드레쉬스 사건보다도 더 유착하고 수완 보함을 보면서, 저런 일들이 제에 관해 와야 하지도 않는 몇몇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이상을 잃은 시기성과 중요성은 어디 서 나왔는지 감지했습니다.

그 변호사 자문의 문서는 순장 경찰투성이일 뿐 아니라 여러곳에 저를 강조병으로 기병함으로써 범죄자로 몰아가는 의도가 역연했습니다.

그런 문서를 작성한 주문자와 변호사의 활약을 뚜렷한 흔적이 보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를 한 개인의 명예에 저명적일 수 있는 문서로 다수 복제 공제하여, 다중에게 의도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밀어지게 할

으로써 상처를 주는 경정적이고도 중대한 오류, 아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범죄 그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하서는, 권익 박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고 가정상에서 자문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반변을 하지만, 이미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는 그동안 꿈꿔왔던 도시의 꿈, 도시의 빛과 사랑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예절과 의리로 가득찬 다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 넘겠습니다.

2008년 8월 30일

임희당 이가동 드림

내가

저자인들의 사화가 김대익(金大翼)은 도모하면서 제가리들 갖는 반지성(反智性)의 문장을 흔히 볼니다. 학원에서, 학회에서, 각종 문화단체에서……

“제가리 갖기는 하던 지성(智性)이 아니다” 하고, 저는 저자인들의 제재를 향해 외치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성이 아니면 이미 출단인이 아니다”라고 출단단체를 향해 선언합니다.

저는 출단도시가 단순한 이익집단의 거소(居所)가 아니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운명적으로 그리 될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의 저의 통사는 부의니제였으며, 그 순간 저는 모든 통사를 끝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끝낼 것입니다.

이제 예습이 그의 책에서 남깁니다. “한 국가(作)를 지켜온 것은 그 작가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스스로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작가의 외침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대내지 못하면 작가로서 살 수 없습니다.”

작가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모든 지성인, 모든 출단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적인 제가리 갖기는 인간적 어떤 아름다움이 아닐 그리고 인간다운 진정성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도시 역시 제가리 갖기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생각이 깊은 외침이인의 집합이아야 합니다.

출단도시가 명목적 제가리들의 집촌, 또는 한 분야의 이기집단을 위한 거소(居所), 더구나 본편이을 위한 공간이 되려는 순간, ‘도시의 향기’, ‘도시의 빛’을 잃습니다.

‘생계(生計)를 위한 출판’에 순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책의 문화, 책의 가치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퇴장이에게 날가진다면? 출판산업이 시장의 논리에만 날가진다면?

외국의 어느 큰 공구회사(工具會社)의 회장이 말했었다고 합니다.

“한 년에 수십만 개가 팔리는 공구가 있는가 하면, 삼십십 개밖에 팔리지 않는 공구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를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공구가 가장 적게 팔리는 이 공구(T.I.D)입니다.”

저의 외론은 고려에 고려를 묻고 찾아옵니다. 제가 출단도시에 가치를 두고 일해 왔던 생각의 원형은 이같은 외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생계의 본질을 가지고 이리물저리물 논할 뜻이 없습니다. 생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생계의 기본이니까요. 그것은 힘어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생계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하고 있지요.

인간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그런 오랜 역사의 도래(道來)에서 본사(本史)를 만들어왔습니다. 위대한 글공부를 통해 본사는 글공부 함께 그 의미가 가득한 것이고, 신비롭게 배열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문화사적 문명사적 부가가치를 주었지요. 그것은 특히 ‘책’이라는 양식을 통해 기록되고 전수되어 영감(靈感)을 주면서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판인들을 자랑스럽게 자부합니다. 말의 본지로서 일하도록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진구백사십오 년 광복을 맞은 우리 출판은 새로운 세계의 진문(進門)에 따라 쫓으면서도 우리 삶의 지평(地界)을 넓혀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초라할 정도로 비참하게 일제 상습을 연을 살아왔으며, 몇몇지 못하게 풍복을 벗었고, 도다시 우리끼리의 문명을 연출하면서 분단의 나라를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고단한 오십년대, 육십년대, 칠십년대, 팔십년대를 살아왔습니다. 광복이될 저의 나이는 만 다섯 살이었고, 다시 그 다섯 해 뒤 한 국전쟁의 비극을 맞은 저는 초등학교 사학년이었지요. 시대의 현장에서 어린 눈으로 그 비극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뒤 육십년대 중반에 제 운명이란 출판의 분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선택들의 고쳐를 보았습니다. 그 분야의 영광(?)이랄까 그분들이 다소 기뻐하는 모습도 바라보았지요. 선택들의 고쳐는, 그분이 이상으로 삼았던 인물(人)이 뿌라내리지 못하는 현재의 절구(桂樹)이었고, 그들의 기쁨의 순간은 임시승반, 교과서출판 또는 외판출판 등에서 얻어지는 매출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출판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임진구백사십칠년인가 한 년인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 주회의 어느 좌담회(座談會)이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려대 출판이었던 유진오 선생을 보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풍광(?)해서 표현하면, 우리 출판은 모두를 섬겨야 ‘두려(柱頭)’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지가 보호하고 영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공간과 그 시기까지 우리 출판의 저항과 상계에 대한 한 지식인의 날카로운 평가였다고 저는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 고향에서 자란 순박하고 부구(無邪)한 눈으로 보면, 우리 책의 현상은, 최종한 표현입니다만,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눈 가난하고도 어려웠던 저의 겸한의 살림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들의 근검하고 절제된 생활규범과 인문적(人文的)인 변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지혜였다고 회상됩니다.

비교적 시구(詩句)도 많고 살림규도가 컸던 저의 제정(財政)은 엄격한 원칙에 의해 계획되고 집행되고 통제되었으므로, 빈틈없었다고 기억합니다. 모든 건물의 공간들은 집주인과 목수들의 적절한 협의와 합의에서 영위(營衛)되어 들어났습니다. 집의 부위 하나하나도 노란 조리의 방상에서 마련되었지요. 거중에 걸



분업을 조정하는, 이분 체계의 첫 번째 이분은 그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더 큰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

다음 편지에서 또 뵈겠습니다.

영화당 이가용 드림

76





도가 소요되는 이 전집의 출간에는 그때 겨우 삼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었지요. 최원익(崔元翼) 인하대 교수가 당시 인문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서 헌친 출신의 우현을 기리는 사업 가운데 넣어 주시어 이 전집의 출간에 일부인 삼천만 원이 지원되는 데려가 있었지요. 게다가 저의 친구인 김윤기 인천공항철도공사 사장과 지에스 한택스 허동수 회장의 재력으로 오한만 원이 보태져 도합 만원만 원들 긴신히 마련하고 있었습다. 열화당 살림을 모르시는 분에서는 저의 이런 자질한 사람까지야 아닐 턱이 없겠지요. 그러던 차에 인문상 수상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인문에서 우현전집 출간을 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비치게 되었습니다. 인문상 수상에 따른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한 심경이었는데, 우현전집 출간비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저의 생각은 명료하게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기타 소득세 4.4 퍼센트를 빼고 나니 4780만 원이 남아 이 논문 저금까지 포함되겠 제 수중에 보란대 있습니다. 어디론지 저간의 사정을 남몰래 읽니다.

2006년 사월 십일일(그날은 인촌이 태어나신 지 백열다섯 해 되는 날입니다) 수상식장에서 저는 인문선생과 남다른 악수를 합니다. 수상의 영광도 영광이려니와 주신 귀한 상금은 정말 귀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인문상의 제정 의도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며, 우현전집의 발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혜를 흐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신 상금은 반드시 우현전집 출간에 보태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수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말씀드릴 때에도 이런 제 소회를 여러 참석자 앞에서 밝혔지요.

인문에서는 그 말을했던 시기에 나라의 독립과 우리 문화의 광명을 주장하며 그 실천에 힘쓰셨을 뿐 아니라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열정을 바친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문화주의자이셨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모두가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현 선생께서는 인문 선생이 태어나신 1891년부터 열네 해 뒤인 1905년에 태어나시어, 역시 조국이 암울했던 시기를 사시면서 우리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야의 준가(準據)를 정확하게 세우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인촌이 정치 사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세우셨다면, 우현은 학자로서 학문의 헌정, 문화예술의 헌정에서, 한국미술이 근대적 학문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채 우리의 소중한 문화 전통이 망실돼 가고 있던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우리 미술사학 연구의 초석을 세우신 분입니다. 광복을 맞기 한 해 전인 1944년 유럽, 무리한 연구활동 탓인지 안타깝게도 마흔의 연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한국예술의 등장과 같은 존재이면서 우리 인문학의 전범을 보여주시 분이지요. 이런저런 인연은 뭐야 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수상을 하고 나니 어려움이란, 곧 고아원이나 양모원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동영을 요청해 왔으며, 이런저런 단체에서도 역시 다만 얼마라도 좋으니 기부금 기대해 왔지요. 그저 있을 법한 일이라, 눈

에 밝히는 몇 군데는 심의를 표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 상금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았습다. 인촌의 뜻을 우현의 기념비인 '우현전집'을 제작하는 데 온전히 쓴고 싶었다습다. 혹자는, 저런 정도의 기금(?)을 받았으면 일제의 말에 내놓거나, 부정한 자측과다라도 얹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할 분도 계신 것입니다. 만물이 저딴 뭐 그럴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다. 상금은 시상의 취지에 맞도록 쓰여야 합니다. 자칫 소용될 리기 쉬운 상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출판이 처한 위기는 바로 이러한 작은 소용함에서 담화하여 번지고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견디며 역사 위에 가뭄비를 세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십 년을 살고 견디며 가뭄 온 슬픈도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의 금융대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이래야 한다고 믿습다.

1948년에 쓴 알레르 카워의 글은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17세기는 수학의 시대요, 18세기는 물리학의 시대, 그리고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탐구'와 '모험' 그리고 '도전'과 '발견' '개척' 등을 내세워, 기술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구원하며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생각해 왔으며, 여러 세기를 거치, 곧 수학-물리학-생물학을 거쳐 우주과학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새 기술문명을 이룩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카워는 다시 말합니다. 20세기는 공포의 시대라고. 그는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과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습다. 이 참혹한 전쟁의 참화는 인간에게 큰 반성과 회한의 기회를 줄 것으로 믿었지요. 카워의 글에서는 평화와 절교가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뿐만이 토해낼 수 있는 언어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습다.

이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카워가 정의했던 시대의 평정을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21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역시 공포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20세기 때에는 그 공포로부터 최소한의 도피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전쟁으로부터, 또는 어떤 폭력으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피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21세기의 공포는 전선도 없는, 그리고 어떤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위치나 나타나지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사라지거나 몸의 깊숙한 곳까지 분자화 있는 그런 공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카워의 예언적 문맥은 이미, 그 참혹한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반성하지 아니할 인간의 교만까지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의 공포는 더욱 견줄스러운 것입니다. 기술문명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믿음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밝힌 카워의 경고가 있는 저 육십 년이 지난 오늘, 자본의 수련된 '관'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포가 우리를 옥죄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한 탐욕과 오만 그리고 권력은 새로운 형태의 제삼차 세계대전을 도태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 세기의 세계대전은 우리 가까이 다가와 초기 전(初戰)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출판도시에서 우리가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저 '허한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 책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말습다. 저는 '인문'이 도와주시 기쁨으로 '우현'이라는 씨앗의 껍을 피우렵니다. 그 씨가 자라 고목이 되어 이 도시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도록 할입니다.

말씀이 좋 길어졌습니다. 요즘의 사태 때문인가 봅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좀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일화당 이기웅 드림

년 4 12

예단들의 세계를 향하여

저는 요즘, 임종권(林鍾權) 선생이 1988년 11월에 쓴 시 한 편을 나귀한 음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이 이렇 인 것입니다.

바람

있을 땐:  
저것이 바람인가

선산을 울려:  
저것이 바람인가

모습을 닮아:  
소리처럼 사는 것인가

바람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바람이고 싶은  
나는 무엇인가

바람이어야 하는  
나는 또 무엇인가

모습을 빚고  
스라이프 때리면  
하(하)는 마냥 신기한 것이니

박달이여  
가서 오지 않음들  
또 어떤가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이 폐기물이라는 집현으로 그를 만으면서도 운명적 체감으로 작업했던, 일제하의 우리 지식인들 행태의 진실 살기는 참으로 지명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그라니카 하고라기 꼭 현 전 그가 직한 실경이 잘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이 여덟 연의 시에, 우리 민족의 기개와 언어 세계가 능률하고 당당하게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지식인들의 기마인 행태의 진실, 그 보육적이고 함양한 전신을 알고 난 다음, 곧 온갖 역사적 전신을 알고 난 다음, 스스로의 존재를 탐하여 묻는 가치 없는 의침이 아니었지요. 또한 그게 어찌 그분 스스로에게만 던져지는 의침 이단가요.

저는 요즈음 그동안 숙제처럼 미뤄 놓았던 『임종국 평전』(평운원 지음, 2006. 11. 12, 춘근, 시대의창 발행)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까만, 『친일문학론』의 머릿글인 「화상」의 일부를 여기에 인용해 볼까 합니다.

1929년생인 나는 신원당에서 살때의 시절을 보냈다. 우리집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반성루(班廳樓), 오른쪽에는 다케야마(大谷)라는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 나는 어느날 그 집 기와(瓦)라는 소리와 가까워져서, 흔적 현정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또 할미가 지났다. 권모중절을 가서 피를 피우다 으레히 「거짓노고 다케야마」(조신들은 버림받리니까), 「바레 요보살다」(지전 조신들의 종사가가라)는 우를 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허비 충절을 배웠다. 백남에 구구식 종파 대립을 진 상급생단이 장 학보단같은 강해 보였다. 「조신인도 편다」와 다다메마 다다우로 이치가대루(조신들과 별대) 푸른기면 주한갈수록 빛이 들어간다는 그 유쾌한 표현력을 갖춘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요하는 대상은 「일제(日帝)」가 아니라 비슷한 말용의 단어 「일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제란 주권은 우리 민족공동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친일문학연구」의 목표가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표적으로 해서 따지키보다는 총체적으로 우리 민족공동체에 던지는 문제제기였으며, 역사적 전신을 규명할 다음 가래한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크게 깨닫기를 바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세계 어느 민족국가에 전주가 할으로 다른 방식과 해서으로 접근해야 하리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지질학적인 환경 조건과 그런 조건에서 형성된 민족성이 그러합니다. 이런저런 역사의 뿌리와 조건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하는 우리, 더구나 이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집단인 우리 파주출판도시의 구성원들은 남다른 역사적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힘다운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맹점은 별것 아닌 것을 시작으로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민족이 역사의 「대물」 거쳐 시달려 온 저 「외세로부터의 정선(精練)의 예속(隷屬)」을 날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힘다운 리더십으로 이같은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씌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태없는 일로 서로 싸우고 멸치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새 단합니다. 역사의 공부에는 아예 제지 됩니다. 간혹은 실익은 공부들 가지고 매우 짧은 소견을 만들어 여에게 주장하면서 싸우려 뒤흔칩니다. 임종국 선생은 한 순간 역사 앞에서 크게 깨닫고, 그 큰 깨달음으로 역사 공부에 전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실불리 그 나름의 해석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에 앞서 참된 역사 의 사실을 구명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였기에 학화한 건강 속에서, 온갖 열악한 조건을 견디기며 기록을 취지 자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에게 참으로 빅 차고 형거는 일이었지만, 결국 매우 큰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의 역사 연구의 방향과 태도야말로 우리들 강중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가졌던 저의 아들 결혼식은, 제게 남다른 감회를 주었습니다. 제 소회(所會)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제나 상상했다지만, 한없이 이리 보이는 제 사시인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리하여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 이 이 도시의 구성요소로 건강하게 배우며 사마기를 간직히 믿었습니다. 그때 베풀어 주신 격려와 축하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할미가 지났다. 바깥이라고 한 번 쯤씩만 만나 나오더니, 나중에 한한인유에 부스라뜨린 국수 종류가 배달되고, 그러자 마구해 해달이 됐다고 세상이 벌떡 뒤집혔다. 나는 해달이 뭔가? 하면서 그대로 당당 아 좋아했다. 이때 내니이 열일곱 살, 하루는 친구유한에서 김구(金九) 선생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예! 너 그, 김구 선생이라는 아가 중국사람이래?」  
「그래? 중국사람이 뭘하러 조선엘 오지?」  
「아닌 마이식! 암마 그것두 뭐라? 정치하러 온대」  
「정치? 그럼 우린 중국한테 뭐하니?」

저금 나는 요즘의 열일곱 살에 비해서 그 무렵의 내 정신 연령이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식인지 교육 밑에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 번 회의(懷疑)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국영, 이것을 나는 해방 후에 얻었고, 민족이라는 개념도 해방 후에 막은 생각이었다.

이제 「친일문학론」을 쓰면서 나는 나를 그토록 천재(天才)로 만들어준 그 무렵의 일제(一帝)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신과 고구려의 뒷줄기인 줄을 알았다는 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라난 사실, 때문에 사실로서 기록해 줄 뿐인 것이다.

임종국 선생은 이 자숙적인 민족의 역사 때문에 피고되었고, 그 이파리 그의 삶은 역사의 전신을 깨내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작업들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함께 해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실로, 「깨달음」이야말로 무심도록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깨달음의 문제를 놓고 깊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놓고도 그것을 「어는 것」과 「보는 것」이 각기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할 것입니다. 생각이 대체적으로 같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어느 만큼의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명운(命運)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경에서 보면, 일제(一帝)해방간의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깨달음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정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오늘 이 깨달음의 문제를 깨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런 안타까운 민족공동체 또는 국가공동체의 명운을 걱정해서입니다.

「나는 나를 그토록 천재(天才)로 만들어 준 그 무렵의 일제(一帝)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분은 피를 토하듯 외칩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배보로 만들었던 모든 환경을 향해 절규

하던 율령의 마지막 날락을 벽에 걸었습니다. 율령의 남은 날밤을 여러 어른들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엔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뵈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  
임희양 이기를 드림

출판도시, 우리는 첫단추를 비교적 잘 꿰었습니다.

자난해 십이월에 출판 쪽은 세세에 이어, 숨 쉴 틈 없었습니다만 세세 세세를 읊습니다.

세세 속의 우리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 곧 우리들은 여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일선 조동하고도 지혜롭게 한계를 보낸 듯합니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그저 슬프고도 사색을 낮추고 조용히 처신하!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터이지요.

그런데 살펴보면 모두 그러하지만, 각자의 마음 속 깊은 내성(內性)은 각각인 것을 봅니다. 슬프고는 아픔나 방식도 각양각색일 듯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사 있던 욕구와 욕망, 노리던 사업 심리와 심공이 다시금 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위기가 기회' 아니, 이 기회에 나만이 모든 우리만 이 이 기회를 몰라해, 되려 큰 실수를 마자지 하고 기회를 노리!; 다음이 왜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이 가만 갈수록 사태 발생의 전 상태로 돌아갈 것은 뻔합니다. 아니 사태 이전보다 더 한, 유럽의 치열한 전쟁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라되는 바이지요. 한두 해를 살아가는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전쟁과 슬픔과 재수적인 가치체계를 하루아침에 어찌할 것입니까. 뻔하겠지요.

'말'이란 무엇인가.

'말'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말'은 과연 이때해야 하는가.

이런지런 생각으로 제 의식을 다듬으면서 연일연시를 보냈습니다.

남은 그곳입니다. 생각을 담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모든 여의 생각을 그 그곳으로 하여 행태를 갖추고, 그 리하여 서로에게 보여줍니다.

"일선(時世) 하얏텐 정도 많고 우리에 인생엔 말도 많다."

민간의 오래된 구전 노래인데, 이 세상 말 많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그리하지만, 본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온갖 형태로 견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 기술들은 말을 담아내는 방식을 수백 배로 증가시켰으며, 시장지상주의(市場至上主義)는 디지털 기술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숫자를 천문학적으로 늘여놓았습니다.

기 가까운 우리 앞에 희망의 불빛이 희미해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 라는 말은 이런 때에 써야 제격이 아닐까요. 이같은 좋은 일을 추진하기에 매우 격발할 기회이니까요.

다시 한번 세세의 세태를 둘러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현세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뵈겠습니다.

2009년 1월 10일

영화당 이기웅(李起雄) 올림

말의 홍수 속에서 침위 받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늘 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찾은 일조차 버린 채 드러누워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혼비백산되고 소용은 막혔으며, 인간 존재의 의미마저 행방이 묘연해져 가고 있지요.

말을 좋아야 합니다. 잘 배 있는 말을 삼가야 하고, 진실한 말을 거러서 받아야 합니다.

저 책방에 넘쳐나는 말의 티끌, 온갖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 말, 글씨, 이미지, 기호, 문자 그리고 그 지간들만을 보십시오.

우리의 '말'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말은 우리 사회의 역사와식과 교양이 관리해야 합니다. 식악(食慾), 곧 식종과 약재들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말은 그보다 오히려 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말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대변한다는 명분 하나로 간첩이 어렵고 병입과는 측면이 있음을 그저 말할 수만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문제부터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한 사회는 인문학적 도양, 그리고 역사 학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확신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곧 이를 실천하는 방안은 만 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온 분야에 학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학습하는 일은 훌륭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 몇몇만이라도 생각을 바꾸거나 말을 하면, 그 풍경은 곧 세 기세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원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린이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될 터입니다. 상황이 깊은 침년으로 자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 시대의 전초기적이어야 한다는 명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출판도시를 원구어 왔고, 또 앞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출판도시 이단계 사업도 이런 정신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간의 전배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출판도시의 모든 식구들은 이 의견에 같이 주셨고, 저는 그 문들의 의리와 진학에 깊은 존경과 함께 부끄러운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책의 문화, 책 만드는 이들의 철리(哲理)는 바로 이런 생각에 통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두(諸君)에서 발췌(發軔)한 구세불능한 인류의 처지를 우리는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출판도시에서는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시작을 잘했고, 첫단추를 잘 꿰었으므로, 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3층)  
전화: 031-955-0051 팩스: 031-955-0054 E-mail: paju@paju-book.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8-9호 2008. 2. 12.  
수신: 한국보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참조: 고지권법팀장  
제목: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관련서류 제출 요청

1. 귀 공사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 드려며, 출판단지조합 제2007-104호(2007. 10. 18), 제2007-110호(2007. 11. 27) 및 서울지역본부-31384(2007. 10. 31), 39954(2007. 12. 26)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귀 공사에 수차에 걸쳐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세부자료를 내놓기보다는 일반적인 단답형의 문서만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귀 공사에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투자금액 및 산출근거, 세부자료 등 우리 조합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요청하오니, 2월 20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언론 공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사회회의 의견입니다.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3층)  
전화: 031-955-0051 팩스: 031-955-0054 E-mail: paju@paju-book.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8-23호 2008. 3. 26  
수신: 한국전력공사 대표  
참조: 영입처 마케팅팀장  
제목: 영입(전)23202-1513 관련 회신의 건

귀 공사의 변함없는 사업과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공사 영입(전)23202-1513호(2008. 3. 18)과 관련,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35275 및 서울고등법원 2007누20333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집행은 상기 사건의 종결에 따른 법원 결정문을 접수하는대로 진행할 것임을 통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3층)  
전화: 031-955-0051 팩스: 031-955-0054 E-mail: paju@paju-book.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8-31호 2008. 04. 18.  
수신: 한국보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참조: 고지권 담당  
제목: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18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통보의 건

1. 귀 공사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18번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적기에 가동되어져야 하니 불일과 같이 토지소유자인 (주)경원산업의 복잡한 채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귀 공사에서도 출판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본래의 사업계획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재권한현황 및 경과 보고 1부.  
2. 관련 공문사본 및 첨부서류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3층)  
전화: 031-955-0051 팩스: 031-955-0054 E-mail: paju@paju-book.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8-59호 2008. 8. 21.  
수신: 파주시장  
참조: 주택건축과장  
제목: 출판도시내 상업지구 보도폭 조정 요청

귀 시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출판도시내 입주시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18일 문발리 534-4번지 경계원출판사로부터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문발리 531-6번지의 보도폭이 기존 534-4번지의 보도폭보다 작게 시공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우리조합에서 즉시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실사 결과 첨부서류와 같이 공업지구인 534-4번지의 보도폭은 3.5m이나 상업지구 531-6번지의 보도폭이 2.5m를 확인하였고 또한 같은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530-7번지의 보도폭은 3.5m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업지구 530-7번지와 인접한 공업지구 535-13번지의 보도폭은 2.5m를 확인하였습니다.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구의 보도폭이 공업지구의 보도폭보다 작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상황으로 소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업지구 531-6번지의 보도폭을 3.5m 조정하여 주시는 단지의 개발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시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끝.

첨 부: 1. 문발리 530번지, 531번지 일원 보도폭 실사 자료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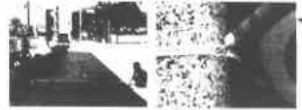


- ① -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관련서류 제출 요청
- ② - 영입(전)23202-1513 관련 회신의 건
- ③ -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18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통보의 건
- ④ - 출판도시내 상업지구 보도폭 조정 요청

## 문발리 530번지, 531번지 일원 보도폭 현황



보도폭 : 3.5m



보도폭 : 3.5m



보도폭 : 2.5m

보도폭 : 3.5m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332 3312 (사무실) 3312 (사무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사무실)  
010-3321-1955-0011 팩스010-3321-1955-0004 E-mail : pajuco@naver.com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8-176 호

2008. 10. 02.

수신 : 파주시, 교하읍, 한국토지공사

참조 :

제목 :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설계지침 설명회 참석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은 1단계 협동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  
장부, 파주시,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영화사, 출판사, 인쇄사, 소  
프트웨어 업체 등이 참여하는 2단계 협동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기관 및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 협동화 사업에 대한 추  
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및 2단계 건축 설계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자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1단계 건축에 깊이 참여하였던 김영준 건축 코디네이터 및 스페  
인 건축가 마누엘 가우사 외 1명 등 국내외 건축가들 초빙하여 2단계의 전반적인 도시 컨  
셉에 대한 주제로 발표 및 논의를 계획합니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아울러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14:00

장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영상전시홀

내용 : 출판도시 2단계 추진 현황 및 2단계 건축 설계지침 등  
도시 컨셉에 대한 중간 설명

붙임 : 설명회 진행 일정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설계지침 설명회 일정

시 간	진 행	비 고
14:00	개회	
14:10 ~ 14:20	연사말씀	
14:20 ~ 15:00	2단계 사업 경과보고 및 추진현황	이환구 상무이사
15:00 ~ 15:40	2단계 건축 설계지침 중간보고	김영준 (건축 코디네이터) 마누엘 가우사 (스페인 건축가)
15:40 ~ 15:50	입주에 따른 혜택	이환구 상무이사
15:50 ~ 16:00	질의응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332 3312 (사무실) 3312 (사무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사무실)  
010-3321-1955-0011 팩스010-3321-1955-0004 E-mail : pajuco@naver.com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8-179 호

2008. 10. 09.

수신 : 파주시청

참조 : 관행발견과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설계외견 반영 요청의 건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1단계 협동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영화사, 출판사, 인쇄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참여하는 2단계 협동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다.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은 조합원들의 합의정신인 공동성 실현 구현과 관리권  
자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파주시,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  
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이를 보다 발전시키고 부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실시설계외견 반영요청 사항,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⑤ -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설계지침 설명회 참석요청

⑥ -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설계외견 반영 요청의 건



##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구분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사항	비고
1.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			
1.1. 입지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1.2. 입지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2.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2.1. 건축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2.2. 건축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1. 토지이용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3.2. 토지이용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4.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1. 도시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4.2. 도시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구분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사항	비고
1.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			
1.1. 입지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1.2. 입지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2.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2.1. 건축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2.2. 건축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1. 토지이용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3.2. 토지이용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4.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1. 도시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4.2. 도시계획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실시계획 반영 주요 사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2-832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출판도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030)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pajucoop@nate.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8 - 0099호

2008. 11. 13.

수 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 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제 목 : 2단계 협동화사업에 대한 조합의 입장 설명 및 신속 진행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2005년부터 귀 부와 협의를 통해 영화 제작사 및 출판·인쇄업체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를 완성하여 지난 2007년 6월 27일 귀 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9월 국회 당정협의에서 합의한대로 관려된지인 귀 부로부터 추진서를 발급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획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개별사업계획을 비롯하여, 문화 및 상업시설의 통합개발, 소규모밀집 개발, 주거시설, 주차장, 도로 등 2단계 용지 전체의 효율적 이용과 접근한 산업단지 개발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여기업에 대한 입점한 실의와 수에 대한 답을 통해 귀부에 맞는 적정한 토지면적은 조정되어 꼭 불손한 생각으로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도록 협의하였습니다.

3. 이처럼 자금력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협동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귀 부에서는 지적경제부와 용지공급의 기분이 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내용 중 업무우선순위에 협동화사업 참여사와 개발참여사로 이원화하여 환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원화하여 용지를 공급하게 된다면, 1단계 개발사에서도 브신비와 같이 2단계 전체부지에 대한 제정적이고 연속적인 도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4. 특히 협동화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2008년 현재까지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자민사유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기다리는 상황에서 용지분양이 지연되고, 예상치 못한 세제적인 금융위기가 악치면서 우수한 참여업체들이 협동화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속하여 현재와 같이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면, 형성, 출판, 인쇄사들이 모처럼 뜻을 같이하여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중소

7

8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2-832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출판도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030)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pajucoop@nate.com

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을 개발참여사들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들 개발참여사들도 반드시 협동화사업계획에 동등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선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예로사항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2단계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참고로 1단계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중 "산업집적활성화및창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산업용지등의지분제한등)"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과 별도로 조합과 약속한 협동화사업을 위반한 것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불입과 같은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를 불법 매각한 업체 및 사유로 토지를 매수한 업체가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원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입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조정에 걸음은 사본 및 편인사류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2-832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출판도시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030)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pajucoop@nate.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8 - 100 호

2008. 11. 12.

수 신 :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지사

참 조 : 출판단지 담당

제 목 : 산업용지 불법 매각 업체 관련 알림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창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産業用土地 등의 지분제한 등)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귀 공단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과 별도로 우리 조합과 약속한 협동화사업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불입과 같은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1일 산업용지를 새로 취득한 업체는 조합에 출자금 및 출자분비예탁금 3천만원과 출판도시문화재단에 기부금 1천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토지를 불법 매각한 회사들은 기 납부한 출자금 및 출자분비예탁금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 입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결정은 사본 및 신규가입자료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7 - 2단계 협동화사업에 대한 조합의 입장 설명 및 신속 진행 요청

8 - 산업용지 불법 매각 업체 관련 알림

## 조합가입신청서

본인은 귀 조합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다음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제명 : 삼 삼 이 삼      ○ 사업자등록번호 : 201-15-75622  
○ 설립년월일 : 1991년 09월 10일

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206  
○ 전화번호 : 02-322-0022  
○ 홈페이지 :  
○ FAX :      ○ 이메일 :

3. 상근종업원 수 : 남 8명, 여 5명      계 : 13명

4. 자산 총액 : 17억 원

5. 보유차량 대수 : 3 대

6. 주요시설현황 : 인쇄관련시설의

7. 주요원자재명 (배당업체) :      ○ 판매 실적 :      원

8. 주요생산품목 : 서적의 인쇄관련      ○ 연간매출액 :      원

9. 조합 및 단체가입현황 : 없음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소개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도서목록      1부

※ 가입 시 납부금 : 출자금 및 출자준비예탁금 3천만원

2008년 10월 30일

사업제명 삼 삼 이 삼  
대 표 이 일 성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귀중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 16 -

## 조합가입신청서

본인은 귀 조합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다음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제명 : 예 일 정 관      ○ 사업자등록번호 : 201-19-64399  
○ 설립년월일 : 1987년 04월 15일

2. 주 소 : 서울시 중구 광무로 37-25-18  
○ 전화번호 : 02-2269-9610  
○ 홈페이지 :  
○ FAX : 02-2269-9611      ○ 이메일 :

3. 상근종업원 수 : 남 2명, 여 2명      계 : 4명

4. 자산 총액 : 30억 원

5. 보유차량 대수 : 3 대

6. 주요시설현황 : 출판관련시설의

7. 주요원자재명 (배당업체) :      ○ 판매 실적 :      원

8. 주요생산품목 : 서적의 인쇄관련      ○ 연간매출액 :      5억 원

9. 조합 및 단체가입현황 : 없음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소개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도서목록      1부

※ 가입 시 납부금 : 출자금 및 출자준비예탁금 3천만원

2008년 10월 30일

사업제명 예 일 정 관  
대 표 이 진 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귀중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 17 -

## 조합가입신청서

본인은 귀 조합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  
입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제명 : 프리벨미디어(주)      ○ 사업자등록번호 : 220-81-41695  
○ 설립년월일 : 1997년 1월 7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0-2      ○ 전화번호 : 02-3450-5400      ○ 홈페이지 : www.froebel.co.kr  
○ FAX : 02-3450-5409      ○ 이메일 : dkim@froebel.co.kr

3. 상근종업원 수 : 남 12 명,      여 12 명      계 : 24 명

4. 자산 총액 : 42,234,640,214원

5. 보유차량 대수 : 4대

6. 주요시설현황

7. 주요원자재명 (배당업체) :

8. 주요생산품목 : 교재(서적), 프로그램      ○ 판매 실적 :      원

9. 조합 및 단체가입현황 : 대한상공회의소      ○ 연간매출액 : 30,135,701,302원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출판등록증 사본 포함)  
□ 회사소개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도서목록      1부

※ 가입 시 납부금 : 출자금 및 출자준비예탁금 3천만원

2008년 10월 29일

사업제명 : 프리벨미디어(주)  
대 표 : 황 영 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귀중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 18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17 민 사 부

### 조정예 기울어하는 결정

- 사 건 2007가합7333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대표자 이사장 이기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 고 1. 주식회사 두비  
서울 중구 정동 11-3  
대표이사 서경권  
2. 세력정밀인쇄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3-30  
대표이사 최일  
3. 주식회사 유라텔릭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  
대표이사 엄태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반성환

.....



- 19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사항

1. 피고 주식회사 두비는 소의 프리팹미디어 주식회사에게,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는 소의 이일성(상상이상 대표)에게, 피고 주식회사 유라엘텍은 소의 이진호(에일정관 대표)에게 2008. 10. 31.까지 각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시키고, 원고 조합은 이를 승인한다. 다만, 지위 승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위 승계일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2. 피고들은 제1항에 정한 기일까지 소의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에게 기부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출연한다.
3. 위 프리팹미디어 주식회사, 이일성(상상이상 대표), 이진호(에일정관 대표)의 원고 조합에 대한 각 출자금반환청구권(각 30,000,000원)에 대해서는, 프리팹미디어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두비에게, 이일성(상상이상 대표)은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에게, 이진호(에일정관 대표)는 피고 주식회사 유라엘텍에게 각 청구권을 양도하고, 원고 조합은 이를 승낙한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기존 출자금반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5. 제1, 2, 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정에 관여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2008. 10. 1.

- 20 -

고 주식회사 유라엘텍 155,984,933원) 및 주위력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별 이행각시에 다른 피고들의 건축 시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피고 주식회사 두비 19,904,864원,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 80,361,281원, 피고 주식회사 유라엘텍 22,234,870원) 지급 청구

2008. 10. 1.

재판장	판사	김영태
	판사	이선미
	판사	김경현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08. 10. 1.

- 22 -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의 표시

#### 1. 청구취지

주위력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두비는 230,046,074원율,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는 652,355,211원율, 피고 주식회사 유라엘텍은 185,699,426원율 각 지급받을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두비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20.자 이행각서상의,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26.자 이행각서상의, 피고 주식회사 유라엘텍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8.자 이행각서상의 각 반환과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두비는 372,564,373원,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는 526,744,037원, 피고 주식회사 유라엘텍은 178,219,8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청구원인

주위력 청구 :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면서 체결한 주위력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별 이행각서상의 반환과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예비적 청구 :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부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른 손해배상금(피고 주식회사 두비 352,659,509원, 피고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 445,382,756원, 피

2008. 10. 1.

- 21 -

### <별지>

#### 목 록

1.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7-3 공장용지 903㎡
2. 같은 리 520-5 공장용지 2,711.5㎡
3. 같은 리 507-13 공장용지 727.9㎡. 붙.

2008. 10. 1.

- 23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000 2775 2775 277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3층)  
전화 031-275-2775 팩스 031-275-2775 E-mail pajucoor@naver.com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8 - 107 호

2008. 12. 02

수신 : 조합원

참조 :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월 제8-25호(2008.11.25.)와 관련하여.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은 한강유역권 경제에서 협력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같이 배출자(입주사)가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4. 이에 2004년 7월 (주)경원산업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및 설치승인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양당시 한국토지공사의 부지매각조건으로서 분양 후 5년 이내(2009년 8월)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여 가동하지 않으면 분양받았던 대지를 한국토지공사측에 환수토록 판매택약하기 되어 있어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본 때 전량을 시 두르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5. 우리 조합에서는 (주)경원산업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과 건립이 조속하고도 계획감 있게 추진되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주)경원산업은 아태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6. 그럼으로, 가능한 한 모든 조합원들이 참석하시어 이번 사업설명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올바른 이해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적기에 건립되고 폐기물의 처리가 최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태

강제조정결정(결정조서)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정 본 입 니 다.

2008.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황 승



민소 제162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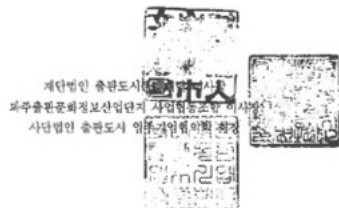
2-139

- 24 -

반하여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경우 귀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귀사에서 우리 출판도시를 비롯, 책의미래미술, 영아마을, 임천리 평화누리공원 등 명품문화도시로 걸맞는 도시개발 및 건축, 경관정책 등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주변경관과의 조화있는 개발에 귀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발주체들을 관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1. 출판단지 인접 가구단지 공사현황사진 1부.  
2.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장  
(경유)

참 조 :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협조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출판단지조립 2008-31호(08.4.18)와  
관련합니다.

2. 귀 조합에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발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본 산업  
단지 인허가 및 제 영향평가(변경) 협의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속 설치·가동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관련절차 이행과 관련, 동 시설설치 공동  
주체인 귀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길 10 (남대문로1가길 10) 10층 1001호  
전화 02-644-3852 전수 031-944-8049 / www.klplus.or.kr / klplus@klplus.or.kr

시행 서울지역본부-11550 ( 2008.05.13. ) 접수  
우 415-9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신흥리 637 / http://www.klplus.or.kr/  
전화 031-944-3852 전수 031-944-8049 / klplus@klplus.or.kr / 공계



## 파주시

수신자 파주시 관내 전사업체 귀하  
(경유)

제 목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협조요청

1.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계청 및 파주시에서는 관내 전사업체에 대한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각  
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 3. 17.  
~ 4. 9. 기간에 파주시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이 조사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통계로서 통계자료 제출을 요  
구 또는 직권(통법 제25조)할 시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통법 제33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귀 업체를 방문할 시 올바른 국가 및 파주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기업운영에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더불어 조사결과서는 정부·파주시는 물론 파주시민 모두가 폭넓은 시·일 내에 어필할  
수 있도록 2008년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끝.

## 파주시



\* 파주시청소재지 : 031-940-1442 / 파주시청소재지 : 031-940-1442 / 파주시청소재지 : 031-940-1442

파주시청소재지 : 031-940-1442 / 파주시청소재지 : 031-940-1442 / 파주시청소재지 : 031-940-1442

시행 기획예산과-2941 ( 2008.03.07. ) 접수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8(아름다운 215번지) / http://www.pajuro.net  
전화 031-940-1442 / 전수 031-940-1442 / yeon7964@pajuro.net / 공계

세계인의 감성을 깨울 한국의 문화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

## 문화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세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1.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07.7.19 제정된 인세문화산업진흥법( ' 08.1.20 시행)의 제11조 규  
정에 따라 인세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인세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다음  
과 같이 구성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귀 기관 및 단체에 동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2008.2.29(금)까지 동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인세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개요
  - 위원 : 10인 이내
  - 임기 : 위촉일로부터 3년(2008.3 - 2011.3)
- 후보자 추천 시 참고사항
  - 위원 후보 추천 시 기간, 단체별 1-3명까지 추천 가능(정부 자료 참조)
  - 여성 후보 적극 추천(정부위원회 관리지침에 따라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 해당 단체를 추천하여 위원 위촉 시, 해당 단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  
단체장이 위원직을 승계

### ○ 추천명석

성명 (한자)	생년월일 (양력)	현재직	박 학	주요 경력	연락처	비고
0 0 0 (0 0 0)	00.00.00 (남녀)	00직장	00고 졸업(00년) 00대 졸업(00년) 00원 졸업(00년)	00사 대표(00년~00년) 00대 대표(00년~00년) <포상내역> 00표창 수상(00년)	사무실: 주최로: 이메일:	단체대표 연락처 등

## 문화관광부장관

수신자 대한인세문화진흥위원회, 대한인세문화산업진흥위원회 이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문화재단, 대한문화연구소, 한국인  
사학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부 고안세발관, 서울인세문화진흥센터

문부 62/14

시행 출판산업과-402 ( 2008.02.15. ) 접수  
우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전화 3704-9639 전수 3704-9399 / grand@net.go.kr



- 1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협조요청
- 2 -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협조요청
- 3 - 인세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붙임>

## 인쇄문화진흥위원회 후보 추천 기관(안)

기관명	분야	비 고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단체	단체 대표 : 1명 업계전문가 : 2명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인쇄단체	단체 대표 : 1명 업계전문가 : 2명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단체	단체 대표 : 1명
대한인쇄연구소	전문가	단체 대표 : 1명 업계전문가 : 1명
한국인쇄학회	학 계	단체 대표 : 1명 학계 대표 : 1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	인쇄단지	단지 대표 : 1명
청주 고인쇄박물관	직지, 고인쇄	고인쇄 전문가 : 1명
서울인쇄정보센터 인쇄수출진흥협의회	인쇄수출	수출전문가 : 2명
관련 연관 단체 및 전문가	전문가	
우리부 인쇄물	전문가	

##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계획

### □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 설치목적 :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자문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안)

-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 구성 : 인쇄문화산업진흥법(08.1.20 시행)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운영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 제13조
- 위원 위촉 : 10인 이내(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
  -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 인쇄 및 출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 인쇄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위 원 장 : 위원중에서 선임
- 위원임기 : 3년(연임 가능)
- 위원 위촉 방침
  - 관련 기관 및 단체, 협회로부터 위원 후보 추천 접수 및 우리부 인쇄물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촉(단체별 1~3명 추천)
  - 위원중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
  - 인쇄 출판단체의 신규 임원 선임이 완료되는 '08년 2월말까지 후보자 추천접수

### □ 향후 추진 일정

-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접수 : 2월 말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3월 중

'세계 최고 도시 서비스 기업'



## 한국토지공사

수신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관련서류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출판단지조항 제2008-9(08.2.12)호  
관련합니다.

2. 귀 조합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서울지역본부-39954(07.12.28)호  
봉으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조성원가 관련 내역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귀 조합에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세부자료 제공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조합에서 요청하고 있는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세부자료 제공  
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외 제공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공사는 귀 조합과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세부자료 제공의 범  
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여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장소 : 서울지역본부 부속 집합소

참조 : 서울지역본부 부속 집합소

시행 : 서울지역본부-4081 ( 2006.02.20. )

우 : 125-651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1

전화 : 02-556-7123 전수 : 02-550-7079

팩스 : 02-556-7123 전수 : 02-550-7079

/ http://www.kpl.or.kr /

/ cool@kpl.or.kr / 공계



목적요 ! 윤리경영, 열어요 ! 무형사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신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대표

(경유)

제 목

파주출판단지 2단계 입주자 자체모집에 관한 주의

1. 귀 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은 영화제작사,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  
단지 (이하 파주출판단지) 2단계사업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단지내 사업계획  
수립 등 자체적인 활동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기관으로  
서 관리운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3. 파주출판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토  
지공사에서 조성하여, 관리권자인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우리 공단에서 관  
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4.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하 산입법)' 제33조에 의하여, 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체  
의 자격, 산업단지의 업종별 공정의 배치 및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이에 대한 행정절차로서 동법 제38조에 의거, 우리공단과 「산  
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한 적법한 입주기업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귀 조합이 모집중인 회원사가 산업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입주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  
고하시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4 -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관련서류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5 - 파주출판단지 2단계 입주자 자체모집에 관한 주의

## 제 목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의 검토결과 통보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토지 이용계획, 설치기동계획 등)이 수립되어 전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철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끝.



제 목 기업애로 파악 협조요청

출판 : 기업애로해탈 작성양식 1부, 3부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8 파주시청(별관3층) / <http://www.pajuro.net>  
전화 031)940-4472 / 전송 031)940-4739 / [envyuro@pajuro.net](mailto:envyuro@pajuro.net) / 비공개(5)

전화 02-2110-4653      전승 02-503-0173      / 14900@nke.go.kr      / (한국농악)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



##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사업 보상계획 공고...내달 착수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원 파주 출판산업단지가 출판인쇄를 기반으로 한 문화중심지로 집중 육성된다.

한국토지공사는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 오는 28일까지 보상계획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단계사업에서는 총 20만2000㎡의 산업시설용지를 출판인쇄업,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출판유통시설업으로 유치한다. 토지공사는 이번 보상계획에 따른 열람을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031)940-3822

정수영 기자 jso@

## “푸른 5월엔 책이랑 놀자”



국내의 대표적인 어린이책 축제인 '2008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

잔치'(pajubfc.org)가 3~7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전시와 작가와의 만남, 공연과 구연동화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볼 만한 전시회로는 레오 레오니, 에즈라 잭 키츠 등 유명 그림책

## 파주 어린이책 잔치 내일부터 5일간 풍성

작가의 서양고전그림책 전시회, 1970~80년대 명작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특별전, 신간 그림책의 아트프린팅 전시회 등이 있다.

1940~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전, 고지도 전시회, 사슴벌레 표본 전시회, 목활자 고인쇄 체험전 등도 가볼 만하다. 학부모들의 그림책 공부모임인 '꿈지기'가 준비한 종이인형극 '제가 잡아 먹어도 될까요?'와 <준치가시><새앙쥐와 태엽쥐><마녀위니> 등을 주제로 한 구연동화도 눈길을 끈다.

작가와의 만남행사로는 <안녕, 스펙나무>의 저자 하은경씨(3일), <궁녀 학이, 무덤 속의 그림>의 작가 문영숙, 이승원씨(4일), <멋지다, 썩은 떡>의 작가 송언씨(5일) 등과 만날 수 있다. 참여 행사로는 홍길동을 소재로한 제1회 전국 어린이 동화그림 대회(5일), 온가족 OX 퀴즈대회, 아빠탁구대회 등도 열린다. 문의 (031)955-0063.

이왕기기자 fab4@hk.co.kr

①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사업 보상계획 공고... 내달 착수 - 아시아경제, 2008. 08. 13

② "푸른 5월엔 책이랑 놀자" - 한국일보, 2008. 05. 02

## 푸르른 자연과 어우러진 개성만점 건물 ‘눈길’

꽃 축제가 지나간 파주 출판문화단지. 축제의 흥겨움이나 북적이는 인파는 없지만 주말 파주 출판단지와 부근 심학산 물긱이는 아직 시들지 않은 야생화와 초여름 꽃 나들이를 온 가족들로 평온하다.

파주 출판문화단지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산업단지로서도 빨리 성장하지 못했고, 헤이리의 명성에 밀려 나들이 장소로도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은 성장은 더디지만 자신만의 향기를 간직한 산업단지로, 나들이 장소로 면모를 갖추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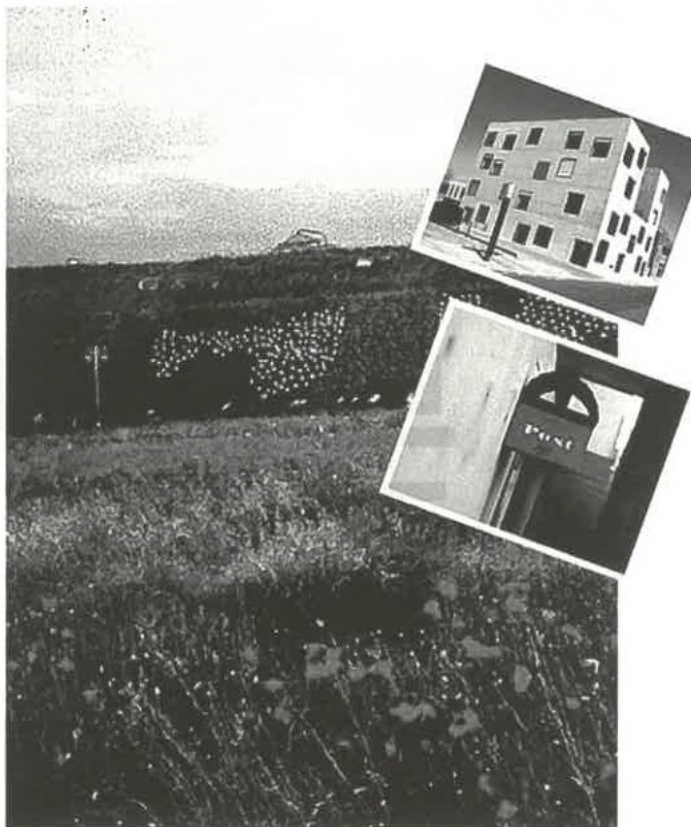
파주 출판문화단지에 들어서면 담도 없고, 간판도 없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들의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뤄 이곳만의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 냈다.

이 조화로움 뒤에는 출판문화단지 조성 초기인 2000년 말 건물주와 건축가들이 사옥 건축은 회사별로 하되, 각 회사는 도시 전체의 조형미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에피소드가 숨어 있다.

계약서에 따라 건물의 재질, 높이, 색깔 등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다리와 가로등에도 생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출판업계들이 기준 조항에 반발도 했지만 결국은 물 안에서 자신들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해답을 찾아냈다. 생태환경을 고려하려는 노력 덕분에 출판단지에서 심학산 들긱이에 이르는 길은 건물과 자연이 부드럽게 연결된다. 이어지는 길에 국내 최초의 타운하우스인 헤르만하우스에 입주한 주택은 또 다른 볼거리다.

단지 내에 있는 멀티플렉스 씨너스는 주말에 한적하게 영화 관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다. 9개 관은 규모는 작지만 최신 영화를 상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주말 최신 인기작 예매를 못했을 때 이곳을 찾는다면 심중팔구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주말 출판단지 나들이의 아쉬움은 구내식당이 대부분이어서 먹거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 이 때문에 이곳을 찾으려면 도시락을 준비하



파주 출판문화단지는 건물들과 생태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뤄 새로운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거나 일산이나 헤이리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늦은 오후 나들이를 하는 것이 좋다.

이수윤기자 pero@

자연·건축·문화 어우러진 파주출판도시

# 세계 건축축제로 선보일 것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커미셔너 승효상 이로재 대표

“세계 건축 축제인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 자연과 건축·문화가 어우러진 파주출판도시를 선보이고 오겠습니다.”

제11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커미셔너를 맡은 승효상(56·사진) 이로재 대표는 16일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같이 밝혔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는 ‘건설을 넘어선 건축 (Our there, Architecture Beyond Building)’. 건축이 건물만 짓는 행위를 넘어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실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시다.

한국관을 총괄 기획하는 승씨는 “우리의 과거 산도시는 정치와 경제 권력의 야합으로 형성되는 기현상 속에 있었지만 파주출판도시는 정치와 자본 논리를 배제하고 출판인과 건축가가 중심이 돼 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산도시로 만들었기에 의미가 있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시관 제목은 ‘컬처스케이프, 여기 파주출판도시’로 붙였다. 국가산업단지인 출



발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출판인과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다원성, 생생한 문화 현상을 담은 풍경들을 전시관에 담아 낼 계획이다.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랜드마크가 상징이 되는 도시가 아닌, 삶의 방식 자체로 표현되는 도시, 체

움보다 비움에서 공공의 가치를 꿈꾸는 도시를 보여주겠다”며 “28만명의 현재 파주출판단지가 조만간 26만명 이상 두 배 규모로 확장될 ‘2단계 변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전시로 그 의미를 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형성될 산도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주출판단지는 건축·도시·예술·경제 등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져 고유의 문화색을 드러내는 지역으로 한국의 기존 도시 건설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이를 표현할 전시장장은 공간·책들·목소리 의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파주출판도시의 현재 모습, 그 속을 채운 문화 콘텐츠인 책들, 그리고 이를 일궈낸 사람들의 생각이 영상과 설치 형식으로 꾸며진다. 건축사학자인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건축가인 최문규 연세대 교수가 전시구성 큐레이터로 협력한다.

지난 1895년 처음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는 1980년부터 건축전과 미술전이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애런 베히치가 총감독을 맡아 베니스 지아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에서 오는 9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열린다.

/조상인기자 ccsi@sed.co.kr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테마는 ‘파주출판도시’

커미셔너 승효상 씨 “비움의 가치 세계에 알릴 것”

“파주출판도시는 정치와 자본의 논리가 최대한 배제된 산도시입니다. 집단적인 창작 행위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도 조명받아야 할 점이지요.”

2008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의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은 건축가 승효상(56·이로재 대표·사진) 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될 한국관 테마를 파주출판도시로 정했다”며 “똑같은 얼굴로 반복되고 있는 산도시 건설에 대해 반성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건축전시회. 11회째인 올해는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바깥, 건물 너머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승 씨는 “파주출판도시는 랜드마크 상징으로

내세우는 도시가 아니라 ‘비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라며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져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도시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국관 전시에는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최문규 연세대 건축학과 교수, 이기웅 열화당 대표, 플로리안 베이겔 런던메트로폴리탄대 교수 등이 협력 전시자로 참여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④ 세계건축 축제로 선보일 것 - 서울경제, 2008. 07. 17

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테마는 ‘파주출판도시’ - 동아일보, 2008. 07. 17

## “파주출판도시, 유례없는 문화공동체”

승효상 건축가 “베니스건축전 한국관 주제로 딱”

“파주출판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유례없는 새도시입니다. 건축·도시·예술·환경·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의 아이디어를 담은 계획도시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11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은 건축가 승효상(사진·이로재 대표)씨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컬처스케이프, 여기 파주출판도시’를 한국관의 주제로 삼

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건축이란 건축가의 생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죠. 그런 점에서 파주는 건축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2008 비엔날레의 총괄 주제인 ‘저기 저 밖에, 건물을 넘어 건축을’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1단계 건설 과정을 진단하고, 앞으로 있게 될 2단계 확장의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비엔날레 한국관은 장소, 책, 목소리 등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장소'에서는 항공사진과 영상을 통해 도시 조성 과정과 의미, 특징

등을 보여준다. '책'에서는 출판도시에서 생산된 수천 권의 책으로 출판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목소리'에서는 도시 건설 관계자 30~40명의 인터뷰를 20개 화면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65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베니스 자르디니 카스텔로 공원과 아르세날레에서 9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열린다.

글·사진 임종업 선임기자 bitz@hani.co.kr

6

### 파주출판단지 2단계 착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출판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단계 사업지는 총 68만6000㎡로 출판 인쇄업,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상업업무, 문화 시설과 생태자연 유수지, 수로가 조성된다.



7

⑥ “파주출판도시, 유례없는 문화공동체” - 한겨레, 2008. 07. 17

⑦ 파주출판단지 2단계 착수 - 매일경제, 2008. 08. 13



## 파주는 지금 책향기에 휩싸여... 출판단지서 2008 '북쇼'

파주 출판도시에서 가을 책잔치 '2008 북쇼'가 18일 개막했다. 방송, 전시, 공연 행사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책 축제로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11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축제에는 가족과 함께 책, 그리고 가을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리 책과 출판의 근현대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회 '북쇼'전은 출판도시 한가운데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다. 대동여지도의 대형 원본과 춘향전 관련 고출판자료 등을 볼 수 있다. '님의 침묵' '혈의 누' '서유견문' 등의 희귀 초판본도 만날 수 있다. KBS 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에서 소개됐던 책과 방송내용, 명사와 스타들이 추천한 책도 함께 전시된다.

출판도시 전체를 무대로 '저자와의 만남' '스타와 영화, 책을 말하다' '무박 2일 12시간 책읽기' '인문문화 토론



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국 도서 보급운동, 아름다운재단 모금 캠페인 등 의미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유상호기자

회' 등의 일반 관객 참여행사도 열린다. '클래식 오딧세이' 등 KBS 주요 음악 프로그램의 공개녹화도 진행된다.

100명의 CEO와 함께 하는 특별 강연은 27일 예정돼 있다. 축제 기간 수시로 현 책 현장 교환 및 자선 경매 행사도 열린다. 다문

## 성장 멈춘 출판산업 활로 찾는다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의 앞길을 찾는 자리가 파주에서 마련된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아시아 출판의 미래: 경쟁 속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제3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을 19~21일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연다.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서명담당 편집이사 루이자 어멜리노(미국), '출판뉴스' 대표 키요다 요시아끼(일본), 국제서점연맹 회장 칼 퍼스(오스트리아) 등 10개국 30여명의 출판 전문가들이 참여해 ▲ 아시아 출판의 세계화 전략 ▲ 오프라인 서점 회생운동 방향 ▲ 각국 출판업계 현황 등을 논의한다.

루이자 어멜리노 이사는 발표문 '아시아 출판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통해 하나가 되어 가는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조망한다. 그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선 상황에서 모두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판업의 미래를 짚는다. "정성껏 손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수제품 가게가 인기를 끌 듯, 책도 같은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야기가 훌륭한 책,



제2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행사로 열린 전시회.

새롭고 흥미로운 책이 살아 남는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일본의 자유기고가 다테노 아키라는 국경을 넘는 공동 출판기획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는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일본 책들의 공통점을 '적당한 가벼움'과 '재미 있는 스토리 전개'로 규정하고,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교양서와 인문·사회과학서 등의 출판 전략을 고민한다. "기획·구상 단계에서부터의 공동 작업을 통해 종래 불가능했던 장르까지 취급할 수 있고, 제작·유통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럼 기간 동안 색다른 전시 행사도 진행된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국의 젊은 북디자이너 20인전'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갤러리 지지향에서 열린다.

다. 강찬규, 공미경, 김민정 등 주목받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파주출판도시 출판사들이 지난 1년 동안 출간한 책 가운데 스스로 고른 대표작을 소개하는 '여기, 북시티의 자존심전'도 함께 열린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⑧ 파주는 지금 책향기에 휩싸여... - 한국일보, 2008. 10. 21

⑨ 성장 멈춘 출판산업 활로 찾는다 - 한국일보, 2008. 11. 19

## 2009년

### 출판도시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다

4월, 국무총리실의 규제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의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평가 규정고시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2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앞서 '문화주의 선언'을 하는 기공식이 범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와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기획예산처에서 출판도시 중기 사업계획호기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다.

5월 환경부 李萬儀 장관을 초빙하여 '출판도시 환경보전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위원회 구성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동월에 LH공사가 발주한 2단계 기반시설 공사 입찰 결과, 대림종합건설(주)에 254억 원으로 낙찰되어 2012년 5월까지 3년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6월에는 金文洙 경기도지사가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출판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산업용지 공급 공고(안)에 대한 업무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2월에 상업업무시설용지 분양공고를 불시에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권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최종 낙찰자로 롯데쇼핑이 결정되었다. 이후 출판도시 정체성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졌다.

# 2009년

## 2009년 주요행사

01. 10	사업계획 관련 공공문화시설 건립 간담회
02. 05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차관을 방문
02. 24	제19차 정기총회
02. 24	1단계 조합원 간담회
03. 26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추모행사
05. 01	어린이책잔치 2009
05. 18	출판도시 환경보전 세미나
06. 16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
06. 26	2단계 건축설계지침 1차 세미나
07. 20	출판도시 활성화 사업보고 및 회원들의 밤
09. 11	세 단체 임직원 워크숍
10. 07	제23회 책의 날 기념식 참가
10. 26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행사
11. 05	이기웅 이사장, 김문수 도지사 면담
11. 19	제4회 2009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11. 27	제5회 2009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12. 02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국회의원 출판도시 방문
12. 21	2단계 상업업무시설용지 분양 입찰 설명회
12. 29	출판도시 송년의 밤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



❶ 2009. 01. 02 가족년 사무식



❷ 2009. 01. 20 박贊郁 감독,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과 2단계 기반시설 추진 요청 미팅





③ 2009. 02. 19 국무총리실 경제규제 심의관실 정훈 제1심사과장, 김기출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최장한 사무관 등 출판도시 방문



④ 2009. 04. 03 산업용지 재배정 관련 설명회 개최



⑤ 2009. 04. 21 선진습지관리 사례발굴 일본습지 시찰 참가



⑥ 2009. 05. 01 2009 어린이책잔치 개막식



⑦ 2009. 05. 05 출판도시 항공촬영



⑧ 2009. 05. 07 전남 보성 우암마을 일대 답사





9 2009. 05. 18 출판도시 환경보전 세미나 개최







⑩ 2009. 06. 05 KBS 출판도시 촬영



11 2009. 06. 16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간담회 개최



12 2009. 06. 26 2단계 건축설계지침 1차 세미나 개최



⑬ 2009. 10. 14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미디어정책국장, 김은희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등 출판도시 방문



14 2009. 10. 26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행사



15 2009. 10. 30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반기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 대회 및 대변인 워크숍 개최



16 2009. 11. 19 제4회 2009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17 2009. 11. 27 제5회 2009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개최



18 2009. 12. 02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및 이광재 국회의원 출판도시 방문

## 인쇄 발간된 자료

---



# 2009년도 제19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 ◎ 일시 : 2009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 ◎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8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8년도 결산보고서	49
4. 2008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89
5. 감사보고서	93
6.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97
7. 2009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101
8. 2009년도 사업계획서(안)	105
9. 2009년도 수지예산서(안)	133
10.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143
11. 2009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147
12.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51
13. 임원(감사) 선임의 건	155

## 제19차 정기총회 회순

### —. 성원보고

### —. 개회선언

### —. 국민의례

### —. 개 회 사

### —. 축 사

###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 제18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 보고사항

#### 1. 2008년도 사업보고

#### 2. 감사보고

### —. 의안심의

#### 1. 2008년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08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승인의 건

#### 3.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4. 2009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 5. 2009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 6. 2009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 7.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 8. 2009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 9.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10. 임원(감사) 선임의 건

### —. 폐회

---

이만의 환경부장관 초청, 파주출판도시 - 환경보전 세미나

---

## 생태환경도시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 일 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후 5시
- 장 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벤트홀

---

### ● 주제발표

김 영 준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출판도시 건축코디네이터)

- 파주 출판도시 조성의 생태적 지향

이 상 우 (평화당인쇄(주) 대표, 출판단지조합 이사)

- 생태환경도시 내 인쇄공장

정 지 웅 (한강·임진강 습지사업단 팀장)

- 파주출판도시, 생태환경도시를 위한 과제와 전망

### ● 토론자

최 정 권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조 양 근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실장)

### ● 우리정부의 환경정책과 출판도시에 관하여

이 만 의 (환경부장관)

---

**주최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파주시**

## 차 례

I. 배경과 목적 .....	2
II. 세미나 개요 .....	3
III. 세부진행일정 .....	4
IV. 출판도시 현황 .....	5
V. 자연생태환경 보존활동 .....	13
VI. 주제발표	
● 제1주제 : 파주 출판도시 조성과 생태적 지향 .....	23
● 제2주제 : 생태환경도시 내 인쇄공장 .....	35
● 제3주제 : 파주출판도시, 생태환경도시를 위한 과제와 전망 .....	39

## I. 배경과 목적

- 파주출판도시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인 국가산업단지로서, 입주 주체들이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설계지침, 조경지침, 옥외광고물지침 등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잘 어우러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출판도시 주변지역은 두 강이 합류하는 천혜의 자연생태 보고임.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여 서해에 이르는 거대한 강 하류의 저습지로, 철새 도래지이며 갈대군락 등 전형적인 강변습지 식생이 나타나는 곳으로, 환경 친화의 생태도시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때문에 출판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갈대샛강과 유수지를 자연 그대로 보호, 보전하는 일이었음.
- 이처럼 갈대샛강의 생태 보호, 보전을 도시의 성패를 걸고 최선을 다한 결과, 갈대샛강에는 현재 여러 수생식물의 군락지가 형성되었으며, 각종 민물고기, 너구리와 족제비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도래지가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합은 출판도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생태환경도시라는 출판도시 조성목적을 더욱 구체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건축설계지침 마련과 그린위원회 구성을 통한 에코시티 추진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출판도시 2단계 사업 기공식을 앞둔 시점에서 파주출판도시 조성의 생태적 지향과 파주출판도시 습지보전의 과제를 확인하고, 문화와 생태가 만나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생태환경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파주출판도시의 생태계 보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출판도시 및 환경관련 관계자들을 모시고 환경보전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II. 세미나 개요

- 주최 :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문화재단
- 후원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파주시
- 주제 : 파주출판도시의 생태계 보전 방향  
(부제 : 파주출판도시의 생태적 발전, 그 과제와 전망)
- 일시 : 2009년 5월 18일(월) 17:00~18:00
- 장소 :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벤트홀
- 참석대상 : 환경부장관 및 관계공무원,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장, 출판도시  
조합원 및 입주사, 출판도시 및 환경관련 관계자
- 주제발표자 :
  - 김 영 준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출판도시 건축코디네이터)
    - 파주 출판도시 조성의 생태적 지향
  - 이 상 우 (평화당인쇄(주) 대표, 출판단지조합 이사)
    - 생태환경도시 내 인쇄공장
  - 정 지 응 (한강-임진강 습지사업단 팀장)
    - 파주출판도시, 생태환경도시를 위한 과제와 전망
- 토론자 :
  - 최 정 권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조 양 근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실장)
- 장관말씀 :
  - 이 만 의 (환경부장관)
    -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과 출판도시에 관하여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9-25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주택건축과장

제 목 : 출판도시 인접 가구단지 개발관련 회의 소집 협조 요청

2009. 4. 13.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출판단지조합 제2009 - 24호(2009. 4. 13.) 편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도시는 독목하면서도 조화로운 환경을 갖춘 문화 도시로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도 성공적인 평가와 더불어 수많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 문발리 519-2번지와 인접한 지역에 가구주 분단지공사가 발원한바에 관하여 울산도시의 경계와 조화,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조립식 판별 공병으로 감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의 구비된 협의의 정신을 통해 사업계 조성해 온 울산도시의 조화로운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가 추구하는 친환경 최첨단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단지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출판도시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귀 시가 주체가 되어 가구단지의 집행부 및 설계자와 출판도시 집행부, 입주기업협의회 집행부, 참여건축가, 조경전문가, 사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출판단지 인접 가구단지 공사현황사진 1부.

2.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반하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경우 귀 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귀 시에서 우리 출근도시를 비롯, 해외에세움과, 영 어마을, 일진과 평화누리공원 등 병행문화도시에 건넌 도시발전 및 건축, 경제경제 들 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주변환경과의 조 화있는 개발에 귀 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발주체들을 관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1. 출판단지 인접 가구단지 공사현황사진 1부.

2.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스 시 · 퍼즈시자

경기도 파주시 이동동 215

발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9-24호

2009. 4. 13.

수 신 : 외주시장

참 조 : 건설교통부장

제 목 : 파주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읍판단지조할 2008-055호 (2008. 8. 5.)와 관련입니다.

국 시제도 잘 아시는 배와 같이 출판되는 입국추진활동이 뜻은 모아  
 춘천도시 구성의 모든 열성적인 공동성 실현을 위해 도시 내 「건축지침령」을 자  
 격적으로 아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문관」을 내놓았습  
 니다. 이처럼 특색있는 도시조화를 환경을 담은 문학과도시 출판되는 그동안  
 의적으로 구성된다는 평가와 같은 수많은 문화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  
 도시에 대한 권원간의 깊은 이해와 성실한 일정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무엇보다 귀  
 사에서 자책간담의외견을 구성하여 도시 내 모든 것이 일제히 진행되는 한미교류  
 경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등 아낌없는 권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곧 출판되는 1단계 사업부터 내 물고기 519-2번지와 인접한 지역  
에 가구용품단지가 조성하되 불타고나갈 같은 출판사의 조피나 명품가구점 등을 조합하는  
귀의 성지 등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해는 조피의 딸을 조합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함의 정진사를 통해 어떻게 조성에 온 출판사의 조피로  
온을 성직자로 해는정사할 것을 뿐만 아니라 귀의 성지 주주라는 친환정 출판사 출판  
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간 몇 차례  
검정 가구용품단지의 건축을 모한 일정한 출판사의 조피로써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  
의전자를 거쳐 조성에 주실 것을 귀의 성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회가 전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출판도시와의 조화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병풍문화도시를 지향하

이 부록은 2009-04-14  
제 3432212003006호에 의하여  
내국환영부금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  
리므로국립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9 - 032호  
수신 : 환경부 장관  
참조 : 비서관장  
제목 : 출판도시 생태환경도시 완성

2009. 5. 8.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20여년을 추진해온 파주출판도시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지인 국가산업단지로서, 입주 주체들이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설계지침, 조경지침, 옥외광고물지침 등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잘 어우러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출판도시 주변지역은 환경과 임업전, 미생물이 함포하여 시체에 이르는 거대한 강 하류의 저지대로, 전체 도래지역이 갈대군락 등 전형적인 강변습지 식생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생태도시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판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갈대갯강과 유수지를 자연 그대로 보호, 보전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한때망의 생애 보로, 보전을 도시의 생애를 깊고, 회원을 다한 것  
과, 갈대지에서는 현재 어우 수생물의 근간지가 형성되었으며, 낙동 밑으로, 나무와  
죽에다 물 아랑땡들의 서식지, 조개를 따라 수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남쪽으로는 도래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애에서 우리 지역은 출근도시 1단계 지대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지어왔던 생애경관도시에는 출근도시 조망목적의 나무 구제화하고 내일  
이제 추진하기 위해 한강정적인 건축내지까지 마련과 그린원림의 구상을 통한 예로써 추  
진 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과주출판도시, 생태환경도시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가제라는 주제로 출판도시 및 환경관련 관계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환경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정관님을 초청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09년 5월 18일(월) 17:00

(※ 5월18일~5월21일 장관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장 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붙임 : 과주출판도시 환경세미나 기획안 1부, 끝.



피루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

- ▶ 개회인사 : 이기용 광주출판도시 이사장
- ▶ 격려인사 : 이만의 환경부장관
- ▶ 참석자 소개 : 박영륜(박영출판도시 대표)
- ▶ 주제발표
  - ▶ 김영준(건국학, 출판도시 건국코디네이터)
    - ☞ 광주출판도시 현황 소개 및 (1단계)조성의 생태적 지형
  - ▶ 최정권(경원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교수)
    - ☞ 광주출판도시 습지보전의 과제
  - ▶ 지윤근(한강-임진강 습지사업단 단장)
    - ☞ 문화와 생태가 만나는 도시 비전
- ▶ 자유토론
- ▶ 폐회

## • 진행 시간표

10분	슬라이드 상영	식전 상영
5분	환영인사	이기용 이사장
5분	인사	환경부장관
3분	참석자 소개	사회자
	주제발표	
10분	1.	김영준 소장
10분	2.	최정권 교수
10분	3.	지은근 단장
15분	자유토론	
2분	폐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JA BOOK CITY  
413-832 경기도 파주시 고암로 999-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의정부시)  
전화:031-945-0001 팩스:031-945-0004 E-mail: p33pcc@nail.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9-50호

2009. 6. 16.

수 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산업단지 처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사업 관련 사장님 방문 요청의 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출판도시 1단계가 인강과 자인, 문화와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도시의 사례로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장이 아미겔의 원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써 이 공장을 분당지역(개발지)인 우리 조국과 출판도시 조화시키는 취지를 충실히, 책임감 있게 단지 내 가로수, 가로등, 교차 및 기타등등 디자인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동주, 자인, 그리고 발주처에 공감을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 인강 조국에 오며 수많은 업무협의와 공정의화를 통해 서로 성실히 치열하게 협력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시는 바 같이 지난 5월 27일 출판도시 출판사 입주 조성공사가 착공되었고 곧 지체 분량이 시작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난 1월 20일 서울 조물 이양사와는 부지상권, 민간소속 건축 중립부서 사장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사업진척과 선의의 착공으로 협력관계를 건립하게 해주게 된 것이 출판도시 1.2단계에 걸맞은 일관되고 조속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추적인 사안으로 확인되었고, 그러한 취지로 시정산업전시 출판도시를 계획 분량에서 출판도시 조성에 관련 산업인사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장님들 모시고 출판도시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허락하여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단계 조성공사시 협의물 통한 성과 사례 1부. 끝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

- ③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사업 관련 사장님 방문 요청의 건





수 신 : 1단계 미분양 조합원사 대표이사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협동화사업 참여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는 1단계 협동화사업에 참여하신 후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시면서 성공적인 출판도시의 완성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2009년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산업용지를 분양받지 않으신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2단계 협동화사업에 참여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에 논산, 대교, 뿌리문화사, 삼성인쇄, 열음사, 천제교육, 천제문화, 드림피아, 한겨레출판 등 9개사가 새롭게 2단계 협동화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도자주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협동화사업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중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고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으로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참여 안내를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참여 여부를 2009년 12월 8일(화)까지 조합 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 출판도시 2단계 산업용지를 배정하실 기회는 나시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산업용지를 배정하지 않으시고 조합을 탈퇴하실 경우 조합 정관 제18조(탈퇴자의 지분 환불과 그 절차)에 따라 출자금의 반환은 알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계산하여 환불함을 알려드립니다.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참여관련 문서는 조합 사무국(☎031-955-0001) 정해진 대외 / 팩스 031-955-00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임 :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일정 안내 1부. 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일정 안내

### □ 개요

- 관리기본계획 및 평가규정(안)이 최종 고시가 됨에 따라, 2단계 협동화사업의 조성공사가 지난 5월부터 진행중이며, 이에 분양공고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 참여할 업체에게 향후 추진 일정을 공지

### □ 목적

- 2단계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2단계 협동화 사업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

### □ 주요 핵심 내용

#### 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2009. 4. 6, 지식경제부 제2009-64호)

- 2단계 협동화사업 사업개요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방향 제시
- 입주우선순위 및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업종별 배치계획, 입주관리 및 사후관리 등
-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방향 등

#### 2.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안) 고시

(2009. 4. 29, 문화체육관광부 제2009-18호)

-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 평가심의위원 위촉 평가기준 마련
-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 발급 등

### 3.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일정 계획(안)

주요 업무	추진일정	주관	비고
○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007. 6	조합	수정·보완 예정
○ 2단계 건축설계지침 용역 계약체결	2008. 5	조합	2009 상반기 완료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기본계획 규제심의	2008. 11	문화부	완료
○ 실시계획 승인	2008. 12	토지공사	고시 확정
○ 지식경제부 관리기본계획 규제심의	2008. 12	지식경제부	완료
○ 총리실 관리기본계획 규제심의	2009. 3	국무총리실	완료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2009. 4	지식경제부	고시 완료
○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안) 고시	2009. 4	문화부	고시 완료
○ 환경부장관 초청 2단계 환경세미나	2009. 5	조합	완료
○ 2단계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확충	2009. 5	토지공사	공사 중
○ 협동화사업 조합원 면담 실시	2009. 12	조합	계획 수립중
○ 협동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009. 12	문화부	계획 수립중
○ 협동화사업 추진서 발급	2010. 2	문화부	계획 수립중
○ 용지분양 계약 체결	2009. 12~2010. 3	토지공사	일정 협의중
○ 2단계 협동화사업 기공식	2010. 3	문화부/토지공사, 조합	계획 수립중
○ 2단계 협동화사업 개발 사옥건축	2011~2012	조합	
○ 2단계 조합원 입주	2011~2013	조합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 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 조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제 목 : 출판도시 2단계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 관련 의견 제출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 8일 한국도자주매공사의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도시) 2단계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를 보냈는데요. 이 공고문을 보면 분양공고자인 한국도자주매공사의 무책임하고도 철학을 무시한 조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급공고문에 경악한 나머지 이 도시를 애초부터 기피하고 개발해 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하 출판단지 조합)과 이 곳 출판도시에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업체들은 일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출판인들이 가졌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국가' 또는 '혁신의 정책'은 그야말로 말로만 떠드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출판도시 건설이 무책임적이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단지 조합은 이러한 '정책과 이해'가 없는 '개발을 위한 행정'을 우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05월 18일, 출판도시를 방문한 문화관광부 신용현 문화미디어국장과의 출판도시 2단계에는 범 출판계를 비롯하여 영상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포함 하기로 하였으며, 그 진행 방식은 1단계와 같이 업종별 참여 신청서를 모집하여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의 모집 및 입주결정, 산업시설에 대한 계획, 공공시설 및 문화 상업시설 계획을 포함한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7월 20일(금) 당시 문화관광부 박항우 차관에게 제출한 것입니다(별첨 2).

출판도시 1단계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하여 개발하지 못한 결과 상가가 순 열락 되는 등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러한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2단계 문화·상업시설은 비영리공익법인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단계별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로 통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는 출판·영상과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단계에 도입하지 못한 도서관 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입주사들에게 원활한 경제 활동과 편의를 제공하고, 거주민과 업무 종사자를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컨텐츠

선 센터를 도입하는 등 산업시설과 문화 상업시설을 조화롭고, 긴밀하게 연계하여 출판도시를 세계적인 출판·영상 산업 단지의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개발하고자 계획(별첨 5)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표준주택공사의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에는 출판도시 개발에 대한 전략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는 분양자가 자금사정에 따라 무계획하게 분양료만 낸 것이었습니다. 저의 조합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교보문고, 대교, 천재교육 및 기타 참여업체와 대응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업시설 용지는 입찰가격을 많이 써낸 업체보다는 프로그램이 있는 일체제에 분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문화산업도시로서 출판도시 조성이론을 이어나가기 위해, 출판도시 2단계는 협동화사업계획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단순 최고금액 낙찰방식이 아닌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한 실사 및 관리권자의 추천을 병행한 사업자, 문화 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협동화사업자간의 각종 자원을 공유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권자의 관리권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간 출판도시 1단계의 성과와 조성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외로 출판인, 정부 관계자, 언론인, 건축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출판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출판도시 1단계의 성과와 모습에 경이로워하고, 그들의 심도서 개발 전례에 출판도시를 모델로 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문화도시 "스페인 빌바오",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문화산업의 창조적 융합도시인 "영국의 셰필드" 등 세계적 문화도시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이데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성은 제척도 없이 땅장사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상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라도 판라판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1. 2단계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 사본 1부.  
2. 문화관광부 재출 간담회 기념사진 1부.  
3. 출판도시 2계 문화 상업시설 개발계획서 1부, 문.



과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별첨 2]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문화관광부 재출 간담회 기념사진



2007년 7월 20일(금) 문화관광부 차관실에서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 제출 간담회를 마치고 출판도시 이기를 이사장, 문화관광부 박영우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은 부이사장, 김영준 건축코디네이터, 이기용 이사장, 박영우 차관, 박영철 이사, 차승재 이사, 정희은 이사, 김태우 이사,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



[별첨 3]

출판도시 2단계 문화 상업시설 개발 계획

## 1) 개요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
- 면적 : 약 84,797㎡(25,651평)
- 용도 : 문화시설 - 32,339㎡(9,783평)  
상업시설 - 52,456㎡(15,868평)

## ■ 개발 주제

- 1단계의 경우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하여 개발하지 못하여 상가가 슬럼화 되는 등 실례를 경험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2단계 문화 상업시설 개발은 비영리공익법인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이 개발주체가 되어 신개념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로 통합된 공동개발 방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 2) 목적

- 출판·영상과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
- 1단계에 도입하지 못한 도서관 관련 시설물을 유치
- 단지 내 원활한 활동과 편의제공
- 거주민 및 업무 종사자를 위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
- 세계 속의 출판·영상의 새로운 단지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는 금융, 정보, 전파센터 도입

## 3) 개발방향

- 2단계 지역에는 호수 주변, 물길 주변 두개씩 문화와 상업의 영역이 구획되어 있다. 현재의 삶에서 점차 문화와 상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라면, 물리적인 구분보다는 상업적이면서 문화적인 네 지역 통합의 대안이 요구되는 셈이다.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상업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문화와 상업의 성격에도 도시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단계의 사례가 예시하듯,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종합보다는 광역 전체와 연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영상 산업 혹은 출판산업의 속성에서 문화와 상업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선택에 따라 단지 전체에 제한된 높이나 용적을 넘어서는 고려도 필요하다. 출판 영상 도시의 부속시설을 넘어 국가나 광역 단체의 공공시설을 유지하여 통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심 역할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대규모, 대형의 시설 유치는 출판과 영상의 양대 프로그램과 병행되는 상업과 문화의 프로그램, 세 가지 축으로 도시의 개념이 정립됨을 의미한다.
- 1·2단계 기본 구상에서 상업시설은 대규모로 집중되어 계획되었다. 길게 펼쳐진 부지의 특성에서 상업지역은 생활 영역의 중심이 되기 어려운 거리에 분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일과 삶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행거리 내 소규모 근린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공동의 시설로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주차의 부족 문제에서 드러나듯 근린 시설로 전용은 제한적이다. 녹지축을 근린 시설과 복합하는 시도를 고려해야 한다. 1단계의 사례에서 경험하였듯, 녹지축을 필지 소유자의 회장으로 정비하되 근린 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반대급부는 도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소규모 근린 시설의 산재로서 다중성 구조로 보완되어야 한다.
- 소규모 근린 시설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생활의 공간으로 기획되었던 도시적 한계를 삶의 공간으로 이행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업 시설과 분산된 근린 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파주시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설 광고구조물 전기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통보  
(경유)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설 광고구조물 전기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통보

1. 출판단지조항 제2009-12(09.03.04)호와 관련하여,  
2.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구간의 사설 광고구조물의 도로점용허요(05.09.09) 및  
광고물설치(05.12.09)를 공공용 가로등 전기사용권해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통보해  
오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 위 치 :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구간(교하읍 산남리 540번지)

나. 대 상 : 출판물 사설 광고구조물 1면 및 전기조명

다. 승인조건사항

- 사설 광고구조물의 도로점용허요(05.09.09)와 가로등 시설에 파주시와  
인수인계완료(08.05)된 사항으로서 가로등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가로등 전기 공급  
- 사설 광고구조물과 시설물(전기시설포함)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  
유지관리 특별하고 향후 노후발생 및 기타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자체 조치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정조치를 수 있습니다. 끝

- 파주시



\*지방선거(8급) 05.09.09 유복동 가로등관리담당 03.08.11~27 안석훈 도시마케팅과 05.09.09 신동주  
합조자  
시행 도시마케팅과-5280 { 2009.03.06. } 접수 { }  
우 413- 경기도 파주시 아문동 / http://www.paju.net  
전화 031)940-5933 / 전속 031)940-2938 / ksdan@paju.net / 공개

투명한 평가, 투명한 기업  
한국토지공사 국가와 함께 소중한 국토를 만듭니다!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판단지조항 제2009-78(09.9.11)호와 관련하여 출판도시 1단계 사업  
지구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 제요청에 대하여 검토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출판1단계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1부.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과장 김세창 부과장 권영수  
합조자 서울지역본부 주임 송민우 서울지역본부 과장 장호준 서울지역본부 과장 강준호

시행 서울지역본부-33552 ( 2009.09.25. )  
우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35 (대치동 1009-1) / http://www.lplus.or.kr/  
전화 02-550-7133 전속 02-550-7079 / kso@lplus.or.kr / 공개

투명한 평가, 투명한 기업  
한국토지공사 국가와 함께 소중한 국토를 만듭니다!



## 한국토지공사

수신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출판도시1단계사업지구조성원가세부내역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09.8.18자 파주출판1단계 사업  
지구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간회신하오니 관련된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조합에서 요청한 자료는 관련 업무처리가 상당기간 경과한 현 시  
점에서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실확인 곤란과 관련 서류의 정검 및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귀 조합이 요청한 일사까지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관련 사실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과장 김세창 부과장 권영수  
시행 서울지역본부-29102 ( 2009.08.25. )  
우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35 (대치동 1009-1) / http://www.lplus.or.kr/  
전화 02-550-7133 전속 02-550-7079 / kso@lplus.or.kr / 공개

출판1단계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가)항 관련

- 요청내용 :

국가로부터 이관된 폐천부지 중 1단계 조성공사에 편입된 면적 814천㎡에  
대한 토지비의 평가금액(자본비용포함)이 11,42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귀 공  
사의 용지규정상 용지비는 [장부가액+자본비용]으로 산정되도록 되어있는  
바, 장부가액에 비해 용지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유 및 세부적인 산출자료  
(폐천부지 평가금액 산출자료, 해당 토지조서, 자본비용 세부 산출자료-자본  
비용 산정기간 등)와 전체 자본비용 산정에서 용지비 자본비용이 이중계산  
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 자본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부적인  
자료(사업비 연차별 투입액의 세부자료, 전체 자본비용 산출자료 등)의 사본  
을 주실 것.

- 회신 :

1단계 조성공사에 편입된 폐천부지 814천㎡에 대한 용지비는 편입토지  
장부가액(73억원)에 편입토지 취득일부터 판리전환일까지의 연도별 자본  
비용의 합산액으로 산정 되었음.  
자본비용세부산출자료 및 자본비용산정기간은 첨부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항 관련

- 요청내용 :

"파주출판단지 1단계 조성원가에 산정된 간선시설비용은 실제 1단계에 투입  
된 해당비용으로서 2단계 관련 간선시설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는  
데, 간선시설 공사비 26,549백만원의 산출근거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상수도인입 관련 분담금 납부 증빙자료,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납부  
증빙자료, 통죽진입로 산정공사 공사계약서 및 지급 증빙자료, 납축진입로

- 1 -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설 광고구조물 전기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통보
- 2 - 출판도시1단계사업지구조성원가세부내역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 3 - 출판도시 1단계 사업지구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

한 산출근거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의 사본을 주실 것.

- 회신 :

문발립장에 집행된 비용은 파주출판1단계 사업을 위하여 집행된 비용임.

마)항 관련

- 요청내용 :

"판매비와 관리비는 한국브지공사 전체 발생액을 사업지구별로 배분하는 원가배분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다"라고 하였는데, 산업용지 공급은 산업법과 귀 공사 용지규정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판매비와 관리비 역시 출판단지 1단계 조성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으로 책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파주출판단지를 위해 실제로 집행된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지출 증빙자료 등)의 사본을 주실 것 그렇지 않고 귀 공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산출자료를 주실 것.

- 회신 :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용하는 것은 파주출판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비용의 공사전체 발생액의 비율을 모든 사업지구별로 해당 사업비에 곱하여 산출하도록 한 것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32조에 명시되어 있음.

바)항 관련

- 요청내용 :

귀 공사가 제출한 자본비용 산출내역에 따르면 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된 2002년, 2003년의 사업비 투입액이 109억, 256억으로서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바, 자본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및 사업비 연차별 투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주실 것.

- 회신 :

출판1단계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 집행되었음.

사)항 관련

- 요청내용 :

귀 공사가 제출한 자료(2007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출한 조성원가 공개자료와 2003년도 1단계 사업 준공서의 정산 조성원가 총괄표 자료)와 공문간에 아래와 같이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 바, 그 차이 발생에 대한 설명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용내역(공사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등)의 사본을 주실 것.

항목	'03년 조성원가 정산자료	'07년 조성원가 공개자료	차액	비고
진입도로공사비	6,578백만원	16,521백만원	+9,943백만원	
상수도인입+하수종말처리시설	20,003백만원	7,356백만원	-12,647백만원	
무지조성공사+기타부대공사비	28,023백만원	34,608백만원	+6,585백만원	구조물공, 군부대시설, 보완공사포함
조경공사비	3,086백만원	2,624백만원	-462백만원	

- 회신 :

'07년 원가공개시 내역 재분류 과정에서 항목 세분화에 따른 항목간 금액 변동으로 전체 조성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펌프장에 집행된 비용은 1단계 사업을 위한 것임.

첨부 : 산출내역 1부.

파주출판단지 1단계 정비한도지 장부가격 및 자본비용율 적용 용지비 산출내역

구분	지역명	관리현황	연도	지분비율	보유지율	장부가격	지분비용	비고
1차	94-03-04	99-03-30	1994	0.1078	10	8,630,431,140	929,808,627	
			1995	0.1056	12		700,173,040	
			1996	0.1030	12		886,167,370	
			1997	0.1068	12		751,301,721	
			1998	0.1068	12		706,132,182	
			1999	0.1139	3		188,838,325	지분비율상승률(4%)
							10,225,729,625	

구분	지역명	관리현황	연도	지분비율	보유지율	장부가격	지분비용	비고
2차	94-03-24	00-06-28	1994	0.1078	10	449,387,180	48,369,949	
			1995	0.1056	12		47,458,268	
			1996	0.1030	12		47,185,854	
			1997	0.1068	12		47,545,194	
			1998	0.1068	12		47,894,151	
			1999	0.1136	12		61,140,281	
			2000	0.1031	6		23,165,809	
							754,241,563	지분비율상승률(4%)

구분	지역명	관리현황	연도	지분비율	보유지율	장부가격	지분비용	비고
3차	94-03-24	00-10-31	1994	0.1078	10	230,819,030	20,725,243	
			1995	0.1056	12		24,374,490	
			1996	0.1030	12		24,330,668	
			1997	0.1068	12		24,420,653	
			1998	0.1068	12		24,851,477	
			1999	0.1136	12		29,287,236	
			2000	0.1031	12		23,787,442	
			2001	0.0917	12		21,165,195	
			2002	0.0722	12		16,663,124	
			2003	0.0722	10		13,687,612	
							451,002,885	지분비율상승률(4%)

국토해양부 산장하는 정당한 국토해양부에 요청합니다.



## 국 토 해 양 부

수신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경유)  
제목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1. 한국토지공사 산업단지차 -2630(2009.8.28)호와 관련 합니다.

2.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2009.9.1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사업협동조합  
조합장 조갑대  
국문 02/15  
박갑학  
출처지  
신명단지개발자문선다 (2009. 09. 15.) 접수  
시점 -1473  
우 427-712 / http://www.mltb.go.kr  
전화 02-2110-6900 전 송 02-2110-6902 / ch0300@mltb.go.kr / 비공개(5)



"3대 다발재해(형식, 전도, 주력) 방으로 옮깁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9년도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중시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자율보건관리 정착을 위해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동 사업은 산업보건전문기관 지도요원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연간 1회이상(평균 4회) 지원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되오니 귀사의 보건관리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08.01.23(금)-02.06(금)까지  
나. 지원내용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지원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 사업장 자율보건관리 정착을 위한 보건업무 지도 등
- 다.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작성 후 FAX(031-871-6665) 또는 우편송부  
- 보내실 곳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보건기술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붙임 : 2009년도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지원 신청서 1부, 글.

한국산업안전보건  
경기북부지도원

수신자 (주)오제이티비앤지 외 1,807개소(안전보건업무담당자)

발신 출장국 - 보건기술부/과장 01/23  
첨도자  
고객명

사업 보건기술부-06 ( 2009.01.23. ) 경수  
우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http://www.kosha.or.kr  
전화 031-826-1934 / 전속 031-871-0855 / hjs07@kosha.net / 공계  
고객불만신고전화 TEL(국번없이) 1644-4544 FAX 1644-4545 http://www.kosha.or.kr / 고객참여

- o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로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 업무와 관련하여 불응, 항의수수 등 비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공단 감사실 (☎ 032-510-6738, 인터넷 : www.kosha.or.kr/사이버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PAJU BOOKCITY CORPORATE COOPERATIVE

413-834 경기도 파주시 고하읍 문방리 52-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EL 031-955-0330 FAX 031-955-0029

문 서 번 호 : 협의회 제2009 - 030호  
시 행 일 자 : 2009. 03. 11.  
수 신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 목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03월10일(화) 16:00 지체상금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3차 회의를 가지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 일 시 : 2009년 03월 17일(화) 10:30
- ◎ 장 소 : 협의회 사무실
- ◎ 안 건 : 지체상금 정수 및 처리방안 등. 글.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



###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PAJU BOOKCITY CORPORATE COOPERATIVE

413-834 경기도 파주시 고하읍 문방리 52-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EL 031-955-0330 FAX 031-955-0029

문 서 번 호 : 협의회 제2009 - 026호  
시 행 일 자 : 2009. 03. 05.  
수 신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 목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회의 참석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03월04일(수) 14:00 지체상금처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판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 일 시 : 2009년 03월 10일(화) 14:00
- ◎ 장 소 : 협의회 사무실
- ◎ 안 건 : 조립의 지체상금 논의를 위한 회의개회요청 건  
지체상금 처리방안 등.

\* 별첨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명단 1부, 글.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



###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PAJU BOOKCITY CORPORATE COOPERATIVE

413-834 경기도 파주시 고하읍 문방리 52-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EL 031-955-0330 FAX 031-955-0029

문 서 번 호 : 협의회 제2009 - 053호  
시 행 일 자 : 2009. 04. 09.  
수 신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 목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4차 회의 참석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03월17일(화) 10:30 지체상금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4차 회의를 가지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 일 시 : 2009년 04월 13일(월) 16:00
- ◎ 장 소 : 아시아센터 1층 노을 리운지
- ◎ 안 건 : 지체상금 정수 및 처리방안 등. 글.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



- 5 - 2009년도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 신청 안내
- 6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회의 참석 안내
- 7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 안내
- 8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제4차 회의 참석 안내

(사)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PAJU BOOKCITY CORPORATE COOPERATIVE

413-834 경기도 파주시 고매읍 문발리 524-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EL 031955-0330 FAX 031955-0229

문서 번호 : 협의회 제2009 - 089호

시행일자 : 2009. 05. 22.

수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조 : 상무이사

제목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결의사항 처리요청

귀 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04월27일 개최된 제5차 지체상금처리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지급사 등 아래의 미착공 6개사에 대하여 토지불가압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귀 조합에 해당 토지의 가압류 진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대상자 : 도서출판 한울, 국일출판사, 범문사이퍼블릭코리아,  
이화지업, 도서출판 현대고시사, 영타사, 끝.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지체상금처리위원회 위원



출판도시문화재단

413-790 경기도 파주시 고매읍 문발리 524-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정면측 자갈 TEL 031955-8006 FAX 031955-4994

문서번호 : 문화재단 제2009 - 52호

2009. 5. 24

수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제목 : 재단 차입금 이자 납입 및 재단·조합 사무국 분리예 관한 재단의 입장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5월 12일(수) 제16차 실행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단이 조합으로부터 차입한 36억원에 대한 이자 처리 방안 및 재단·조합 사무국 분리의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재단 실행이사회 결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파주출판도시조합 차입금 이자 관련 논의의 건

우리 재단이 귀 조합으로부터 차입한 대역금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은 현재 경영 여건상 이자 납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 재단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자 납입 연기 및 연 7.5%인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요청하기로 함.

2) 재단·조합 사무국 분리의 건

귀 조합은 실행이사회에서 이화구 상무이사(사무국장 대행)가 재단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결의한 바 있음. 그러나 1단계 조합의 잔부인 지체상금 처리를 포함한 여러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화구 사무국장 대행이 재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경우 조합·재단·협의회 간의 긴밀한 연결구조가 끊어질 수 있음. 이밖에도 재단에 심각한 업무 공백과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단 1기 이사회가 출범하는 2010년 2월까지의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함. 대신 김난성 기획홍보부 실장은 조합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업무를 정리시키기로 결의함.

출판도시문화재단



9 - 지체상금처리위원회 결의사항 처리요청

10 - 재단 차입금 이자 납입 및 재단·조합 사무국 분리에 관한 재단의 입장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

# “출판도시 기획·편집 전쟁… 부끄러운 책 만들 수 없어”

이 기 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李起雄·60) 파주출판도시 이사장은 4년 전 위장 판권을 받고, 위장 원전 제작했다. 자리가 공인하는 ‘출판도시비’이다. 병은 별것 아니지만 힘이 달려 잡탕 일을 못하는 게 불행하다고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전문출판사 열하당의 대표이자만 화사일을 제쳐두고 파주출판도시를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하는데 매달린 결과다. 출판도시를 만상하는 데 걸린 20년 세월이 안색이 되어서 위풍 김이되었다.

지난 13일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도시의 심장부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출판 광장, 열하당출판사를 둘러싸고 오가며 6시간 동안 이 이사장을 만났다. 갖가지 입구와 모양이 그를 놓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서 없이 전화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협조를 구했다. 사인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입구 출판인행렬 회원들과의 정성스러운 자리에서 곱할 한 그릇을 후딱 해치우고, 엘리베이터 타기불한사로 거칠한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1단계를 마무리짓고 2단계로 접어들어 마추출판도시에는 아직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일산 상을 오가는 사이에 가까이 출판도시내 열하당 출판사에 청대를 붙여놓고 산다. 보다 못한 가족들이 입을 치분하고 출판사 신관 4층에 구만 생활공간으로 아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 여러 출판인들의 이사 행렬도 이어질 예정이다. 불가치 출판도시의 밤을 가장 싫어하는 이 이사장이 불어 꺼져지 않는 ‘출판도시에 상주해 남이 마지않았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이 지난 13일 출판도시내 열하당 출판사의 ‘헝기있는 책방’에서 사명하는 책을 찍고로 활약 하고 있다. 유재환기자 jawn@seoul.co.kr

■ 이사장 문화유전자는

강릉 선교장서 자라  
‘제2의 율곡’ 꿈꾸다

이기웅은 한때 1만명의 소작인을 두고 ‘관동제왕’을 자처하던 강릉 선교장(敎場莊)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는 전수 아버 종손의 당숙이다. 선교장이 사립제자지 문집과 서적을 간행하던 열하당(熱河堂)이 높여주었다. 군벌을 타고, 책 상부룡하던 소년이었다. ‘가까운 이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는 열하당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유래했다.

예전엔 ‘열하당 강릉 1815, 서울 1971’이라고 세간 명함을 돌고 다녔다. 서울서 출판사를 세운 것은 비록 1971년이지만 열하당의 전통은 선교장이 지어준 1815년부터라는 자부심과 발로였다.

1966년 바르셀로나 국제출판협회(IPA) 총회 때 100년 넘는 유서 깊은 출판사에 기념패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국에 1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출판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확인소동이 벌어졌다.

열하당 출판사 신관 도서관 건물에 개관생활공간을 지으면서 선교장에서 가장 아꼈던 정자인 열하정(熱河亭)의 개관을 부활시켰다. 그가 강릉에 기린 책은 경자살 집안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강남(江南)도 만들었다. 신위(神威)나 불상, 초상, 상제(上祭)를 모시는 종교적 장소다. 모친의 사인과 오늘날의 이기웅과 열하당을 잇게 한 스승을 모실 생각이다.

그는 선교장의 ‘문화적 유전자’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후손이다. 하지만 한학파와 외학파의 비유를 차용해 ‘7대3’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6대4’로 조정했다. 모계 혈통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율곡 이이 선생을 닮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본(율곡은 덕수 이씨)도 닮고 500년 가까운 세월 차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활동했으며, 말년에 파주에 정착해 생을 종결하는 것이 율곡의 삶과 궤를 같이한다. 결코 우연은 아닌 듯싶다.

▶책이란 무엇인가. 또 출판인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이 서야 나쁘기 싫다. 작은 말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출판인은 문자를 통해 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책은 ‘영혼의 지도’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판이란 어떤 유네스코 헌장 중에 ‘우리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명성해 있습니다. 거언적으로 1980년 스페인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출판협회(IPA) 총회에서 ‘도서관 사서의 나라’를 출판의 자유를 제해하는 요소의 하나로 지적한 보고서와 읽고 감화에 뜻을 같이 있습니다. 책의 남발도 경제의 대상입니다. 생략과 배제의 ‘어린왕자’의 경우 무리 100여명이 쏟아졌었다. 세계 10위권 출판대국의 허영이 저고 싶고 싶은 지부도 파주출판도시에는 호프런 책과 실서를 바로보고, 출판인들이 허물을 상정할 뒤 회색사키는 ‘책의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가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비와 바람의 도시일지(雨風日誌)’라는 책에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장장 20년 간의 출판도시 건설과정과 풍상을 정리하셨는데 출판도시와 미래상은 어떤 겁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출판도시는 21세기 한국출판의 미래입니다. 책의 내일이기도 하지도. 21년 전 이기웅, 김경희(여석)

위장판정에 안락한 열정

가죽들까지 출판사로 이사

20년만에 1단계 사업 완성

신영사), 김인호(한림사), 박영호(민음사), 윤영두(범우사), 김병서(문예출판사), 허창성(문화출판사) 등 뜻이 맞는 출판인 7명이 북한산과 도봉산을 오르내리며 ‘인상(仁上) 결의’를 맺은 결과물입니다. 이기웅은 입주업체의 건축가들이 맺은 ‘위대한 계약서’ 덕분에 출판과 건축의 만남, 출판과 도시의 화평한 만남이 이뤄졌다고. 전체 부지 48만여평 중에서 25만여평에 해당하는 1단계 지구에 250여출판 관련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22만평에 이르는 2단계 지구에서는 열하와 할자가 만나게 될 겁니다. 또 두 개의 도서관 ‘이시이치사(이시이치)’와 ‘영혼의 도서관’이 새로운 코어가 될 겁니다. ▶자사장을 잡을 준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뽕들이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자사장을 옮긴다는 말을 겁니다. 자료를 정리해 놓을 팔고 출판이후는 내가 하고 나서 행해질 일입니다. 영혼의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이뤄질 겁니다.

▶약력

▲강릉 출생(1940년) ▲경동상고, 성문고등학교 졸업 ▲일지사 입사 ▲열하당 설립(1971년) ▲서울 출판문화진흥위원회 ▲서울예술대학 강사 ▲출판계열 창간편집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부회장 ▲한국출판진흥위원회 이사장 ▲수상 ▲대한출판문화진흥 ▲출판문화 ▲특수출판문화 ▲중앙인문문화상 ▲가톨릭 매스컴 대상 ▲언론상 ▲주요 출판·저술 미술서, 미술선, 한국의 곳, 한국의 고고, 한국의 미술, 교양한 국문학사, 위대한 미술가의 일곱, 열하당미술관, 영성원 총서, 경주 남산, 서원, 우리 책의 정경과 정경, 불공의 암각화, 안중근전설, 필자지 않았다. 의뢰를 지닌 소

“안중근의사 보고 새로운 삶

책은 나라 세우는 기본도구

호트러진 질서 바로잡아”

▶‘영혼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책 중의 책은 자서전입니다. 고인의 유혹 또는 친지와 협력해서 고인이 써 왔던 자서전의 절고를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탄생시킨 뒤 소장하는 사후 도서관입니다. 죽어서 아파들면 책다이에 놓아져 되는 생이요, 저의 마지막 책, 자서전도 영혼의 도서관 사가에 놓아져 될 것입니다.

▶출판도시가 도시 전체가 건축물의 정경이네요. 단순한 출판도시가 아니라 인간성 회복을 꾀하는 인간도시, 문화도시, 박물관도시를 지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출판산업의 세 요소는 기획, 생산, 유통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획하고 편집해 바로 일반인에게 보내 인쇄·재본·책장을 만드는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을 통해 공공하는 원소를 제정할 것은 것이요, 책의 수요를 예측해 납품을 하고, 서로 노출해 있기에 부끄러운 책을 만들지 못

니다. 편집자까지 책을 교정하게 되면서 기획과 편집경쟁이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책의 질이 30% 이상 높아졌고 문류비율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게 최고의 성과라고.

▶열하당의 도서책목에서는 생소한 안중근 의사 관련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몰랐는데는 잘 지게 ‘합체책’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 온 인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도 장벽을 뚫고 인성을 살리고 그랬습니다. 1993년 일산에 출판도시를 들어오기도 한 계획이 들어지고 난 뒤 열하당 고인이 영입했습니다. 빛을 쫓은 것이 1995년 노선 이른상 신생이 정리한 안중근 의사의 공판기록 번역본이었지요. 그때까지 안 의사를 너무 몰랐습니다.

안다는 것은 제법중인데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법입니다. 아니요. 공판기록에서 안 의사의 엄청난 의지를 듣고 비로소 깨달은 거로 나의 고정은 고통도 아니요, 어서어서 교란을 찾기도 다짐했습니다. 내가 2000년 ‘안중근전설’을 썼습니다.

“그 책은 제국의 안중근투쟁기록을 옮겨 온 것입니다. 출판도시 내부에 안의사의 충성을 세웠고, 안 의사는 출판도시의 정신적 감리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의사로 부터 출판도시를 완성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현재 수행 중입니다.

## 어린이 날... 풍성한 책잔치

70여개 출판사, 한달간 테마전시·공연 등 다양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책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2009’는 5일간 짧게 열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5월 내내 행사가 진행되며 참가 출판사와 관련 단체의 수도 70여 곳으로 늘었다. 커진 규모만큼이나 테마전시와 체험활동, 각종 공연 및 부대행사의 수도 대폭 늘어났다. 2~5일까지는 각 출판사가 거리로 나와 각자의 개성을 살린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말에는 거리 공연과 소규모 공연이 계속된다.

도서관으로 개조한 아동 버스 안에서는 우리 동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며 오색의 풍경을 이용해 직접 팝업북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편소에는 쉽게 가보기 어려운 출판사 사옥을 직접 견학할 수도 있다.

문학동네, 문공사, 보리, 주니어김영사, 파란자전거 등은 안내를 위해 출판사 직원들을 배치했다. 13일에는 출판사 사계절의 사옥과 인쇄소를 방문해 책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도 있다.

출판 도시 무공해 전기 자동차투어는 16, 17, 23, 24일 체험할 수 있다. 5월 어린이날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롭다. ‘저장 장남’이 되어 자신의 책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어린이 책 베품시장과 가족 대항 책 릴레이와 박 속의 책 터뜨리기, 고사성어 놀이터 등이 6시간 동안 진행된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5월 ‘어린이날 도서관 잔치’를 개최한다.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 책 만들기’, 활약을 이용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만드는 ‘별토

로 동화 속 주인공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전래동화 ‘여우누이 공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 독도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독도 퀴즈 골든벨’과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의 저자 윤영선 씨와의 만남 등 독도 바로 알기 프로그램도 열린다. ‘여우누이’ 공연과 ‘독도 퀴즈 골든벨’ 참가자는 도서관 홈페이지(www.nlcy.go.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철훈기자

① [만나고싶었습니다] 출판도시기획, 편집, 전쟁... 부끄러운 책 만들 수 없어 -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 서울신문, 2009. 04. 17

② [책과 길] ‘어린이 날’ 풍성한 책잔치... 70여개 출판사, 한달간 테마전시·공연 등 - 국민일보, 2009. 05. 02



# 출판의 본고장, 문화관광도시로 '고품격 변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자유로변 심학산(菁鶴山) 자락 87만4000㎡에는 출판사와 인쇄소, 재보소, 유통시설 등 출판·인쇄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른 파주출판도시(공식명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획하고 편집한 다음 바로 옆 인쇄소로 보내 인쇄·재보·재책을 완료하면 출판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원스톱(one-stop) 체제, 국내 유일의 출판 관련 국가산업단지이기도 하다.

## ◆영상으로 외연 확대

2002년 여름 종합인쇄사 보진재를 시작으로 5월 현재 웅진씽크빅·유사미·김영사 등 대형 출판사 116곳과 인쇄사 37곳, 유통사 11곳 등 모두 300개의 출판 관련 업체와 서비스·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1989년 영화당, 지식산업사, 한길사, 민음사, 범우사, 문예출판사, 평화출판사 등 출판사 대표 7인이 뜻을 맺은 결과물이다.

최근엔 2단계 부지 20만1781㎡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만485㎡를 영상산업단지로 조성, 영화 제작 전 과정이 가능한 대규모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출판산업단지 사업조합은 "28개 영상업체로부터 공동 사업 계획서를 1월 초 제출받았고, 50여개 영화사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한 토지 분양은 오는 6월 말~7월 초 문화체육관광부 '2단계 입찰과 평가위

## 대규모 영상산업단지 조성 공연·세미나·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치뤄

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파주 출판산업단지 2단계 건설사업은 산업시설(20만3300㎡)을 포함, 공공시설 및 주거용지(39만4000㎡), 지원시설(8만82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시설 부지 중 영상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0만1294㎡는 소프트웨어 산업(6만4872㎡), 출판·인쇄업(3만6422㎡) 단지로 조성된다.

2단계 사업은 토지 분양과 함께 오는 7월 말 착공해 2011년 말까지 350개의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1·2단계를 모두 합쳐 총 700개 업체가 고용인원 2만명을 창출하며 연간 매출 3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출판도시에서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매년 5월),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매년 가을),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2006년 개최) 등 국내외 도서전·공연·회의·세미나·전시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다양하게 치르고 있다. 기획과 생산, 유



요즘 파주출판도시에는 대규모 영상산업단지 건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웅트립할 준비를 하느라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다.

통이라는 출판산업의 세 요소를 한데 모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게 출판도시의 기본적인 취지다.

영국 웨일스의 하이온와이, 네덜란드의 브레드보트, 벨기에의 룩쉬 등 외국의 유명한 책 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 크고 계획적인 북시티(book city)는 어디에도 없지만 출판도시는 앞으로도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세계인이 주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 ◆호텔과 영화관까지

'중요 예술의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호텔 지지방(紙之郷)은 다양한 크

기의 회의실과 공연장, 갤러리 등을 두루 갖춘 고품격 교육연수지원시설이다. 지지방에서는 각 방에서 TV 대신 책과 함께 사유와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031)955-0090. 이채소빌딩 1층에는 9개 상영관과 좌석 1636석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 씨너스 이채가 있다. 세계 최초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을 갖춰 고역대와 초고역대 소리를 겹쳐 들어 들을 수 있다. 1544-0070

##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의 꿈

헤이리 아트벨리는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 마을을 지향한다. 문화예술의 생산, 전

시, 판매, 거주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개념의 특수한 공동체 마을이다.

파주 통일동산 49만5870㎡에 작가, 미술인, 영화인, 건축가, 음악가 등 380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했다. 마을 이름은 파주지역에 전해오는 전래농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다.

세계민속악기박물관, 금산갤러리 등 공방 100여개, 작가 작업실 300여개, 서점 30여개, 음악홀, 연극관 등 예술 마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www.heyri.net, (031)946-8551-3

김경은 기자 eun@chosun.com



세월의 무게를 더할수록 굳어지지 않고 내리 들어가는 파주출판도시의 출판사 건물들. 건립 당시 재질과 높이·색깔 등은 물론 가로수에도 생태환경도시란 건축철학을 담으려 노력했다.



## 파주 출판도시·예술마을 유네스코 창조도시 추진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이 유네스코 '창조도시(Creative City)'로 발돋움한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출판도시에서 김문수 지사와 임주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도시내 2만 3140㎡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국제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매주 네 번째 토요일을 밤새는 날로 정해 야간 전시회와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출판도

시의 우수한 건축물 벽면을 활용해 영상소를 열고 주말마다 상설 문화공연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선 출판도시와 미술가 등 창조적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헤이리 예술마을을 연계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창조도시의 인재들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유연한 거주환경을 갖춘 도시로 현재 독일 베를린(디자인)과 프랑스 리옹(미디어 아트) 등 16개 도시에 지정돼 있다. 파주=김철호 기자

### 변신 꾀하는 '파주 출판도시'

## 몸 섞은 '출판+예술' 새 빛깔이 궁금해

미술가들에 창작·전시공간 내주고 장르 융합 '예술·문화 도시' 만들기

'책의 고향' 파주 출판도시가 발돋움 위해 몸을 뒤치고 있다. 현재 출판 관련 250여 업체, 1357건물이 들어선 이곳은 최근 영화 관련 업체를 위한 2단계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출판도시가 아닌 '영화·출판 도시'가 될 터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곳에는 미술관·갤러리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예술도시'로 변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 규제를 풀고 공구는 출판인들이 발의한 출판도시는 현행법상 산업 단지다. 정부의 지원 아래 '신입업자 및 그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신입법)과 공업단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배법) 및 시행령에 따라 1998년 산업 단지로 첫 삽을 뜬 뒤 2004년 개조안을 갖췄다.

애초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염두에 두었던 출판인들은 업무를 위한 공간 외에 문화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1층의 설계를 달리했던 터. 도시 조성단계에서는 관련 법규가 도움이 됐지만 출판도시가 모양을 갖추면서 오히려 걸림이 됐다. 단지 대부분이 산업용지로 묶인 탓에 출판 인쇄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을 염두에 둔 법으로는 변화하는 문화도시의 주제를 따를 수 없게 된 셈이다. 올해 초 김연호 한길사 대표가 임주기업협회장을 맡으면서 출판도시 업체들의 합법적 움직임을 기시화되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관련규정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10월 말이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치국을 마신 출판사들 출판도시 개장 초기부터 한길사와 열화당 등은 내부 전시장을 마련해 공간이 허전한 곳을 없앴지만 대중적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다. 2007년 초 일찌감치 문을 연 제

이에스아르갤러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미술품 운반업체인 제이에스아르 부설로 전시 공간 45평을 주고 저금전 11차례 기획전을 열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 관객 없는 전시장에 작품만 덩그러니 걸려 있다. 답답한 곳이면 제이에스갤러리는 이듬해인 2008년 갤러리 비영이 들어서면서 김동무가 됐다. 하지만 서너 군데로는 관객을 끌기 어렵다.

갤러리비영의 안수연 실장은 "주말에는 좀 낯지 않 평일에는 하루 종일 서너 명이 다녀갈 정도"라고 털어놨다. 애써 들인 큐레이터가 희생을 못 견뎌 잇따라 그만두는 바람에 떠러져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고도 했다. 그 외로움이 2층에 입주한 작가들한테는 참작에 못두할 수 있는 이따금의 됐다. 박영은 1기에 이어 2기 작가 6명을 선발해둔 상황이다.

■ 김치국을 마신 곳은 또 있다. 비로 일련책들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장 건물들 지어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내장 공사를 하고 있다. 700~800평의 전시 공간을 둔 기점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포루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이 아름다운 뮤지엄은 출판도시 최초의 미술관이 될 터이다.

■ 작가 입주 프로그램 시들 출판도시 임주기업 협회에서는 10월 초 입주작가 목표 100명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한길사, 열화당, 경아, 청림, 김연출편집회사, 경채원, 동이미술로 등 7개 출판사가 참여해 15~30명 규모의 작업공간 3~22곳을 주며했다.

특히 김연출편집회사는 서울 용역대 근처로 본사를 옮기면서 인사육을 스페이스로 옮겨 내놓았다. 수용 인원은 모두 35~40명. 출판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회화, 사진, 공예로 장르를 제한하고 있다. 협회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작품 1점을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작가들은 전시·수도세로 월 15만원을 부담하고 1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다. 작가들은 이 밖에 공동워크숍, 세미나, 연계 전시를 하게 되며 출판도시에서 추진하는 아프리카에도 참가하게 된다. 임주기업 협회지지 bktz@hori.co.kr

### "순수 장르는 성공 없다"



김연호 임주기업협회 회장

"작가 입주 프로그램은 출판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임주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호 한길사 대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자동차로 15~20분 거리의 파주 헤이리 문화예술촌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그는 출판도시의 미술관, 전시장 건립 등이 "무엇보다도 크로스장르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순수 장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술은 출판과 가장 가까운 장르다. 사실 문지민으로 책이 되지 않는다. 시 각색이지 않은 책은 팔리지 않는다. 작가들은 책을, 책은 작가들을 뒷받침하면서 원만하게 될 것이다. 출판도시 자체가 하나의 책이다. 그림 역시 책과 다름없다."

김 대표는 최근 출판도시에 생겨나는 전시장 등의 미술 인프라들이 "상업주의적인 차림에 인문학적인 도음이 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유명인 중심의 미술계에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파주북시티 가을책잔치’ 23일부터 열려

‘책의 도시’ 파주에서 신나는 책의 잔치가 펼쳐진다.

‘2009 파주북시티 가을책잔치’가 23일부터 25일까지 출판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서는 여러 출판사의 도서를 안내, 판매하는 ‘책거리 도서관’과 설치 작품 등의 거리 전시가 출판도시 중앙도로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축제 기



파주북시티 가을책잔치의 포스터.

간 내내 펼쳐진다.

세밀화 작가 권혁도 씨와 함께하는 세밀화 그리기와 원화전, ‘파주 동화읽는 어른 모임’의 그림자인형극 공연, 직지 모형 전시와 인쇄 체험, 우리 나라 지도 그리기, 과학 실험, 예쁜 글씨 쓰기 등

이 곳곳에서 이뤄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책잔치 홈페이지([www.pajubookfest.org](http://www.pajubookfest.org))를 참조하면 된다.

/서원국 기자 [wkseo@snhk.co.kr](mailto:wkseo@snhk.co.kr)

## 23~25일 독자와 출판인 함께하는 파주 책잔치

독자와 출판인이 함께 벌이는 ‘2009 파주북시티 가을 책잔치’가 23~25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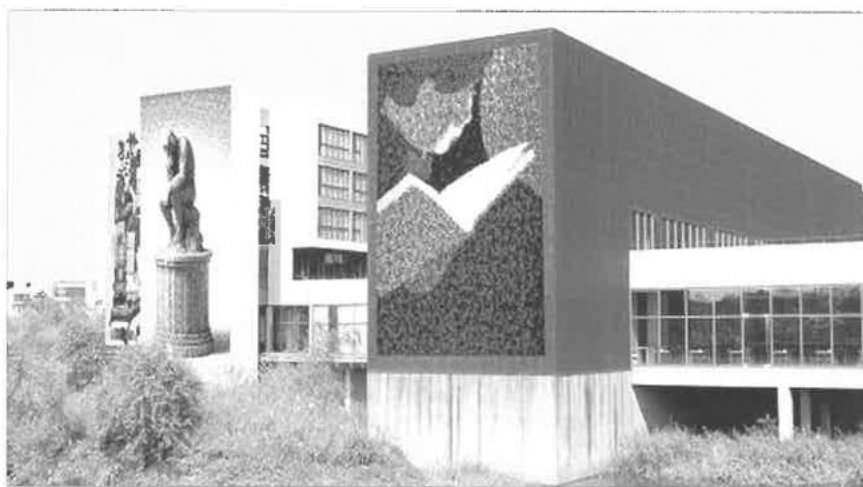
출판도시 임주기업협회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 출판사들의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책거리 도서관’과 설치 작품 등의 거리 전시가 출판도시 중앙도로에서 진행된다.

작가 권혁도 씨와 함께하는 세밀화 그리기와 원화 전시, ‘파주 동화 읽는 어른 모

임’의 그림자인형극과 빛그림 공연도 진행된다.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는 출판도시 임주 업체들과 ‘아트플랫폼’ 입주 미술작가 등이 작품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건물 외벽에 거는 ‘걸개그림막 축제’ 행사가 열린다.

30개국 다큐멘터리 62편을 모은 ‘제1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22~26일 파주출판도시 목설무대와 씨너스 이채에서 개최된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mailto:k.dh@hankyung.com)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외벽에 내걸린 대형 걸개그림.

## 파주출판단지 ‘건물, 갤러리 되다’

### 내달까지 대형걸개그림展 27개사 책속 콘텐츠 표현

각 출판사의 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걸개그림이 파주 출판도시 곳곳에 내걸린다.

파주 출판도시임주기업협회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각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책속의 이미지와 대표 콘텐츠를 모자이크 형식의 대형 걸개그림으로 제작해 출판사 외벽에 전시하는 걸개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가로 15m, 세로 5m로 제작되는 대형 걸개그림의 대규모 전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으며, 출판도시 거리 전체가

갤러리로 변모하게돼 신선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걸개그림 전시에는 김영사, 한길사, 웅진 등 모두 27개 출판사가 참여하며 아트플랫폼 입주작가 22인의 작품까지 모두 35점의 새로운 모자이크 작품이 탄생된다.

걸개그림은 출판도시내 아트플랫폼 입주 작가들이 제출한 600여점의 작품을 이용, 최근 미술계에서 유행하는 ‘기존 작품을 축소해 모자이크 방식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더불어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갤러리 ‘지지향’에서는 아트플랫폼 22인 작가가 출품한 ‘예술, 출판도시와 마주치다’전이 다음달 14일까지 열린다.

아트플랫폼은 최근 출판단지 내 유휴 공간을 예술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선발된 22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mailto:dolsaem@kyeongin.com)

⑥ 파주북시티 ‘가을책잔치’ 23일부터 열려 - 소년한국일보, 2009. 10. 15

⑦ 23~25일 독자와 출판인 함께하는 파주 책잔치 - 한국경제, 2009. 10. 15

⑧ 파주출판단지 ‘건물, 갤러리 되다’ - 경인일보, 2009. 10. 23



## 책, 영화 파주, 잔치 잔치 열렸네~

▼ 미국 어린이 책 주간 포스터.



『하늘 높푸른 가을 주말 아침, 아직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가. 집안에서 읽는다. 자칫 소중함 가을 주말을 모두 날려 버릴까봐 걱정스럽다. 현장 하루 자유로워 달려 경기 파주 출판도시로 가보자. 책 잔치와 DMZ 다큐엔터의 영화제, 길게 그림책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중이다.

어곳에선 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각종 문화 축제를 즐기면서 과학 등을 체험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DMZ 영화제에서는 영화 뿐 아니라 DMZ 곤충 표본전시 등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판도시의 건물에 걸린 대형 길게 그림책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니 가족이 어울려 책만 주말을 즐기면 더할 나위없다.

### ● '가을책잔치' 내일까지 과학·에니 체험, 퀴즈대회...

◎ 가을 책잔치=주말 출판도시에서 펼쳐지는 행사의 핵심은 역시 25일까지 열리는 '2009 파주북시티의 가을책잔치'다. 읽고 생각하고 꿈꾸다(아기와 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벌어지는 책 잔치에는 출판사뿐 아니라 도서관, 조형예술가 등 출판 기관 및 기업체 100여개사가 참여한다. 출판도시 중앙로에서 펼쳐지는 각 출판사의 도서 전시 및 판매가 책잔치의 기본 메뉴다. 여기에 속명어대 화예디자인학과 연구실이 진행하는 '문학의 인상' 공간설치 작품과 미국 독서주간 캠페인 75년사 포스터 전시가 곁들여진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과학교육감사 모임이 진행하는 '재생 에너지 체험'에서는 태양광 자동차, 태양광 선풍기, 풍력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로봇팔, 로봇 등의 첨단과학도 체험할 수 있다. 해치 목걸이 만들기, 풍고기 목욕비누 만들기, 손 세정제 만들기 등도 배울 수 있다. 축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방문객 캐리커처 그리주기와 페이스 페인팅은 한국중앙예술학교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진행한다.

참여기업들이 진행하는 특별행사도 관심한다. 도서출판 창상은 예쁜 글씨 쓰기, 나만의 핸드페인팅 옷가지, 나만의 방 문패 만들기 등의 행사를 벌인다. 드안에서는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 김밥이랑이에서는 세밀화 그리기, 청문출판그림에서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문학수첩에서는 해리포터 코스튬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를 각각 진행한다. 보림에서는 동시낭송회, 파주 동화회는 이쁜모임에서는 그림자 인형극과 빛그림을 공연하며 주니어 김영사에서는 인공교전 퀴즈대회를 연다. 일화당은 희귀 고서의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책을 만날 수 있는 북카페를 운영한다.

차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로봇팔, 로봇 등의 첨단과학도 체험할 수 있다. 해치 목걸이 만들기, 풍고기 목욕비누 만들기, 손 세정제 만들기 등도 배울 수 있다. 축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방문객 캐리커처 그리주기와 페이스 페인팅은 한국중앙예술학교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진행한다.

참여기업들이 진행하는 특별행사도 관심한다. 도서출판 창상은 예쁜 글씨 쓰기, 나만의 핸드페인팅 옷가지, 나만의 방 문패 만들기 등의 행사를 벌인다. 드안에서는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 김밥이랑이에서는 세밀화 그리기, 청문출판그림에서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문학수첩에서는 해리포터 코스튬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를 각각 진행한다. 보림에서는 동시낭송회, 파주 동화회는 이쁜모임에서는 그림자 인형극과 빛그림을 공연하며 주니어 김영사에서는 인공교전 퀴즈대회를 연다. 일화당은 희귀 고서의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책을 만날 수 있는 북카페를 운영한다.

베스트 다큐전', TV에서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모습을 보여줄 '북한, 다큐로 만나다', 소문의 단절을 뜻하는 책을 소재로 다룬 작품을 보여줄 '우리의 책',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 자지라 방송 특별전' 등도 상영된다. 출판도시 안에 있는 세너스 이체가 주상영관이고, 인근 통일전망대 상영관에서도 2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25일 오전 11시 '평양의 미국인들' 등의 다큐엔터가 상영된다.

또 24, 25일 거리 곳곳에서는 마술, 마술, 버블아트, 인간 조각사 등 관객들을 위한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 DMZ도서관, DMZ 곤충표본전시, DMZ기념품 전시 및 판매, 음악공연, DMZ사진전 등도 둘러볼 만하다.

### ● '길게그림책 축제' 내달일까지 건축물 외벽에 모자이크 장식

◎ 길게그림책 축제=예술, 출판도시와 마주치다 전(展)이란 이름으로 11월말까지 계속되는 길게 그림책 축제는 출판사 외벽에 출판사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거대한 미술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출판도시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플랫폼'에 의해 일주한 작가들이 대표작품을 모아 모자이크 식으로 조합, 건물외벽에 부착했다.

출판도시가 그동안 책의 도시로서 문화적 토대와 인간, 그리고 자연을 노래해 왔다면 이제는 책을 예술과 인간에 확대시키면서 생선적으로 통합, 보다 창조적인 상위문화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다. 출판도시 곳곳에 부착된 35점 이상의 대형 그림들이 출판과 미술의 만남을 보여주며 가을 축제 분위기를 방분객의 즐거움을 한껏 고조시킨다.

길게그림책 축제 기획팀 jikim@munhwa.com

## “100년 지나서도, 안중근은 살아있는 시대정신”

“영을 선고받은 피고들의 모습은 각자 특색이 있었다. 나야 어린 유씨(유동하)는 가련하게 울먹었다. 조씨(조도선)는 좀 나았다. 우씨(우려순)는 일었던 침착성을 되찾은 듯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열변을 토로하면서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혹시라도 이 법정이 오히려 자기를 무죄방면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다.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준비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 영국기자 공판참관기 등 의거 100돌 맞아 추가수록

아니 열렬히, 자신의 귀중한 삶을 포기하고 싶어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능률하게 법정을 떠났다.”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돌에 맞춰 나온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열화당) 개정판에 추가 수록된 영국 <더 데일리> 기자 찰스 모리머의 안중근 공판 참관기와 일부다. 편역자 이기웅(69·사진)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열화당 대표)은 23일 “초판을 낸 지 꼭 10년이 되는 지금 우리의 정신적 스승인 안중근 님의 의거와 순국 백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출간한다”며 1910년 4월 16일 보도된 이 영국 기자의 공판참관기(그는 귀순에서 열리고 있던 공판을 1909년 2월 7일부터 14



일째까지 약 8일간 지켜왔다)를 추가 수록하는 외에 장점을 바꾸고, 본문의 오탈자를 고쳤으며 자료와 사진을 첨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도해온 파주 출판도시 건설 20여년 역사에서 안 의사는 “정신적 감리자”였다면서 “안중근은 역사에서 박제화된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의 구체적인 삶 속에 존재함으로써 이 도시에서 행해지는 출판과 건축, 그리고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해 계시는

살아있는 정신이었다”고 했다.

안 의사는 검찰관이 전주교 신자로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렇게 대답한다.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일 뿐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침략 논리(오늘날의 뉴라이트 주장과 놀랄 만큼 닮았다)를 시종일관 대변한 재판장에 대해 안 의사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상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거사의 대외에서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총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총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정에서 심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책은 검찰관 심문 조서, 공판시말기 등 원자료 중심으로 엮여 있다.

이 대표는 안 의사가 “거사일(1909년 10월 26일)로부터 순국한 날(1910년 3월 26일)까지 5개월간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서 일제 판검사와 헌병 등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사면초가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당당하게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며 “당시 31살의 그분이 어찌 그토록 많은 공부를 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양고전 속에 핀 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나라가 분단돼 있고 내부는 분열돼 패거리들을 만들고 부패했으며 말과 글은 상업주의에 빠져 제값을 잃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팔개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이토 히로부미들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승룡 선임기자 schan@hani.co.kr

사진 열화당 제공

## 파주 출판단지 ‘복합콘텐츠도시’로

수원 =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파주 출판단지가 출판과 영상·공연·전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콘텐츠도시로 재탄생한다.

11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파주 출판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출판도시 1단계 부지 내에 기존 출판·인쇄 관련 업종

외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영화·방송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업종 입주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출판도시 입주업종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차례 건의,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⑩ [이사람] “100년 지나서도, 안중근은 살아있는 시대정신” - 한겨레, 2009. 10. 24

⑪ 파주출판단지 ‘복합콘텐츠도시’로 - 전자신문, 2009.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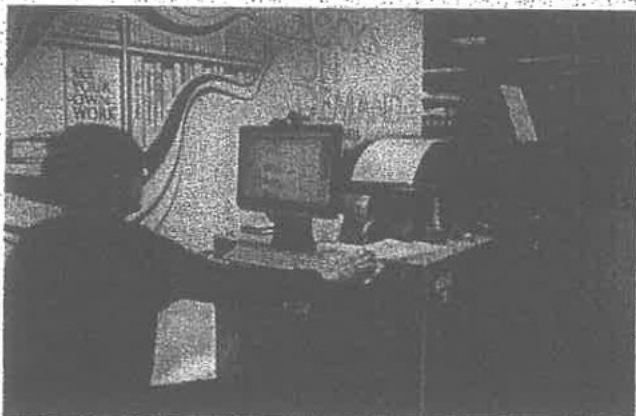


# 앞장선 영국

## 디지털 시대의 출판, 두 풍경

# 뒤쳐진 한국

디지털 기술은 독서 환경과 출판산업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주문형 복사출판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한 대형서점과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린 출판문화 국제포럼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출판 현실과 미래를 살펴보았다.



런던 중심부 채링크로스에 있는 대형서점 볼록셀에서는 주문형 출판시스템 '엑스프레스 북머신'이 지난 9월부터 가동돼 누구나 5~10분이면 절판된 책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책을 즉석에서 인쇄할 수 있다.



지난 19일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에서 제임스 데이 터 히와이드 교수가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

### #1. 영국 런던 시내

런던 시민들은 절판된 구할 길이 없던 책을 엑스프레스 커피 한잔 보는 것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손에 넣는다. 런던 중심부 채링크로스에 있는 볼록셀서점은 지난 9월 주문형 출판시스템인 '엑스프레스 북머신'을 도입해, 고객이 원하는 책을 현장에서 만들어 팔고 있다.

100만권이 넘는 도서 목록 중에서 찰스

### 책제목 클릭하면 눈앞서 인쇄 동네서점도 경쟁력 확보 가능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대니얼 디프의 <젊은 싱클레어> 책을 주문하자, 눈앞에서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뒤 고속 양면복사기를 통해 인쇄된 종이 다발로 묶여 책본이 되고 알맞게 제단이 되었다. 기계 밖으로 '따끈따끈한' 새 책이 만들어져 나오는 데는 5분가량 걸렸다. 사진 등 인쇄 상태를 비롯한 전체적 품질은 새 책과 별 차이가 없었다. 값은 각각 5파운드(약 1만원), 7파운드90센트(약 1만5000원)였다.

볼록셀서점에서 엑스프레스 북머신을 운영하는 리언 더퍼시는 "하루 평균 60여권 정

도를 제작한다"며 "현재 500여권의 주문이 밀려 있다"고 말했다. 더퍼시는 "대부분 주문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90%는 선물 등의 용도로 자신만의 책을 만들려는 단독출판 수요"라며 "한 무명작가는 최근 자신이 쓴 소설책 3종을 60권씩 제작해 스스로 팔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이 2007년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한 엑스프레스 북머신은 현재 '인그림 라이브'라는 회사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100만권의 책은 물론,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도 즉석에서 출판한다. 또 주문자가 저작권자인 경우에도 즉석출판이 가능하다. 내년 초엔 구글이 '도서 데이터베이스 수백만권과 연계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도서 데이터베이스가 이 기계와 연결되면, 절판된 책이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이 지배하던 도서 유통구조도 달라진다. 이 기계를 갖춘 동네서점은 세계 어떤 도서관이나 대형서점보다 많은 종류의 책을 출판할 수 있다.

볼록셀서점의 마케팅책임자 필 제이미슨은 "출판사에서 구텐베르크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며, 작은 동네서점이 아마존닷컴이나 대형서점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간되는 책이 증가해 절판 도서가 늘어나고, 독자의 취향이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가치가 높은 기계다.

### #2. 경기도 파주의 한 국제행사

지난 19~20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제4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은 '책의 진화'와 '디지털출판의 미래'를 주제로 삼았다. 이튿날 '아마존 킨들의 성공 이후 국내외에서 전자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출판인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기회보다 위기로 여겨졌다.

실제로 국내에서 일찌감치 전자책 제작

### 출판계, 기회보다 위기로 여겨 기존 출판생태계 붕괴 우려 커

에 나섰던 북토피아의 실적은 초라하다. 북토피아는 야심차게 12만권의 책을 디지털화했지만 이 가운데 10%만 팔리고 90%의 책은 한 권도 팔지 못한 채 무너졌다. 출판계는 1999년 온라인서점이 등장한 뒤 10년간 전국에서 5000여곳의 서점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한다. 온라인에서 독자는 합인과 마케팅 때문에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입하고, 자본력과 마케팅과 결합한 인기작가의 소설만 팔리는 불복서터 현상이 출판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출판계는 열피와 웹하드 이후 음반과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수난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포럼에서 전자책 환경을 바라보는 국내외 발제자의 인식 차이는 컸다. 국내 출판업계 한 발제자는 "저작권자가 전자책 환경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퀸즐랜드작가센터 대표 제임스 데이터 히와이드는 "애플 아이폰스의 성공에서 보듯, 저작권자들로부터 권리를 사들여 대행하는 사업자나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출판에 적극적인 미국의 대형출판사 사이먼 앤슈스터의 캐럴린 리디 대표는 "회사 전체가 디지털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2만여종의 책을 전자책으로 만든 성과를 발표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기획담당 편집장 앤드루 앨버니츠는 "한국의 한 출판사 사장이 '할아버지로부터 출판사를 물려받았지만 이제 내 두 자녀도 부양하기 힘든 현실로 바뀌었다'고 개탄했다"며 "출판업이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당시의 사업방식이 더이상 지금 시대에 통하지 않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래학자인 제임스 데이터 히와이드 교수는 포럼 폐막연설에서 "출판 업계에도 쓰나미와 같은 디지털혁명이 닥쳐오는데 이를 간파한다면 힘줄려 간다"고 경고하며 "유일한 대안은 파도의 힘을 인정하고 서핑을 익혀 파도를 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파주/글 사진 구본권 기자

starry8@ari.co.kr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⑨

발행일 ——— 2016. 12. 15

발행인 ——— 이 은

편집인 ——— 이환구

발행처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문발동 637-1)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서축공업기념관)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65

편 집 ——— 전기석 · 조용진 · 박경신 · 이진희

인쇄처 ——— 스크린그래픽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된  
〈자료집 ⑨〉은 부정기 간행물로 조합원을 비롯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에 관계되는  
사회 각계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